



# MAXIM

KOREA



이번 호만 읽으면 당신 인생이 편대!

## NEW YEAR SPECIAL

### 사회 생활

상사 보고 100% 컨펌 받는 법  
입냄새 나는 친구 척결법

### 부자 되기

빌게이츠도 한다는 풍수 인테리어  
게임주 주식투자 때돈 벌기

### 생존

세상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개한테 물려 죽지 않는 법

### 성적 향상

문제를 몰라도 답은 맞는  
수능 시험 찍기 신공  
헐, 이러면 누가 공부해!

## PANIC AGAIN!

인쇄 직전 또 화보 폐기당한 빅엿 스토리  
& 21개월만에 에디터K 핑크 땀방 화보

## MISS MAXIM CONTEST

한 해를 책임질 우승자 탄생!

## NEW QUEEN IS BORN

2014 미스 맥심 콘테스트 예선 스타트!

2014년 1월호  
정가 5,900원

## RISING GODDESS

KBS N SPORTS  
아나운서 정인영

## SEX

조루를 이겨내라: 쾌걸 조루  
여자의 성욕을 우습게 보지 마라  
여자들 환장하는 과일 작업주 제조법

## FACEBOOK

페북 맥심 팬페이지가  
맥심보다 재밌다면 곤란한데

## MAXIM KOREA

2014 신입사원 정기공채

입사지원서 현재 접수중

접수마감: 2014/ 01/10 18시

지원자격 및 요령: 174페이지

## +INSIDE

정인영 아나운서 특별 브로마이드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 세계 그 이상의 감동, Royal Eternity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르 코리아 1688-8907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롯데백화점(중동점) 032)320-7559  
\*신세계백화점(선릉점) 051)745-2297  
\*e-walch(영동점) 02)771-7033  
\*타임 21(신도림) 02)2111-1171  
\*타임 21(청주점) 043)224-8851  
\*실성사(대구점) 053)422-3002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정우상사(중로점) 02)2272-2688  
\*W MALL(구로점) 02)2081-0921  
\*북와치(청주점) 043)223-1333  
\*해피타임(대구점) 053)426-3086

\*롯데백화점(본점) 02)772-3908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와와치(강남점) 02)537-8977  
\*타임 24(광진점) 02)3424-0793  
\*케이플러스선(천안점) 041)664-5465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NC백화점(불광점) 02)350-8979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 24(일산점) 031)931-5555  
\*메가와치(송주점) 043)857-9125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NC백화점(송파점) 02)2157-5213  
\*해피타임(용산점) 02)2012-0625  
\*사론(안양점) 031)463-9788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조이컬(포항점) 054)613-1170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롯데백화점(진주점) 063)289-3191  
\*NC백화점(안산점) 031)436-4279  
\*패션존(동대문) 02)3398-7527  
\*시계상사(안양점) 031)441-0158  
\*파베(광주점) 062-383-9930  
\*모다(양산점) 055)911-7111



Swiss made  
Super luminova  
5030D Chronograph  
Unidirectional turning bezel

# MODERNO 301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타임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담타임(인산점) 031)413-7656
- \*월드룩(광주점) 062)410-0137
- \*롯데MALL(김해점) 055)900-2690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4191
- \*NC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타임머신(동대문) 02)6388-2927
- \*뉴크아일랜드(부천점) 032)624-8337
- \*롯데MALL(광주점) 062)806-2719
- \*타임볼(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김포점) 02)6116-3176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198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 \*뱅크룩(부천점) 032)662-0686
- \*타임룩(군산점) 063)443-0090
- \*엘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8-2140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대동백화점(왕원점) 059)212-8383
- \*위치룩(노원점) 070)4136-5090
- \*타임린(인천점) 070)7516-4545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티아라(세주점) 064)745-3008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신세계백화점(양주점) 062)360-1934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TMS세계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 \*보보스워치(청주점) 043)235-1510
- \*엘가(대구점) 053)255-6940

# Contents

January / 2014



## 107 Cover 정인영 아나운서

'물벼락 아나운서'로 유명세를 치른 정인영 아나운서가 2014년 MAXIM의 첫 번째 표지 모델이 됐다! 상큼한 미소에 쪽 뺨은 각선미,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그녀를 영접한 스타프들은 '인영 훌락'에 빠져 그녀가 진행하는 KBS N 스포츠의 <라리가 SHOW>를 무한 반복 시청하고 있다. 그녀를 만나고 나면, 장담하건대 당신도 꿈쩍없이 그녀의 노예가 될 것이다.

“  
남이 입으면 무릎까지 오는  
치마도 내가 입으면  
미니 스커트다. 심지어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



# 올 겨울, 더 곤지암이라 즐겁다!

서울에서 40분만에 펼쳐지는 설원, 기다리지 않아 더 즐거운 시간제 RFD 리프트권 미타임패스 & 미타임V  
곤지암스키장이라서 가능한 즐거움

For Safe, For Well, For Fun, For You & Your Family



2013 - 2014  
Winter season  
곤지암리조트



KONJIAM  
RESORT

# Contents



그런 사람들이 있다. 미쳐서 더 멋있는. 말띠 해를 맞아 그런 아주 특별한 '야생마' 두 마리를 섭외했다. 추운 야외에서 눈물겨운 4족 보행을 선보인 노라조



## Circus Maximus

- 22 예술을 위해 누드로 촬영에 간힘 수십 명의 남녀
- 24 재물 운 불러들이는 풍수 인테리어
- 26 금지곡의 역사: 시대별 황당 금지 사유
- 28 이벤트 함부로 걸었다가 X망한 시연
- 30 숫자 2에 한 맺힌 2의 아이콘 홍진호의 유언
- 32 굿시니스트 카툰: 남자 등골 빼먹는 미인 바그라티온 대공비

## How To

- 34 직장인의 영원한 숙제! 컨폼 잘 받는 법
- 36 사랑 투석기 만드는 법
- 38 슈퍼고열량 부리또 만드는 법

## Comment

- 40 효린의 '너 밖에 몰라'가 이효리의 '텐미닛'이 될 수 없는 이유
- 42 전지전능 부다&예수 자취생 2인조의 현세 적응기 <세인트 영맨>
- 44 '양아 연기 달인' 임창정의 <창수>

## Game

- 47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난 막강 히로인 케리건
- 48 업무 스트레스 날려줄 사무실 개박살 게임 4선
- 49 원사운드 카툰: 문화 충격! 가상친화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최한한 게임들
- 50 싱크로율 150%! <카발2> 포스 아처로 변신한 스파이럴 캣츠
- 52 게임으로 본 주식 투자 이야기: 엔씨소프트

## Sport

- 55 FA 시장으로 예측한 구단별 2014 프로야구 전망, 누가 제일 잘 뽑아갔나?

## Sex

- 58 여자의 성욕이 당신만큼,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강하다는 아주 '과학적인' 근거들

## Smoke&Drink

- 62 뉴욕 바텐더가 알려준 여자 파는 체리 시나몬 커티딜
- 63 서울 바텐더가 알려준 막걸리 과일 작업주
- 64 담배에 얽힌 놀라운 탄생 비화

## Heather Graham

- 66 <행오버> 시리즈의 헤더 그레이엄과 호텔 합방

## Maxim Facebook

- 71 '좋아요'를 누르면 선물이 쏟아진다! 응모하라!

## Stuff

- 72 휘는 폰 'G 플렉스' 출시 한 달째, LG는 다시 헬지가 되는가?
- 74 매사가 귀찮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아이디어 기어
- 76 극강의 디테일! 레고 <진격의 거인>편
- 78 마감보다 품질이 더 무섭다는 에디터들이 이번 달에 지른 물건은?

# ALBA

POSITIVE & SMART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 직영매장 세이코부터크 스타스타점 02)454-8400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직영매장 모엔트 롯데본점 02)772-3181 / 롯데잠실점 02)2143-1920 / 롯데청라점 02)3707-1179 / 롯데명동점 03)8086-9232 / 롯데대림점 042)901-2109 / 롯데대우점 053)660-3122 / 롯데광복점 051)678-4039 / 롯데용산점 052)960-4533 /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현대본점 02)3439-6083 / 현대킨텍스점 031)822-2829 / 현대충정점 043)909-4148 / AK원주점 033)811-5525 / 갤러리아 신주점 055)791-1170 • 면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신세계 / J.C / J.T / K.TO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왕재(771-7033) 경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6789) / 장신사(741-9678) / 정우상사(2272-2688) 홍대문 파슨스(3398-7527)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대(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헤티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168)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현 타임(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9-0871) 광진 TIME타임(3424-7073) 성북 헤시계(2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인현(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시계(253-531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6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뚝이골리(201-7100) / 지지컬렉션(221-48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8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시(245-1230) / 블랑(245-7965) / 타이머(919-4704) 부산진구 플라미(922-2068) / 프르포즈(818-6573) / 동해시(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호텔(279-3119) 대구(053) 중구 중앙리(428-2668) / 바젤(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헤티타임(428-3088) / 열기(255-8940) / 젤마(428-0338) / 리츠(425-0157) / 삼성시(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문(813-1170) / 주원리(244-8172) / 타임미0(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시(256-4574) / 드림플러스(235-6101) 대전(042) 보옥당(263-9241) / 세이브타임(257-7745) / 연비(255-623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마니(561-0438) / 알파워오토(564-5465) / 신세계에진(640-506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کوت타임(233-3050) / 이프우(225-0175) / 현대제일시(515-7172) / 시계경7(226-2251) / 골드북(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김부(285-7596) 제주(064) 순금시(799-1177)

# Contents



83



30



**122**  
Miss Maxim  
Winner  
**김소희**

2013년 MAXIM의 가장 큰 수확은 MISS MAXIM 콘테스트 우승자 김소희다. 그녀의 고풍적인 화보 세리머니를 감상하시라!



131



78



116

## Style

82 1초를 살이라도 품격 있게 살고 싶은 남자의 시계  
84 에디터가 직접 살을 비벼봤다. 당신에게 맞는 보디클렌저를 알려 주마.

## Motor

87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 전기차, 낫산 블레이드 글라이더  
88 독자의 차 회보 프로젝트 #8: 국내 최장수 자동차 코란도C와 최강 글래머 미스맥심 엄상미의 환상 클라보  
92 이기적인 1인승 슈퍼카, 람보르기니 에코이스타

## 7 Amazing Horses

98 갑오년 말띠 해! 거시기 크기부터 지능까지, 사람보다 나은 역사상 최고의 명마 7마리

## No Fear!

116 당신을 놀게 하는 오만가지 공포증 극복법

## Angry Editor

120 악몽의 재림, 인쇄 직전 대형 핑크 그리고 절망의 화보 2탄

## 수능 필살 신공

131 수능 고수가 알려주는 찍기 기술. 와... 이거 알면 누가 공부하나?

## Taylor Momsen

136 <가십걸>의 심대 소녀 테일러 맘슨이 거친 헤비메탈 록 보컬로 돌아와 말했다. "섹시한 걸 표현하는 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 New Year Book

142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에디터 추천 2014년을 더욱 질펀하게 보내기 위한 책들

## From Switzerland Maxim

146 카니에 웨스트와의 스캔들, 미스유니버스 6위, 소문만 무성했던 그 동유럽 미녀를 직접 만났다.

## Fight

152 싸우기 위해 태어난 남자, 마크 헛트 이야기

## Military

158 기획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답 없는 비운의 무기 4선

## Party

162 소름 돋게 추운 겨울, 한 여름 바닷가의 뜨거움을 클럽 파티로 즐기고 온 에디터  
164 진보하는 뮤지션 '진보'가 디제잉을 하는 이유

## Recruit

174 맥심 과거 시험에 급제하길 비내 MAXIM 2014년 신입사원 정기 공채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

## 2014년 MAXIM 신입 사원 정기 공채 안내

세계 85개국에서 발행되는 최강의 글로벌 남성 매거진 MAXIM의 한국 법인에서 2014년 정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MAXIM과 함께 지구 최고의 매거진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갈 재치있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소속	마케팅과	편집부	
모집 직군	광고영업직	매거진 에디터	편집 디자이너
모집 인원	0명	0명	0명
전형 절차	1차 서류 전형 ▶ 2차 필기 전형 ▶ 3차 면접 전형	1차 서류 전형 ▶ 2차 필기 전형 ▶ 3차 면접 전형	1차 서류 전형 ▶ 2차 과제 전형 ▶ 3차 면접 전형
모집 일정	<b>&lt;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gt;</b> <b>2013년 11월 28일 ~ 2014년 1월 10일 18시까지</b>		
접수 방법	<b>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접수</b> ※ 홈페이지 하단 메뉴 RECRUIT 클릭 ※ 정해진 방법 외로 접수한 경우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 사진은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증명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b>&lt;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gt;</b> <b>2014년 1월 17일 18시</b>		
이후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이후 일정 통지		
필수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2014. 2월 졸업 예정)</li> <li>•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li> <li>• 전공 무관</li> <li>•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2014. 2월 졸업 예정)</li> <li>•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li> <li>• 전공 무관</li> <li>•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2014. 2월 졸업 예정)</li> <li>•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li> <li>• 전공 무관</li> <li>•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li> </ul>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영업</li> <li>• 제휴/기획 업무</li> <li>• 기타 MAXIM 광고, 마케팅 관련 업무 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기획</li> <li>• 기사 작성</li> <li>• 화보 촬영 디렉팅</li> <li>• 섭외 및 취재 진행</li> <li>• 기타 MAXIM 매거진 콘텐츠 제작 업무 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거진 편집 디자인</li> <li>• 디지털 매거진 제작</li> <li>• 전자출판 관리</li> <li>• 웹디자인</li> <li>• 기타 디자인 관계 업무 전반</li> </ul>
적성 및 우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화력이 뛰어나며 유머 감각이 있는 자</li> <li>•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자</li> <li>• TV, 신문, 잡지, 옥외 광고 영업 유경험자</li> <li>•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우수한 자</li> <li>• 경제 관념이 우수한 자</li> <li>• 운전이 가능하며 즐겨하는 자</li> <li>• MAXIM 매거진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문 능력이 있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자</li> <li>•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자</li> <li>• 영어, 기타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li> <li>• 에디터, 기자, 어시스턴트, 수습 기자 등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자</li> <li>• 사진 및 영상 촬영, 편집 능력이 있는 자</li> <li>•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li> <li>• MAXIM 매거진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디자인, 포토샵 등 Adobe 툴 사용이 능숙한 자</li> <li>• 지면 구성, 시각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자</li> <li>• 시각디자인학과 또는 관련 전공자</li> <li>• DPS 출판, 인쇄 출판 등 관련 직무 유경험자</li> <li>•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자</li> <li>• MAXIM 매거진을 즐겨 읽으며, MAXI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li> </ul>
근무 형태	<b>인턴직:</b> 사내 규정상의 인턴 기간 동안 근무하고, 인턴 기간 동안의 업무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진 <b>급여 조건과 복리 후생:</b> 사내 규정에 따름		
근무 장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22 MAXIM KOREA 빌딩 (번지 주소: 서교동 446-36) /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서류 전형 면제자>**

- **대상자:** MAXIM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자. (어시스턴트, 대학생인턴십, 아르바이트 포함) 단, 필수 지원 자격은 갖추어야 함.
- **특전:** 서류 전형 통과 (근무했던 부서와 다른 부서 지원 가능)
-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상의 <서류 전형 면제자> 란에 체크하고, 자기소개서 없이 입사지원서만 작성하여 접수할 것.

**<신입 편집 디자이너 직군>**

희망자는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이메일 recruit@maximkorea.net

**<문의 사항>**

채용 관련 문의는 이메일 recruit@maximkorea.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NEW ERA PRESENTS

# OVERSPRAY



[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Bekaf Bell



Butterfly on your wrist



베카벨 | www.bekabell.co.kr | 02.3397.7100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 (02-8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 하이힐 (02-2136-9743)

[판매점]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051-678-4191) / 대구백화점 (053-422-3191)  
친힐서(02-745-0333) / 타임머신(02-6388-2927)

사문주일리(031-463-9788) / 핑거통(032-662-0686)

[면세점] 제주 승문면세점 (064-780-7671)

거노코퍼레이션 공식 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 MAXIM

www.maximkorea.net

## 편집장 이영비

###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 팀장  
박정욱 사원

**편집 2팀**  
에디터 조용재 주임 / 팀장  
김소윤 사원

**편집 3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 팀장  
뷰티 에디터 장혜민 사원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팀장  
에디터 김진욱 과장  
정재식 사원  
영상 에디터 김상수 사원

**편집 5팀**  
디자이너 김려은 인턴  
이상윤 인턴  
정지우 인턴

**객원 에디터**  
격투 칼럼니스트 이응수  
<엑스포> 기자 김덕중  
<마이데일리> 스포츠팀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기자 김민석  
카툰 작가 굽시니스트  
카툰 작가 onesound  
번역사 Felix Lee  
펀드매니저 Fred Kim

**교열** 신선경

###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과

재무 회계 최인영 과장  
유통 안재만 사원  
정광석 인턴  
비서 정석영 사원  
법무 방인식 대리

### Marketing / 마케팅과

광고마케팅 김진욱 과장  
정재식 사원  
박상준 매니저

### Web & Mobile Service / 웹 모바일

토크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 Photography / 사진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김도훈 팀장

###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응관 대표

###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 MAXIM Contact

독자 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partner@maximkorea.net  
광고 문의 / 사업 제휴 TEL. 070-4010-8994  
joy@maximkorea.net  
정기 구독 / 대량 구매 TEL. 02-323-1182

MAXIM에 귀사의 브랜드 및 이벤트, 인물과 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편집부 대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취재 문의 및 화보, 협찬: [press@maximkorea.net](mailto:press@maximkorea.net) / 영화,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mailto: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22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4년 1월호 통권 제45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PRESIDENT: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 AUSTRALIA

Santi Pintado

#### AUSTRIA

Boris Etter

#### BULGARIA

Hristo Zapryanov

#### CZECH REPUBLIC

Jan Stepanek

#### GERMANY

Boris Etter

#### INDIA

Vivek Pareek

####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 ITALY

Paolo Gelmi

####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 RUSSIA

Sasha Malenkov

#### SERBIA

Dragan Otašević

#### SOUTH KOREA

Young-Bee Lee

#### SWITZERLAND

Boris Etter

#### THAILAND

Surawong Krueafan

#### UKRAINE

Sasha Malenkov

####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mailto:maximworld@maxim.com)

#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http://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http://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http://www.eurotime.kr)

[ 직 영 점 ] 롯데백화점 분당(031-738-2140) / 롯데백화점 미아(02-944-2130) / 대구백화점 프라자(053-253-7133) / 하이힐(02-2136-9743)

[ 먼 세 점 ] 제주중문명세점 (064-780-7671)

[ 판 매 처 ] 롯데백화점 본점(02-772-3908) / 노원(02-960-2164) / 잠실(02-2143-1922) / 영등포(02-2164-6191) / 건대스타시티점(02-2218-3191) / 부평(032-452-2146) / 전주(063-289-3191) / 창원(055-279-3192) / 대구(053-660-3126) / 부산 본점(051-810-4087) / 대구 백화점(053-422-3191) / NC백화점 강서점(02-2667-9902) / 해운대점(051-709-5741) / 뉴코아아울렛 강남점(02-535-1948) / 안산점(031-8085-1708) / 대전 세이백화점(042-257-7745) /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2012-0626) / 와우치 강남점(537-8977) / 월타임(2200-1355) / 전진상사(764-4716) / 타임마신(6388-2927) / 타임 21(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로워치(779-6964) / 경기(031) 시계상자(466-1014) / 사문주얼리(463-9788) / 유빈(658-6883) / 타임루트(487-9057) / 타임24(931-5500) / 타임플러스(371-6950) / 경기(032) 대성(325-7467) / 타임스토리(613-0516) / 행복통(662-0686) / 타임런(504-8245) / 청주(043) 보보스워치(235-1510) / 타임21(224-8851) / 북워치(223-1333) / 광주(062) 타임엔타임포(222-3114) / 에버뉴(222-7782) / 대구(053) 공주나라(256-0975) / 골드&워치(424-4442) / 그리니치(255-6165) / 대백프라자(254-3977) / 레프(425-0157) / 스위스워치(593-4844) / 신세계 블루스택(566-3316) / 주얼리아(428-2688) / 해피타임(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 광복(253-5315) / 명성시계 남포(253-5334) / 명성시계 서면(667-7356) / 명성시계 신창(253-5354) / 월드타임(245-8359) / 덕천시계 (333-8849) / 타이머블(919-4704)



# Letter From MAXIM

## 지금 이 나아

할리우드 대표 어르신 알 파치노와 크리스토퍼 월켄, 앨런 아킨. 이 세 '옹'들을 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멋진 녀석들>을 최근 다시 봤다. 총질과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칠게 살아온 세 남자가 노인이 되어 23년 만에 재회해 보내는 마지막 하루를 그린 영화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오늘 내일 하는 우울한 노인이지만, 험기왕성한 시절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 드라이버였던 허쉬(앨런 아킨), 오랜 친구인 독(크리스토퍼 월켄)과 발렌타인(알 파치노)은 허쉬를 요양원에서 구출(?)한다. 허쉬는 기다렸다는 듯 멋진 운전 솜씨로 경찰을 따돌리고, 아내가 죽은 후로 냄새도 못 맡은 젊은 여자를 한 번에 들썩이나 품으며 즐거워한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신나 보이는 허쉬가 발렌타인에게 말한다.

**허쉬:** 지금이 나아.

**발렌타인:** 왜?

**허쉬:** 이 일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늙고 병들었으며, 젊은 여자들은 더 이상 그를 남자로 보지 않는다(돈을 주면 자 주기는 한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이 젊은 시절보다 낫다고 말한다. 기력이 왕성하고 거칠 게 없던 청춘 시절보다 현재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다 늙어빠진 지금이 낫다고 말이다. 내가 이 할배들 나이가 되어 그의 말을 다시 곰씹으면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글썽다. '지금'이 지나야만 현재 내가 누리는 '지금'의 가치를 알고 고마워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웬지 좀 슬프다. 세상 모든 것이 과거형이 되거나, 과거에 가까워져야만 더 귀해 보이는 건가 싶어서.

지난 2013년 12월호에선 어린 시절 그렇게도 좋아했던 듀스의 이현도를 MAXIM의 '아이콘'으로 만났다. 가재나 게 같은 감각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장갑을 끼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무대에서 날아다니던 이현도도 이제 마흔줄이다. 방문에 그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노래를 따라부르던 10대 팬도 어느새 서른이 넘었다.

그 시절의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지만 돌아보면 '그때 참 좋았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와 걱정을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보니 그때가 좋았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전연 기저귀에 똥만 잘 뉘도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해줬는데, 돌이 되면 등상에 오른 실, 연필, 편사봉, 마이크, 청진기 중 제일 관심은 걸 집어와 모두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몇 년 지나면 대스변을 가릴 줄 알아야 칭찬 받고... 시간이 갈수록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도달 목표가 점점 높고 어려워진다. 당연히 옛날이 좋아 보일 수밖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옛날이 더 '쉬워' 보일 수밖에.

다시 두 영감쟁이의 대화를 보니, 허쉬는 분명 지금이 '낫다'고 했다. 맞다. 그때가 좋았지만, 지금이 낫다. 시간이 갈수록 풀어야 할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니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지지만, 그 때문에 우린 닳친 문제에 덜 당황하고 푸는 방법도 더 빨리 찾게 된다. 고마움과 겸손의 감정 역시 더 깊어진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가 더 낫다. 이번 마감을 끝내고 나는 직원들과 세무로 4박 5일 워크샵을 간다. 그동안 바쁘다. 마감 때문에 안 된다, 일정상 힘들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뤄온 일이다. 바쁜 제작 일정은 잠시 접고 따뜻한 남쪽 해변에서 서울의 차가운 냉기 좀 빼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이 가능해지다니, MAXIM도 참 많이 좋아졌다. 아마 지금 봉착한 고질적인 문제를 내일은, 내년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본다.

미래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해마다 '신입 사원 공채'를 한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인재들을 또 만나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2014년 상반기 신입 사원 공채는 현재 진행 중이다(MAXIM 홈페이지 및 p.174 참조). 올해는 또 얼마나 뜨겁고 신선한 피가 수혈될지, 어떤 후배를 맞게 될지 MAXIM 사람들 모두 목을 빼고 기다리는 중이다.

글을 마무리하다 보니 예전에 끼적여둔 인생 목표 중 하나가 생각났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지금'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자신감을 준다. 친해하는 우리 독자 여러분도 모두 긍정적인 기대와 생각으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지난 한 해 동안 MAXIM을 꾸준히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편집장

이영비

영화 <멋진 녀석들>의  
멋진 세 할배



WARGAMING.NET  
LET'S BATTLE



# WORLD OF TANKS

## ROLL OUT

### 남자들의 게임, 월드 오브 탱크



인터넷 검색창에서 **월드 오브 탱크**를 검색하세요 ▼





HELL DIVER

1942 SB2C

TRIPLE TIME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N C백화점(아탑점) 031-780-3114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N C백화점(해운대) 051-709-5737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TIME 21(강변점) 02-3424-7073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롯데센텀점(부산점) 051-730-3198  
 2001아울렛(중계점) 02-3399-8236  
 사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탐타임(안산점) 031-413-7656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티파니(안산점) 031-931-5300  
 노블리(일산점) 031-961-6795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뽕끼통(부천점) 032-662-0686  
 북와치(청주점) 043-223-1333  
 타임볼(부산점) 070-7530-1219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스와치시계(부산점) 051-624-7171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더타임(진주점) 055-741-3072



## 난 네게 뭐니?

동아리 신입생 여자애가 아이유를 닮고 노래도 잘해서 보자마자 침 발라두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소. 그렇게 물밀작업만 일 년. 그런데 이 처자가 얼마 전부터 자기 동기 사내놀과 붙어 다니는 게 아니겠소? 그 자식 키가 크긴 하더군. 난 그저 호구였던 거요? <작은 버섯, 이메일 사연>



## 내 아내의 모든 것

드라마 <네 이웃의 아내>에서 '마누라성 발기부전'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요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의 발기부전이 흔하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어요. 지쳐가는 30대 후반 유부남들이 건강하고 현명하게 '마누라성 발기부전'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랑스런 풀뱅이, 이메일 사연>



## 독자 사연 응모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사연이 실린 독자 모두에게 주는

### 이달의 독자 선물

사연이 잡지에 실린 독자 모두에게 다음의 선물을 랜덤으로 배송해 준다!



**에디터 손안나** ♡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고백은 안 하고 주변만 맴도는 남자.. '여성관리 남' 처럼 느껴져서 멀리하고 싶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미칠 노릇이죠. 저는 이럴 때마다 '염구리 쿡쿡 찔러서 고백 받아내기' 수법을 씁니다. 혹시 아이유 양도 그런 거 아닐까요? 친한 남자 동기 녀석에게 남친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작은 버섯님 앞을 얼정대며 질투를 유발하는 거죠. 차고로 고기는 씹으라고 있고, 고백은 하라고 있는 겁니다. 박력 있게 고백하세요. 이런 멘트는 어떨까요? "지은아, 저 콩나를 같은 새끼는 버리고 오빠한테 와. 내가 더 잘해 줄게."



**에디터 유승민** ♡ 말씀하신 이유 모두 발기력을 저하의 원인이지만 배우자랑만 유독 잘 안되는 '마누라성 발기부전'은 아내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 생겨나요. '마누라성 발기부전'이라 하면 여자들은 존심 상해서 길길이 뛰죠. "그래서? 먼 년들만 보면 그렇게 서냐?" 하면서요. 풀뱅이님은 그와 달리 현명하시네요. 다행이군요. '마누라성 발기부전'은 결국 아내가 해결의 키를 쥐고 있거든요. 직장 스트레스나 환경 문제는 손 쓸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우선은 독자님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티를 내선 안 됩니다. 남편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강박을 갖지 않게 배려해주세요. 원래 '죽으면 안 돼' 하며 긴장하는 순간 수그러드는 것이 곤혹거든요. 그런 모습을 봐도 실망하는 내색을 하지 말고, 삽입에 목적을 두지 않는 듯한 스칸심을 이어 가세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다시.

## 갑오년 특집!

말처럼 달리고픈 독자들의 궁금증, 말 전문가 한성승마클럽의 왕윤재 과장에게 물었다.



**Q. 올해는 말처럼 살고 싶어요. 말은 어떤 동물인가요?** <로빈 후드, 이메일 사연>

**A.** 첫째, 말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예민한 소리에도 잘 놀라니, 말처럼 살고 싶다면 여기저기

눈치 보여 조심스럽게 살면 됩니다. 둘째, 말은 서로의 서열이 확실합니다. 주변에 기어오르는 후배가 있다면 뒷발로 확 까버리세요. 셋째, 말은 사람으로 치면 3살 정도의 지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동심을 간직하며 사세요. 넷째, 말은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풀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조깅을 자주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은 당근, 사과, 오이, 수박 껍질을 좋아합니다. 고기는 피하고 되도록 채식을 하십시오.

**Q.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말을 한 마리 사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죠?** <나말이야, 이메일 사연>

**A.** 자동차도 승차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듯 말도 승마감에 따라 가격이 수백에서 수억 대로 다양합니다. 비싼 말일수록 코너를 돌 때 부드럽게 잘 돌고, 멈추는 신호도 잘 알아듣죠. 말을 살 때는 말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를 식별하기는 쉽지 않아서 교관과 함께 가는 걸 추천합니다.



### 랩시리즈 멀티-액션

**웨이스 워시**  
등근 해가 땀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연한 알갱이가 모공 속까지 깨끗이 청소해주는 랩시리즈의 폼클렌저로 부드러운 소리가 나도록 세수를 하자. 어느 때보다 상쾌한 한해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한 살 더 먹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벤자민 버튼'의 시간만 거꾸로 가란 법 없다. 엠도씨 안티 링클 트리트먼트 몇 방울을 얼굴에 바르고 톡톡 두드려 잘 흡수시키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줘 어제보다 오늘 더 어려질 수 있다.

### MAXIM 여성용

#### V넥 티셔츠

여성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다! 쪽쪽 땀 뻘룩 뻘룩 땀의 필수 아이템 V넥 티셔츠에 MAXIM 로고를 박아 섹시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거 입고 동네 남성들의 마음을 싸그리 다 훑어버려!



# SUPERSTARI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성들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http://www.superstari.co.kr)

맥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10% 할인혜택

**47F6-D62F-365A-C6DB**

슈퍼스타아이 홈페이지 방문 후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상품 이용가능합니다.



# Dear. Readers



## 정인영 아나운서의 독자 고민 상담

지성미 넘치는 축구 여신, 정인영 아나운서가 전하는 쓸쓸한 조언 한 마디!

구두 슈즈원

**Q.** 월요병이 너무 심해요. 아... 벌써 집에 가고 싶네요. 이걸 극복하는 좋은 방법 없나요?

〈나어떡해, 이메일 사연〉

**A.** 저는 KBS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이 끝나는 순간 더 우울해진대요. 그 대신 제가 진행하는 방송 KBS N 스포츠 〈스페셜 V〉를 기다려 보는 건 어때요? 오후 11시에 방송한답니다(웃음). 그래도 위로가 안 되면 아직 취입이 안 돼서 우울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난 행복하지'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Q.** 서른 살인 남자친구가 자주 "혈맹, 혈귀, 대박 사건"을 외쳐대요. 어떻게 하면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조신한 여자, 이메일 사연〉

**A.** 진지하게 싫다고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도 계속 하면 진짜 나쁜 남자! 그런 나쁜 남자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을 써야 해요. 남자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래?"라고 화를 내면 "네가 혈귀, 혈맹, 대박 사건"을 그만 쓸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야!"라고 대답하세요.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Q.** 가족들이 일본으로 떠나 기러기 아빠가 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었어요. 어찌하면 이 외로운 마음을 추수를 수 있을지...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심재정, 모바일 사연〉

**A.** 건강하게 외로움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거나 모임에 나가는 건 어떨까요? 운동을 해보세요! 혼자서 하는 운동 말고, 여럿이서 같이 하는 운동. 사회인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 보는 건 어때요? 주말마다 운동하고, 주중에도 연락하며 자주 만나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http://www.arbutus.co.kr

# ARBUS<sup>®</sup>

## New York

Arbutus  
Globaltime watch company  
NY Sensibility  
Real Watches

real watches **for** real people



### WALL STREET

COLLECTION

AR 610RWF

공식수입처 : 글로벌타임 Tel 02.778.1590 www.globaltime.co.kr

서울 노원 워치록 070-4136-5090  
신촌 이타임월드 02-313-4108  
종로구 진진상사 02-764-4716  
테크노마트 타임21 02-3424-7063

두타 타임갤러리아 02-3398-5528  
신도림 타임타임 02-2111-1141  
가로수길 블랙브라운 1588-6768  
수원AK 031-240-2277

인양1번가 시계상자 031-441-0158  
인양1번가 샤론 031-463-9788  
일산 웨스턴튼 타임24 031-931-5300  
인천 구월동 워치보이 070-8632-5300

인천 부평 타임번 070-7516-4545  
충남 대천 대천마켓 041-935-4994  
청주 복와치 043-223-1333  
부산 광복동 명성시계 051-253-5356

제주 한림읍 부띠 010-9083-5706  
신세계 인천점 타임마케팅 032-430-1486



# Dear. Readers

어쩔 땐!

헉!

말이 험하네...

## 노라조의 독자 고민 상담

야생마 두 마리가 MAXIM 독자들의 우울한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버렸다!

모피 대한모피

**Q.** 어느 날 여친에게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라고 물었더니 “사자는 남자고 호랑이는 여자잖아.”라고 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일까요? 본인은 26년 동안 그리 알고 있었대요. <이정환, 모바일 사연>

**A.** 이정환 씨의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이 나중에 엄청난 싸움을 유발할 것 같네요. 여친이 그런 소리를 하면, “여? 그럼 난 사자고 자기는 호랑이겠네? 오늘 사자한테 한번 물려 볼래?”라고 받아치세요. 그럼 싸움 일도 없고, 더 일콩달콩한 연애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Q.** 아직 제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나 이직을 제안한 회사나 다 좋은 곳이에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한량, 모바일 사연>

**A.** 결정하기 쉽진 않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회사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간호해야 한다.” 같은 뻔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꿈을 좀 더 펼쳐보고 싶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세요. 그럼 회사에서도 이해하고 쿨하게 놓아줄 것 같네요.

**Q.** 회사 여자 선임이랑 몇 번 만나다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좀 뒀더니, 회사 여자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왕따 됐나 봐요! <적일, 이메일 사연>

**A.** 이견 독자님이 잘못 하셨네. 그러게 왜 선임을 만나? 하긴.. 사장이었으면 벌써 질렸지. 소문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이혁’, ‘변’ 이 두 단어만 언뜻 들려도 다음 날 이혁은 바지에 똥을 싼 게 기정사실로 돼버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야지. 지금까지도 대화를 시도해서 정리를 제대로 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야**  
[www.couple2ya.com](http://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야** 를 검색해 보세요.

RSVP 02-511-9151  
Cover Before 12am 10,000won  
After 12am 30,000won  
Location Club Syndrome,  
Hotel Sunshine B1, Sinsa-dong  
Gangnam-gu, Seoul, South Korea

**DRESS CODE**  
CHRISTMAS LOOK,  
RED & GREEN

**DJs**  
S2 / HOON  
4PLAY  
FENNER  
HYDE  
BAGAGEE=VIPHEX13  
SCHEDULE1  
JUNCOCO  
MAXIMITE  
BIG BAD NOSE  
DR.GO  
EQUINOXE  
JUN / REIGN  
SOO  
EAR DRUM

**with d**  
**MAXIM**  
**Christmas Party**  
**at SYNDROME**

2013.12.20  
Friday  
10:00pm Open

NO MINOR ALLOWANCE  
산타 파티는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 The MAXIM Christmas Party

###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밤 10시,  
2013년을 마무리하는 가장 화끈한 파티가 열렸다. 바로 1급수에서만 자생하는 신선한 미녀들만 바글거린다는 The MAXIM Christmas Party. 자비로운 MAXIM은 치사하게 혼자만 재미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적어 보낸 100명에게 파티 초대권 선물을 뿌렸다! 그런데 수많은 위시 리스트 중에 MAXIM 에디터의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으니...

**1 박진성:**  
안나 에디터 1년  
무료 이용권, 제가 군밤집  
사장이거든요.



이날 못 판 밤이 회사에  
한가득인데, 도매가로  
넘길 테니 좀 사 주세요.

**2 Kim Seoro:**  
에디터들의 비밀폴더  
내용물들이요. 외장하드  
들고 갈게요.



하나만 물어 보지,  
자네, 나의 취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3 이수형:**  
크리스마스 선물로  
맥심 편집장 자리를 주세요.



여기 이 마친 암수놈들도  
덤으로 드릴게요.  
교환,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독자님의 열화와 같은 이벤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MAXIM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MAXIM 섭외 요청 게시판

MAXIM에서 꼭 만나고 싶은 모델이 있나? MAXIM 홈페이지 메인에서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라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었던 모델을 추천하라. 당신이 추천하면 우리가 섭외한다. 그동안 많은 스타들이 이곳을 통해 섭외됐다!



### This Month's Hot Request

이번 달 MAXIM이 독자 요청에 부응하여 섭외한 표지 모델은 우월한 기력과 몸매의 정인영 이나운서다. 상큼한 그녀의 화보를 보고 싶다면 107페이지를 주목하라!



### MAXIM Online Survey

나는 게임 하다가 '현질(현금으로 아이템, 미니, 캐릭 등을 구매)'을 한 적이 있다.

MAXIM 설문 조사 바로 가기

총 투표자: 1,280명 투표 기간: 2013.12.3~진행 중

MAXIM 독자 중 열에 여덟은 현질을 마다하지 않고 게임에 열중함으로 추운 겨울을 이기는 지혜를 터득한 현자들이었다. 이밖에도 더 흥미로운 설문들이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니 많이들 참여하시라!

### MAXIM Facebook Page

#### MAXIM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MAXIM 페북 페이지 방문하기

#### 우리 이사 했어요!

MAXIM 페이스북 계정이 큰 집으로 이사했다. 기존 MAXIM Editors 계정이 친구 5,000명을 팍팍 채워 친구를 더 받을 수 없다! 이제 더 많은 독자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니, 어서 와서 '좋아요'를 꼭 누르도록!

MAXIM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www.facebook.com/maximkorea](http://www.facebook.com/maximkorea)



금속 수입원: 창원 02-3445-4603

편의점	031-696-1277	대리점	02-745-0333
신세계백화점 경계동점	041-640-8082	신정시(충북)	02-408-8626
신세계백화점 중영점	051-745-2297		
신세계백화점/영남사당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외정동점			

KENNETH COLE NEW YORK

# Circus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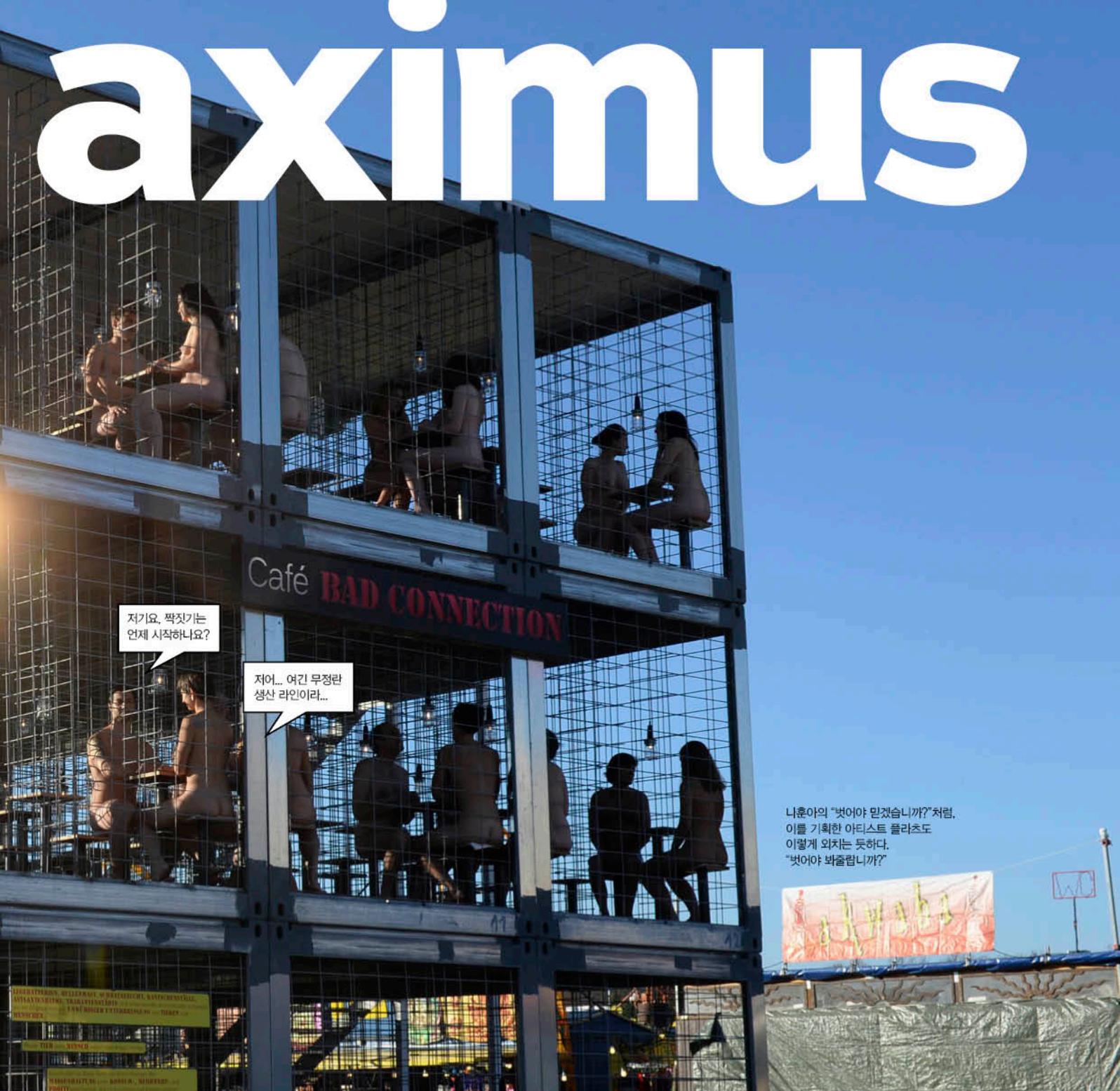
A MAXIM VIEW OF  
THE WORLD



좀 더  
가까이...



# aximus



저기요, 짝짓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저어.. 여긴 무정란 생산 라인이라...

니훈아의 "벗어야 맞겠습니까?"처럼, 이를 기획한 아티스트 플라츠도 이렇게 외치는 듯하다. "벗어야 봐줄립니까?"

## Naked Art 몸으로 말해요!

이 행위예술을 감상하는 외중에도 여기서 제일 예쁜 여자를 기어이 찾아내는 우리의 매서운 눈, 사실 이게 진짜 아트 아니겠나?



"서양놈 것도 추우면 쪼그라드는구먼?" "유럽 여자는 전부 아래를 미나뉘! 민둥해!" 어쩔 수 없다. 그런 게 먼저 보이는 게 인간이다. 그래도 인간이 '그냥' 털없는 원숭이가 아니라란 증거는 예술이라는 고차원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지. 지난해 12월 14일, 뮌헨의 톨우드 겨울축제에선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 행위예술가 볼프강 플라츠의 지휘 아래 실빛 이벤트가 벌어졌다. 프로젝트 이름은 '더 크라운 오브 크리에이션'. 거대한 철제 우리에 나체의

사람들을 가두는 행위예술이다. 일몰로 진행되는 서양 노모판 <짝>인가 싶겠지만, 이 이벤트는 동물 복지를 위해 공장형 동물 농장에 반대하는 뜻에서 이뤄졌다. 이걸 보니 말의 해가 시작된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동물 보호 행위예술의 영감이 솟구친다. 애마부인 서른 명이 말을 타고 출렁이며 광화문부터 요 흥대 입구까지 달려오는 말 사랑 행진. 총 감독은 역시 이런 일에 도가 튼 MAXIM 편집부가 제격이겠지. 페이는 됐고요... 노모로 헤드려? 아님 유모?



## 부자 되는 풍수 인테리어

빌 게이츠 집도 풍수적으로 만들었다더라. 밀져야 본전이니까 한 번 해 보자고.



### 1 부엌

**설거지는 바로바로 한다.**  
고인 물은 풍수에서 '죽은 물'로 통한다. 설거지거리를 물에 담가놓는 것은 집에 시체를 두고 있는 것과 같다.

**냉장고와 오븐은 떨어뜨려 놓는다.**  
물의 기운인 냉장고와 불의 기운인 오븐이 붙어 있으면 기가 상충해 음양의 기운이 깨져 낭비가 심해진다. 음기인 여자와 양기인 남자의 만남에는 항상 돈이 들잖아?

**세척한 그릇은 얹어놓지 않는다.**  
그릇을 얹어놓으면 물이 새듯 자기도 모르게 새는 돈이 많아진다. 혹시 아바위를 하면 항상 돈을 잃는 이유도?

**부엌에 지갑을 놓지 않는다.**  
불의 기가 강한 부엌에 금(金)의 기가 강한 지갑을 두면 금전 운이 새카맣게 타버린다. 사라진 금전 운에 당신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갈 거다.

### 2 거실

**모란꽃을 키운다.**  
모란꽃은 부유함을 상징한다. 모란 꽃을 키우는 게 힘들다면 그림이라도 걸어두자. 비슷한 효과를 낸다.

**황금이나 노란색 계통의 색상으로 꾸민다.**  
부를 상징하는 색이 돈을 부른다. 금 팔찌, 금 목걸이로 치장해 잉아치록을 완성하라는 건 아니고,

**물이 흐르는 풍경화를 건다.**  
물의 흐름은 돈의 흐름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 물의 흐름이 현관으로 향하는 그림은 재물 운을 사라지게 한다.

**옷장이 창문을 향해 놓이지 않게 하자.**  
풍수에서 옷장은 재물을 상징한다. 옷장을 창문을 향해 열어 놓는 것은 창밖으로 지폐 다발을 날리는 꼴이다.

### 3 화장실

**변기 뚜껑과 화장실 문은 닫고 잔다.**  
화장실 변기에 고인 물은 집 안에 우물이 있는 것과 같다. 변기 뚜껑을 닫아 음기의 방 안 침입을 차단한다. 음기는 몸을 아프게 하거나 재물을 나가게 한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이용한다.**  
물이 항상 고여 있는 화장실은 음기가 강하다. 샤워 후 물기를 잘 닦고 청결하게 쓴다.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한다.**  
뚜껑 열린 사람이 쌍욕을 뿜어내듯, 뚜껑 열린 쓰레기통은 나쁜 기를 뿜어낸다.

**육실 용품을 고급 제품을 쓴다.**  
고급 육실용품은 재물 운과 연애 운을 불러온다. 돈이 있어야 고급 육실용품을 살 텐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 4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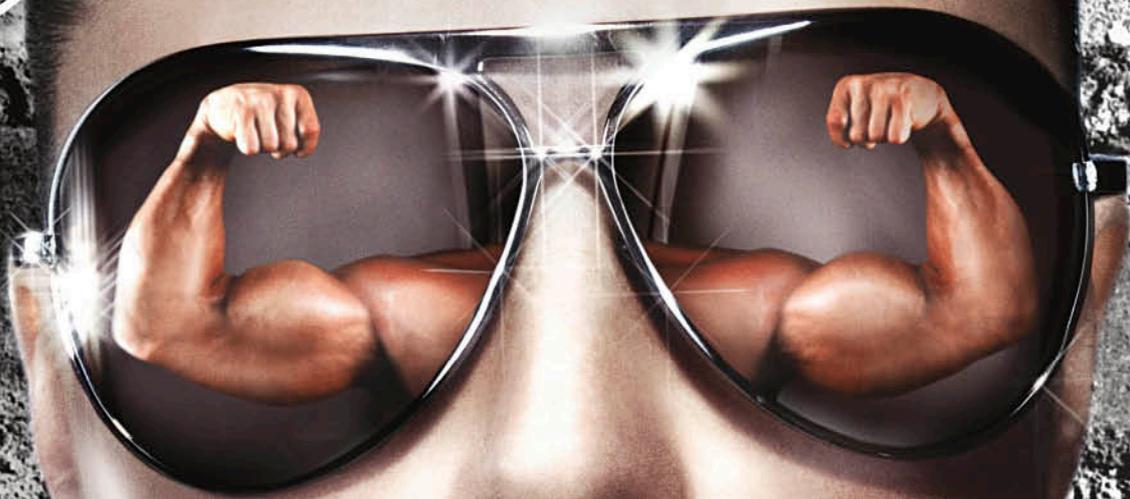
**현관을 밝힌다.**  
현관은 기(氣)가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곳이다. 현관이 어두우면 재물 운이 안 들어온다.

**현관에 해바라기를 둔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상징한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현관에는 해바라기를 두자. 이것은 재물 운을 낚는 페이크다.

**현관의 왼편에 거울을 둔다.**  
현관 왼편의 거울은 재물 운을, 오른편은 명예 운을 불러온다.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면 좋은 기를 몽땅 반사한다고 하니 금물.

**현관과 창문 사이에 화분이나 장식품을 둔다.**  
현관과 창문이 마주보면 좋은 기가 현관으로 들어와서 창문으로 나가는 '누재택'이 된다. 화분이나 장식품을 놓아 기가 새는 것을 막자.

# WORLD™ GYM



Make a Wish for 2014  
**WORLD GYM**

[www.asiaworldgym.com](http://www.asiaworldgym.com) 월드짐 일산 본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교대점 02-593-7766 강남점 02-2052-0096 대치점 02-538-0700 울산점 052-281-1122 부산연산점 051-758-5554

###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이유



빨간 딱지가 붙어서 어쩐지 더 끌리는 음악들. 시대별로 살펴 보자. BY 손안나

**1 1968년**  
**김상희의 '단별 신사'**  
"단별 신사 우리 애인은 서른한 살  
노총각남, 단별웃에 넥타이 두 개"라는  
가사를 가지고 당시 북한에서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단별웃에  
넥타이 두 개"로 지내며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2 1975년**  
**배호의 '0시의 이별'**  
아간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 0시에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이라서.

**3 1979년**  
**혜은이의 '제3한강교'**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가사가 원나잇 스탠드를 연상시켜서.

**4 1980년**  
**심수봉의 '순자의 가을'**  
그 당시 영부인 이름이 '순자'였다.

**5 1983년**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터지자, 이 노래로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문화공보부에서 금지곡으로 지정.  
이게 웬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야?

**6 1989년**  
**김흥국의 '호랑나비'**  
한 국어학자가 노래 속 '아씨'가  
일본말이라며 들고 일어나서.

**7 1990년**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악을  
마시는", "특급호텔 로비에 독실거리는  
매춘관광의 호사한 청년들과 함께"  
등의 표현이 너무 세다며 공연윤리  
위원회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음. 이에  
정태춘 옴은 음반 불법 제작, 발표로  
패기롭게 맞대응했다. 사선심의제도  
폐지의 시발점이 된 사건.

**8 1994년**  
**조관우의 '눈'**  
유부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곡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조관우가  
자위행위를 묘사한 곡이라고 밝혀 방송  
금지. "어느새 꽃은 시들고~"의 꽃이  
그 꽃이 아니었던 말이야?

**9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네" 등의 가사에 공연윤리위원회  
가 탄지를 걸기 시작. 화가 난  
서태지는 수정이고 뭐고 아예 가사를  
전부 들어내 연주곡으로 발표.

**10 1997년**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다"라는 가사 때문에  
불교방송에서 금지곡이 됐다. 단순히  
남자 문제로 도피성 출가를 결심하는  
가사 속 비구니의 불심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

**11 2008년**  
**비의 'Rainism'**  
가사 속 '매직 스틱'이 남성의 성기를  
뜻해서, 수만 장의 앨범이 팔리고나서

뒤늦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떨리는 네 몸 안에 들고 있는 나의  
Magic stick",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낀 Body shake..."  
이런 워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  
부라부라 클린 버전이 나왔지만, 그런  
이미 전 국민이 매직 스틱의 정체를  
눈치 챈 뒤였다지.

**12 2013년**  
**UV의 '설마  
아닐 거야'**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말아요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마 자지 말아요",  
"너를 보지 나를 보지 매일 보지 너와  
나는 잠을 자지" 등의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이 듣는 이에게 묘한  
상상을 불러 일으킨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됐다. 설마 아닐 거야.



절대 포기란 없다!  
빼앗긴 챔피언 벨트를 향한  
나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계 전 라이트급 챔피언  
**벤슨 헨더슨**

헨더슨 VS 톰슨

**UFC**<sup>®</sup>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1월 26일 (일) 오전 9시 30분**

**SUPER  
ACTION**



1 그나마 준다면 선물은 준건가? 1호 2번 차가

2 경품이 고작 커피 한 잔이라서 쉰난 걸까?

## X망 이벤트

분명 처음 이걸 기획했을 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며  
무릎을 탁 쳤겠지. BY 김희성



비외른 보리 대표가 직접 평양을 방문.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 1 X망 이벤트의 원조! 파맛 체크 사건

2004년 12월, 농심 켈로그는 초콜릿맛 '체기'와 파맛 '차기'가 체크 초코 왕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했다는 콘셉트로, 둘 중 더 많은 표를 얻는 쪽을 생산하겠다는 이벤트를 걸었다. 애초에 초콜릿맛 체크 '체기'를 홍보하려는 수단으로 만든 이 이벤트에서 파맛이 나는 '차기'는 약역으로 설정했다. 애들은 파를 싫어하니 당연히 초코맛 체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투표를 빙자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데 짜증이 난 네티즌들이 차기에게 몰표를 던지자고 제안했고, 네티즌들은 먹지도 않을 파맛 체크 '차기'에게 몰표를 던진다. 필리지도 않을 파맛 체크를 진짜로 만들어야 할 위기에 처한 켈로그는 정보 보안 업체까지 동원해 보안상의 허점을 뚫고 투표한 4만 2천표를 삭제했다. 훗날 이 일은 '파맛 체크 사건'으로 불리며 X망 마케팅의 전설이 된다.

### 2 자동차만 파맛 체크 사건

현대 자동차 마케팅은 2014년 제네시스를 홍보하기 위해 제네시스 4행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2013년 11월 1일, 페이스북에 제네시스로 4행시를 남기면 5명을 뽑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쏘겠다고 한 것. 이 때 예시로 든 4행시는 이렇다. '제우스의 바람기가 내게 온 듯/ 내 옆얼굴에 내가 반했다/ 시크하고 쿨하던 내 얼굴에/ 스리슬쩍 미소가 났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페이스북은 현대차의 결함을 지적하는 4행시가 넘쳐나기에 이르렀다. '제발 에어백이 잘 터진다 말해줘/ 내 바퀴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이지/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것처럼/ 스피드 좀 냐다고 죽고 싶지 않아', '제기랄 또 급발진인데 회사에서는/ 내 탓이오에 고갱님 억울하시면 4행/ 시나 여기다가 쓰시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마시던가' 등의 4행시가 올라왔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실타페 누수 관련 4행시는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 3 숙웃 회사의 패기

스웨덴 숙웃 브랜드 '비외른 보리'는 출시를 앞두고,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도시에 색시한 숙웃 450벌을 하늘에서 투하하겠다는 이벤트를 걸었다. 홈페이지에 세계 지도를 띄우고 네티즌들에게 투하를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라고 했더니 이놈의 네티즌들이 평양에 2만 7천 162표를 던져 평양이 압도적인 표차로 색시 숙웃 폭탄을 받을 장소로 선정됐다. 이 이벤트는 차마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숙웃만 파맛 체크 사건이 되는 게 싫었는데, 이게 웬일! 비외른 보리 대표가 직접 북한 비자를 발급 받아 평양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숙웃 450벌을 죄다 뿌리고 왔다. 애초의 공약대로 하늘에서 숙웃을 왕창 뿌리진 못했지만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 투숙하면서 객실 침대 위, 호텔 창틀, 호텔 로비 복도에 투척하고 호텔 창문에서 숙웃을 던지는 등 평양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방법으로 자사의 숙웃을 투척하고 왔다. 팬티 뿌리다가 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지 않은 게 다행.

#### 4 에이핑크 그룹명 공모 사진

에이핑크의 소속사 에이큐브는 '데뷔를 앞둔 새 여성 그룹 팀 이름을 여러분의 댓글로 직접 결정합니다'라며 신인 걸그룹 네이밍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채택된 팀명의 저작권은 에이큐브 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며, 가장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10명에게 멤버 전원의 친필 사인이 담긴 CD를 준다는 게 이벤트의 요지. 하지만 정작 댓글로 달린 건 <유머 일변지>를 방불케 했다. 네티즌들이 제안한 그룹명과 그 이유를 몇 개를 뽑아보자면 대략 이렇다. 걸레: 걸그룹계의 레전드/ LAST: 이게 마지막이라는 뜻/ 일간이: 자기팀 이름도 자기들끼리 못 지으니까/ 오토튠: 기계가 노래해 줄테니까/ 풀더: 점이라고/ 씨벌: 바다(sea) 속 진주(pearl) 같은 존재가 되라고/ 방귀: 가식없이 활동하라고/ 인테그랄: f(x)를 넘어서라고. 보다가 빠진 소속사에서는 댓글 따위 무시하고 처음에 임시로 지었던 '에이핑크'라는 이름으로 그냥 데뷔시켰다는 슬픈 사연.

#### 5 EBS 표지 투표 사진

MAXIM 편집부는 한 달에 한 번 대대적인 맨붕에 빠진다. 수백 장의 사진 중 단 한 장만을 표지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BS도 그랬나보다. 2011년 12월, 투표를 통해 수능특강 교재의 8개의 표지 디자인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시안을 채택하겠다고 한 것. 문제는 8개의 시안 중 4번에 건담과 울티머스 프라임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은 표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건담후, 트랜스 포머 매니아들이 몰려들어 시안 4에 투표를 하기 시작했고, EBS의 표지 투표 이벤트는 매우 흥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EBS는 '선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참여가 확인되어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 조기 마감 되었습니다'라는 공지를 내걸고 시작 63시간 만에 투표를 끝내버렸다. 이에 EBS 게시판은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면 투표는 왜 한 거냐', '바쁜 학생들 데려다 장난한거냐'며 게시판에 항의글을 남겼다. 아, 우리도 표지 투표 이벤트나 해볼까?

#### 6 도미노 피자 미남 직원 투표 사진

일본 도미노 피자에서는 '미남 도미노 25 콘테스트'를 열었다. 25명의 도미노 피자 직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직원을 광고 모델로 쓰겠다는 건데, 실제 직원이라는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 훈남 직원들 사이에 피자를 많이 줄 것같은 후덕한 인상의 직원을 한 명 끼워넣기 했다. 기호 15번의 이 남자 직원은 '매일 좋아하는 피자에 둘러쌓여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휴일에는 차를 몰고 운전해 간다. 같이 갈 여성분을 대모집한다'는 자기소개를 올렸고, 네티즌들은 '피자를 많이 줄 것 같다', '분명 좋은 녀석임이 분명하다', '이 친근감이 뭐지' 등의 이유로 그에게 투표를 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그가 1위를 하는가 싶었지만 하루밤 사이에 기호 11번의 득표수가 급상승해 15번을 앞지르게 됐다. 뭐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잖아?



15번 남자



11번 남자

#### 평양 속옷 투척 사건

평양에 간 비외른 보리 대표의 속옷 투척기



평양에 뿌려지기에 조금 튀는 색깔의 핑크색 팬츠



호텔 바닥에 투척한 팬츠. 청소 아줌마가 다 주워간 건 아니겠지?



호텔 창틀에 올려놓기 산공까지!

#### 4 혹시 이중에 국정원에서 단 댓글도 있는 거 아냐?



#### 5 결국 채택된 표지(좌)와 문제의 시안4번 표지(우)



#### 6 25명의 후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No.15



### 前 프로게이머 홍진호

2등의 대명사 홍진호는 tvN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에서 꿈같은 '공식 1등'을 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가를 축축이 적셨다. BY 김소윤



원래는 24시간 남는데, 당신의 경우는 특별히 22시간밖에 안 남았다.

왜 두 시간을 빼는 건가? 당황스럽군. 난 해외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난 가족과 동료들을 만나겠다.

**의외다. 게임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프로게이머라지만 죽기 전까지 게임을 하는 건 좀 아니잖아 하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스타크래프트'를 하겠다. 스타는 어차피 혼자 할 수 없으니 결승에서 붙었던 임요환이나 서지훈을 불러서 같이 해야지. 아쉽게 준우승한 경기들이 자꾸 생각나서 눈이 안 감겨.

**저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두 명을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내가 아직 철이 없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다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다. 정치 색? 그건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랑 많이 닮아서...

**죽고 나면 사람들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무래도 내가 숫자 '2'의 대명사다보니 나 다음으로 '2'를 대표할 후발 주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누군가 당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낸다면 꼭 빼고 싶은 부분이 있나?

임요환 선수에게 같은 전략으로 3연패 한 '삼연병'이나, 큰 대회에서 우승을 놓치고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부끄럽다. 그렇다고 지우고 싶지는 않다. 어지간한 흑역사는 이미 다 파헤쳐져 재조명됐으니, 숨겨봐야 별 의미도 없을 거다.

**\*삼연병: 2004년 '에버 스타리그'에서 임요환이 홍진호를 상대로 세 번 연속 '빙커랭크(테란의 건물인 빙커를 이용한 공격)'를 성공해 22분 만에 3:0으로 완승한 사건.**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알기론 더 굉장한 흑역사가 있는데?**

아... 팬 미팅 때 춘 공연스 내가 봐도 진짜 찌따같이 추더라. 그 춤을 춘 지가 벌써 10년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회자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멋있게 출걸!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진 모르겠지만 하얀 반응은 좋았지. 그 모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로 아쉬워할 수도 없고... 이게 참 딜레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땐 왜 굳이 <공맹스를 추자>라는 앨범까지 낸 건가?

모바일 게임을 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제안한 거다. 재밌게 불러서 나중에 OST로 쓰거나 하자기에 생각 없이 했지. 정말 나를 잘 모르고 한 건데... 그걸 본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직접 말하고 싶다.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한국에 갈 때 가져가고 싶은 게 있나?** 마우스랑 스마트폰. 근데 가져가면 쓸 수 있나?

**한국이 군대는 아니잖은가. 그럼 반대로 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꼽자면?**

tvN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에 나가 드디어 공식 리그에서 첫 1승을 기록했다. 게임을 은퇴하면서 공식적으로 우승을 하지 못하고 그만둔 게 많이 아쉬웠는데 그 한이 풀렸지. 남들은 예능이라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사실 난 속으로 '다 죽었어' 라고 생각했다.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1등을 한순간 더 벅했다.

시즌 2에 함께 출연하는 임요환이 "홍진호를 준우승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나?

임요환 씨는 아마 그 멘트 아니면 칠 게 없었을 거다. 살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거다. 가만 보면 요환이 형은 자기 목숨 부지할 능력도 없다. 본인 걱정이나 하는 게 나을 겠?

**두 번 씩이나 우승하기는 힘들겠지?**

이번 시즌2 결승전 방송일이 2014년 2월 22일이라던데, 아주 느낌이 좋다. 이 때문에 항간에는 '홍진호 결승 확정'이라는 말도 돈다고 하더라.

**22일에 두 번째 우승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렵게도 이제 곧 떠나야 한다. 묘비를 특별하게 꾸민다면?**

2라는 색깔은 죽어서도 가져가고 싶다. 묘비 자체를 숫자 2 모양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묘비명으로는 "2의 대명사, 홍진호 갑니다"라고 적어놓고.

**마지막으로 물겠다. 홍진호에게 '숫자 2'란?**

2가 곧 나요, 내가 곧 2이니... 🍻



Happy New Year

새해가 밝아오니, 새해 **행운** 가득이 밝으세요!

행운이랑잉잉~



2014년 갑오년 (甲午年), 말과 같은 정력으로 부르르닷컴!



[www.bururu.com](http://www.bururu.com)

MX06-07D9-EC6B-1964

부르르닷컴 접속 후, 왼쪽의 쿠폰번호 16자리를 등록하시면,  
어른들만을 위한 **어덜트 토이 20%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 일부 상품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urur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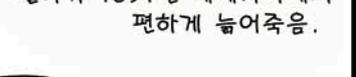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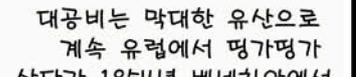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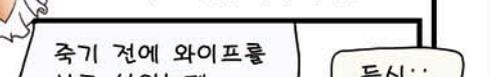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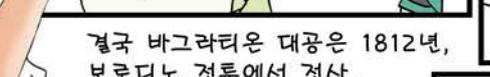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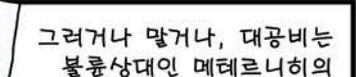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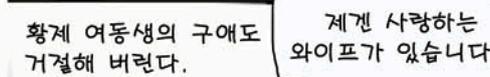
어른들만을 위한 명랑완구 전문점 부르르닷컴 | 부르르 고객센터 1661-7725

m.bururu.com

### 麥心

### 바그라티온 대공비

BY 굽시니스트



부장님의 마음을 들었다 뵈었다!  
당신만 경험하지 못한 NO.1 문화회식, 뮤지컬 그리스!

대한민국 No.1의 가치를 경험하라!

부장님도 설레고, 신입사원도 기다리는 유쾌한 회식!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오랫동안 기억 될 색다른 송년회!

No.1 뮤지컬 그리스가 만들어드립니다.

| 기업 및 신년 단체관람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단 한순간이라도 지루하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Now Playing!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 오픈리뷰 1588-5212 [www.openreview.co.kr](http://www.openreview.co.kr)

제작 |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 주권 | 오픈리뷰(주)



# How To

## Office Life Tip

### #12. 컨펌 잘 받는 법



이제라도 이걸 알았으니 2014년엔  
아근 좀 덜하는 한 해가 되길...

우리 존재 화이팅!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TOP4 김수아

아근시키고  
싫은 여직원  
(컨펌 따위  
개나 줘)





### ① 컨펌은 받는 게 아니라 이끌어 내는 것

'컨펌'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컨펌을 '받다', 컨펌해 '주세요' 같은 수동적인 뉘앙스의 서술어가 따라 붙는다. 정말 인간의 사고 체계는 언어의 프레임에 지배당한다는 학설이 사실인 건지 컨펌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념도 대체로 수동적이다. 컨펌은 상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상사의 리셉에 왜요? 싫은데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컨펌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상사가 오케이 사인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당신이 모든 상황을 세팅해 놓는 거다. 컨펌은 당신의 상사가 하지만 사실은 순탄한 통과를 위해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해야 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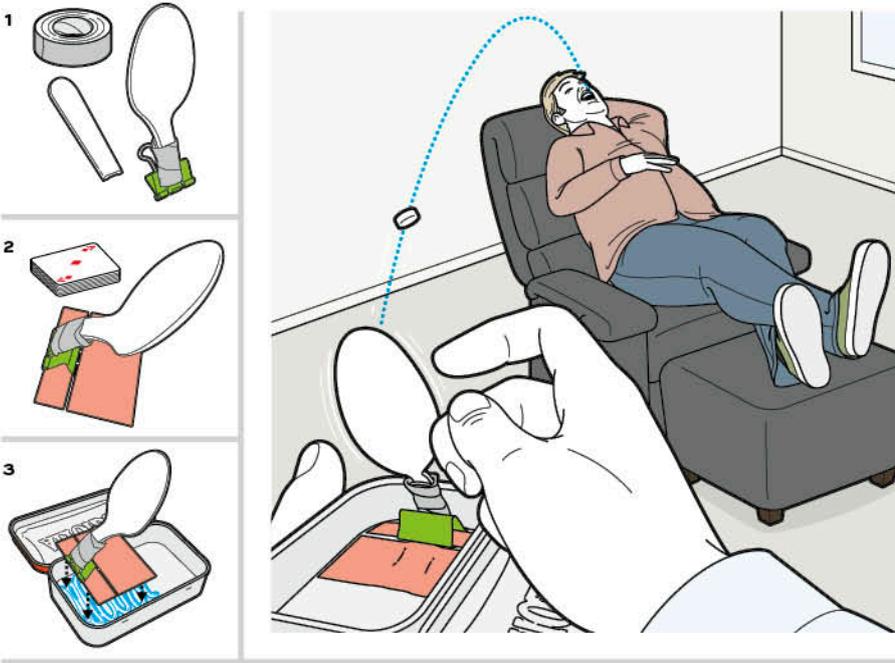
### ② 상사의 취향을 연구하라

그러려면 일단 상사의 취향을 파악해야 한다. 아마 지금까지 당신은 상사에게 결과물을 제출한 순간, 이전 내 손을 떠난 일이라며 컨펌이 떨어지기만을 잠자코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 컨펌은 '끌어내는' 것이다. 상사가 과정을 중시하는지 결과를 중시하는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걸 선호하는지, 구두 보고를 곁들였을 때 더 좋아하는지, 오전과 오후 중 어느 때 주로 결정을 내리는 편인지 등의 취향을 일단 파악하라. 10명의 상사가 있으면 10개의 취향이 존재하는 법. 모두에게 똑같은 화법과 자세, 방식으로 컨펌을 요청하면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게임도 공략법을 알고 해야 빨리 깨는 것처럼.

### ③ 조직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라

며칠 밤의 산고 끝에 탄생한 자식 같은 기획안이 팀장에게 까였다... 이 신통방통하고 완벽한 기획안이 왜 까였는지 도무지 모르겠지? 기획안이 너무 훌륭했던 나머지 당신에게 위기 의식을 느낀 팀장이 괜히 퇴짜를 놓은 것만 같을 거다. 열심히 준비했을수록 까였을 때의 반감은 더욱 강하게 든다. 자신이 '열심히' 한 것을 '잘'한 것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일수록 이런 착각이 심하다. 심지어 착각이 지나친 나머지 '전무님이 내 기획안을 보면 무릎을 탁 치며 좋아할텐데, 팀장 저 자식이 날 경계하는군. 이걸 그대로 전무님께 올려야겠어!' 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망상은 집어치우고 당신이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공감했는지를 다시 한 번 곰씹어 보라. 발상이 아무리 참신하고 좋아도 회사가 지향하는 바와 컨셉이 다르다면 회사에서는 당신의 기획안을 채택하지 않는다. <컨펌을 끌어내는 기술>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조직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물을 내놓든 컨펌의 안전범위 안에 들 수 있다." 중요한 건 언제나 기본이다. 막연하다고?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요즘 경영진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관찰해 보라. 의외로 쉽게 알 수 있다. 회사는 항상 당신의 귀에 띄지가 않도록 떠돌고 있다. 당신이 듣지 않았거나, 무관심했을 뿐이다. 기획서든 보고서든 작성할 때, 사장님 훈시 때 들었던 회사 철학을 한 가지 끌어다 붙여 보라. "위 내용은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OO 정책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는 XX 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팀장이 당신의 기획안에 대해 일언반구도 못할걸? 📌

# How To Candy Gun



## 민트 투석기 만들기

입에서 썩은내를 풍기는 나쁜 녀석들을 처치하기 위한 특별한 무기 제조법.

### 준비물:

- 플라스틱 숟가락 1개
- 민트 사탕 통 1개(알토이즈와 유사한 양철통이면 오케이!!)
- 접착테이프
- 사무용 집게 1개(크기 32mm)
- 트럼프 카드 1장
- 가위
- 글루건

**1** 플라스틱 숟가락의 손잡이를 짧게 잘라내고 사무용 집게 손잡이 한쪽에 테이프로 붙인다. 투석기 완성!

**2** 투석기를 통 안에 세우려면 연결 부위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카드 한 장을 통 사이즈에 꼭 맞게 자른다. 그다음 카드의 한쪽 면에서 집게 깊이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카드를 나눠 자른다.

그리고 카드의 짧은 부분을 2번 그림과 같이 집게 안쪽에 붙이고, 긴 부분은 집게 손잡이 부분에 붙인다.

**3** 글루건으로 사탕 통 바닥에 실리콘 접착제를 바른 뒤, 투석기를 세워 붙이면 끝! 접착제가 마르면 교약한 냄새가 나는 친구의 입속에 상쾌한 민트를 발사하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임마!

### 미행을 따돌리는 법

검은 그림자가 느껴질 때...

>> 변칙적으로 행동하면서 미행 여부를 확인하라. 갑자기 멈춰 서거나 가로수를 구경하면서 불규칙적으로 걸음을 멈추는 거다. 수상한 미행자도 같이 멈추면 미행이 불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 미행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라. 건물 유리에 비춰 보거나, 길을 찾는 척하면서 뒤를 돌아 미행자의 연령대, 키, 헤어스타일 등을 확인하라. 너무 어색하게 행동하면 미행이 발각될 걸 알아챌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 미행이 붙으면 절대 집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근처로 향하라. 직접

따돌리고 싶다면 백화점이나 마트 등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들어가 화재경보기를 찾아서 비상벨을 울린다. 대혼란이 일어나면 입고 있던 걸음을 벗고 대피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건물을 빠져나가면 된다.

자네, নিজ 스물에 입학하지 않겠나?



## 개한테 물려 죽지 않는 법

애견 트레이너이자 <It's Me or the Dog>의 저자인 빅토리아 스틸웰이 개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깜짝 방문은 피하라

개한테 물려 죽는 사고의 대부분은 개 주인의 사유지에서 발생했다. 낯선 당신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개는 자신의 구역과 주인을 지키기 위해 경계 태세를 취할 거다.

### 계속 다가가지 마라

개가 당신을 보고 뒷걸음질치며 찾아댄다면, 자기가 겁먹은 상태라고 경고하는 거다. 여기서 더 다가가면 위험하다. 그렇다고 갑자기 등을 돌려 도망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이 도망가면 개는 갑자기 자신감이 충만해져 당신 뒤를 쫓으려 한다.

### 그대로 멈춰라

개가 당신에게 달려들 때는 움직이지 말고, 개를 쳐다보지도, 병신처럼 개에게 말을 하지도 마라. 그래도 계속해서 달려오면 손으로 목을 감싸 보호하며 땅에 몸을 공처럼 밀어 수그러다.

### 포기할 건 포기하라

가방을 메고 있다면 열린 벗어서 방패로 삼아라.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당신 목숨보다는 싸겠지!

### 까공 놀이를 하라

개가 당신을 물어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면 입고 있던 코트로 개의 눈을 덮어 가려라. 그럼 갑자기 시동이 꺼진 듯 조용해질 거다. 개는 시각이 차단되면 갑자기 혼란에 빠지고 흥분을 가라앉힌다.

우리 개새끼가 달라졌어요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 0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커집니다.
- 0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 0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 [www.medoctor.co.kr](http://www.medoctor.co.kr) / 02-3445-4514



개 맛 베이컨?  
베이컨 맛 개?

### ☞ 그거 알아? 베이컨은...



·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돼지 삼겹살을 가열  
보관하는 방법에서 비롯됐다.

· 43%의 사람들이 "색스보다  
베이컨을 택하겠다"고 했고,  
23% 남자가 베이컨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꼽았으며,  
23%가 "내 애인은 나보다 베이컨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출처: Maple Leafs Foods)

·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덴마크다.

· 돼지 무게 중 베이컨을 만들 수  
있는 부위는 약 11%다.

· 한국 산업규격(KS)에 따르면  
베이컨은 수분이 60%, 지방이 4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베이컨을 엮어 만든 초고열량식 부리또

토르티야에 콩과 고기 등을 얹어 먹는 멕시코 요리 부리또, 푸짐한 것 같아도 먹고 나면 늘 뭔가 허전했다. 그래서 베이컨과 달걀만으로 그 아쉬움을 싹 날려줄 슈퍼 부리또를 만들어 봤다. 아이큐 두 자릿수 이상이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

### 준비물

- 베이컨 12장
- 달걀 4개
- 소시지 1개
- 피자 치즈 1컵
- 후춧가루 약간

- 1 베이컨 6장을 세로로 나란히 배치해 사각형으로 만든다. 나머지 베이컨은 세로로 둔 베이컨 사이에 한 장씩 끼워 넣는다. 그렇게 벌집 모양으로 엮으면 된다. 잘하네!
- 2 190°C로 예열한 오븐에 엮어둔 베이컨을 넣고 10분간 노릇하게 익힌다.
- 3 베이컨이 익어가는 동안, 달걀을 풀어 스크램블드에그를 만든다. 달걀물에 피자 치즈와 후춧가루를 첨가하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단, 베이컨 자체가 짭짤하므로 어지간하면 소금은 치지 말자.

- 4 완성된 스크램블드에그에 각종 썬 소시지를 투척하고 같이 볶는다. 굳이 소시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먹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다. 맛은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겐 베이컨 각하가 있으니까.
- 5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을 오븐에서 꺼낸다. 똑똑 떨어지는 베이컨 기름이

아깝다고 빨아먹지 말고 키친타월로 실살 눌러 흡수시킨다. 문지르면 모양이 망가진다! 베이컨 위에 아까 만든 계란 잡탕 토핑을 올리고 베이컨을 반으로 접는다. 그 상태로 표면을 쿠킹 포일로 감싼다. 오븐에 다시 넣고 25분 정도 익힌다.

반 토막만 먹어도 하루 세끼 다 먹은 듯한 슈퍼 고열량 베이컨 부리또 완성! 🍴

하면 할수록  
터지는



상상이나 했니?



반전연애 보고서 연극

# 스캐들

대학로 A아트홀 2013년3월1일 - 2014년3월 22일 평일 5시8시/토 2시 4시 6시10분 8시10분/일 2시 4시 6시10분

제작·문의(주)악어컴퍼니 02-764-8760 / 예매 인터파크1544-1555

#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효린의 '너 밖에 몰라'가 이효리의 '텐미닛'이 될 수 없는 이유



씨스타, 씨스타19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그녀를 기대했건만...

BY 손안나



효린의 솔로 앨범 (LOVE&HATE)가 성공하자 사람들은 그녀를 '한국의 비온세'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까무잡잡한 피부, 탄탄한 허벅지를 차치하고 들어 보면 그녀의 보컬은 비온세랑은 거리가 있다. 비온세가 흑누나다운 소울풀한 보컬을 자랑한다면, 효린의 음색은 그보다 더 가느다랗고 간드러진다. 그녀의 보컬은 오히려 제이드 빌라론에 더 가깝다. 'Don't Push Me'나 'Life Is Cool'이라는 곡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사랑받은 스위트박스의 전 보컬이다. 빌라론과 효린 모두 파워풀한 디바의

폭발력보다는 여성스러움, 애절함을 섬세하게 표현하기에 참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이번 앨범의 몇몇 곡에는 효린의 그러한 장점이 잘 드러난다. 사랑을 믿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가사와 그에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보컬이 돋보이는 'Lonely', 애교 섞인 중저음과 세련된 비트가 중독성 있는 '마사지' 같은 곡이 바로 그 예다. 아쉬운 건 오히려 타이틀 곡 '너 밖에 몰라'다. 컴백 쇼 (효린's LOVE&HATE)에서 그녀는 "재는 지르는 거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극받았다고 말했다. 안타깝지만 앨범의 전곡을

다 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 타이틀 곡만으로 그녀의 '지르는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곡에서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여전히 씨스타 메인 보컬로서 효린이 전부기 때문이다. 이 곡을 씨스타의 다음 앨범 타이틀 곡으로 선보였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효리가 '텐미닛' 대신에 '내 남자친구에게'풍의 곡을 들고 솔로로 데뷔했다면, 지금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었을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효린이기에 더욱 아쉽다.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찾지 못한 것 같다. ☹

# 새해엔 가름한 얼굴로 거듭나라 2014!

얼굴 콤플렉스에서 탈출하는 남자 사람들의 자세!



멋진  
순정민화  
주인공 되기



## 이런 새 같은 경우가 다 있을까?!

박 씨는 며칠 전 압구정에 놀러 갔다가 낮이 많이 익은 사람을 발견했다. 비율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그 남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남자 연예인이었다. 자기 자신이 여자였다면 오빠~하고 당장 덮쳤을 정도로 외모가 장난 아니었던 그 남자 연예인.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은 순식간에 구름떼처럼 그 남자 연예인에게 몰려들었다. TV에서 봤을 때도 얼굴이 정말 작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새대가리만 큼이나 작았다.

## 달려라 달려 로봇트야!

잘생긴 남자 연예인을 실제로 본 후 박 씨의 안구는 잠시 정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쇼팽하러 간 가로수길 매장에서 박 씨의 안구는 다시 오염됐다. 그 이유인 즉, 피팅룸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형편없는 얼굴을 본 것이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 순간이다. 평소 박씨는 V라인이 아닌, 로봇트 태권V 처럼 각진 얼굴과 푹 튀어나온 광대뼈, 맨 뒤에서 사진을 찍어도 원근법을 무시하는 큰 머리 때문에 언제나 자신감이 발밑에 있었던 터라 실망감은 더 컸다. 주변 친구들이 박 씨의 얼굴을 보고 남자다운 인상이다, 튀어나온 광대뼈는 정력을 상징한다고 위로하지만 그 때마

다 되묻고 싶다. 네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게 말할래?! 위로는 잠깐일뿐, 근본적인 고민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땅에 박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모든 남성들에게 희망은 있을까? 박 씨도 아이들 못지 않은 작고 가름한 얼굴의 멋진 남자가 될 수는 없는 걸까?

단언컨대, 미남과 추남을 결정짓는 건 눈, 코, 입이 아니다. 미남의 조건은 눈, 코, 입의 바탕이 되는 얼굴형일 확률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얼굴형을 가질 수 있을까? 얼굴형을 다듬는 안면 윤곽 수술만 받아도 눈, 코, 입이 살아나는 효과와 동시에 작고 가름한 얼굴을 기대할 수 있다. 요즘 남자 연예인들도 안면 윤곽 수술을 많이 받는 추세다 보니 일반 남성들의 수술 사례도 늘어나는 경향이다. 양악 수술이 주걱턱, 돌출형 입 등의 주로 치아 부분에 발생하는 불변을 해결해주는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안면 윤곽 수술은 얼굴형을 더 좋고 예쁘게 개선해 주는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 양악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2014년 새해, 만화 속 잘생긴 주인공처럼 작고 가름한 얼굴로 거듭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병원과 전문의를 만나 Try해보자!



### 도움말 주신 분

김성식 원장  
(현 JK성형외과 안면윤곽 전문의)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 대학원 의학과 졸업(성형외과 전공)
-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수료
- 성형외과 전문의

### before & after



## 얼굴형을 멋지게 재창조해 주실 우리의 형 JK성형외과 김성식 원장에게 물어보세요!

Q. 안면 윤곽 수술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가장 효과가 클까요?

A. 광대나 턱이 발달해서 얼굴에 각이 저 보이거나 양쪽 비대칭이 있는 경우, 턱이 너무 길거나 짧은 분들의 효과가 큼니다. 골격이 크고 얼굴 살이 적다면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쁘지 않은 얼굴형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수술 후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수술을 받아보세요. 로봇트에서 멋진 남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안면 윤곽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안면 윤곽 수술의 경험이 높은 전문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의사를 선택하셔야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JK성형외과는

16년간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진행하는 전문 팀과 전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JK성형외과입니다.

Q.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안면 윤곽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신경선의 높이, 뼈의 두께, 뼈의 형태와 수술 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JK성형외과에서는 수술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면 방문하시기 전에 문자로 정확한 일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사는 환담으로 거듭나는 초석이니 꼼꼼하게 받으세요.

# 예수와 붓다의 현세 적응기 세인트☆영맨

 누군가 말했다. “신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고 <세인트 영맨>의 작가는 이 말에 제대로 꽃힌 모양이다. 예수와 붓다를 하숙집 백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신성 모독? 웃기지 마. 이건 진정 신(神)급 유머의 결정체다. BY 조용재

가시관의  
장미가  
만개했네!!



## 세인트☆영맨

장르 코믹  
작가 히카루 나카무라  
출판사 학산문화사  
연재 상태 9권(발행 중)



훔친  
목탁을  
두들기며.

무서운 건  
청구서야.

### 역대 없던 최강의 캐릭터 '신'

그동안 어처구니없는 '신'급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만화는 많았다. 태어나마자 어머니에게 "나를 키워라!"라며 텔레파시를 전한 <바키>의 한마 유지로, 손가락으로 혈을 찔러 내장을 파괴하는 <북두의 권>의 켄시로처럼 가공할 만한 힘을 자랑하는 캐릭터를 말이다. 하물며 돌리도 손가락만 휘두르면 초능력으로 집 한 채쯤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었으니, 알고 보면 이 바닥에 우리가 '신'이라 부를 만한 캐릭터들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세계적 인종, 기독교와 불교의 두 성지를 대놓고 주인공으로 내세운 강 좋은 만화가 있었으니, 이름하야 <세인트 영맨>(Men이라서 '멘'이라 표기) 되겠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젊은 성인(聖人)'. 원판 제목은 더 심하다. <세인트 오나상>, '성인 형님' 이라니. 참고로 만화 속에서도 이 제목 드립이 나온다. 놀이공원에서 "성인(聖人) 두 명이요"라고 하며 티켓을 끊는다든가..

세기말 뒤, 천계에서 하계로 휴가차 내려온 예수와 붓다가 일본의 한 하숙집에서 동거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소소히 담아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극히 평범한 일상을 그린 이 만화는 전혀 평범하지 않다. 세계 최고의 비범인(非凡人) 둘을 모셔 놓고 평범한 설을 풀어 봤자다. 임재범과 박정현을 어린이 동요 대회에 데려다 놓고 '풍당풍당'을 부르게 한 거랑 뭐가 달라(근데 어머니들이 눈물을 쏟아. 막 쏟아.)

### 붓다와 예수, 새로운 타입의 듀오

<상남 2인조>나 <오늘부터 우리는>의 주인공 듀오는 비슷해 보여도 각자 뚜렷한 캐릭터가 있다. 이 듀오는 이후 수많은 학원물에 영향을 주며 '주인공 2인조는 만담 개그를 치는 멍청이들이지만,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천하무적'이라는 임묵의 룰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역대 가장 위대한 <세인트 영맨>의 성스러운 듀오가 유행 낡자한 분위기를 낼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이들은 일본의 전형적인 2인조 개그인 '만담 개그'에서 캐릭터를 빌려 왔다. 만담 듀오는 각각 멍청한 행동이나 말투로 개그를 치는 역할 보케(ボケ)와 거기에 탄죽을 걸고 잔소리를 하는 츠코미(ツッコミ)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공수래공수거'라는 불교적 교훈에 충실한 붓다는 쓸데없는 낭비를 용납이 않는다. PS4나 닌텐도 DS를 충동구매하려는 예수에게 불경을 외듯 잔소리를 해 낸다. 뻑치면 열반에 이르며 머리에서 대책 없이 후광이 뿜어져 나오는데, 예수가 섹드립을 날리면 잠잠해진다. 진정한 성인(性人)이랄까?

반면 예수는 순수하고 출썩거리다. 어디서 조니 뎀 달았다는 칭찬을 들은 이후로 코스프레 샵에서 잭 스페로우 코스프레에 집착한다.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몰라서 "산타클로스가 순록을 몰고 비행에 성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쯤으로 알고 있다. 붓다는 이 때문에 매년 이브마다 짹짹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 누가 이들을 신(神)이라 할 수 있겠는가. 신에 빙의한 광신도라든 모를까.

### 고중에 입학한 탁월한 개드립

캐릭터가 워낙 강해서 웃긴 것도 있으나, 작품의 근본적인 재미는 철저히 성서에 입각한 드립에서 뿜어져 나온다. 작가가 다신교일 리가 만무하나, 두 성인의 수많은 일화를 현세에 적용해 풀어내는 재주가 좋다. 사전조사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인 듯하다. 설화에 따르면 붓다는 태어날 때부터 동물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노아의 방주로 세상의 동물을 구제했다는 일화가 나온다. 세상 만물과 대화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만큼, 작품에서도 두 주인공은 필요 이상으로 동물과 자주 교감한다. 코브라가 비 오는 날 빨래를 대신 걸어 주고, 술에 취한 붓다가 사슴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 중 백미는 역시 동물들의 눈물겨운 자기화생이다. 크리스마스에는 칠면조가 발발 떨어 생상을 문 채 찾아오고, 붓다가 심한 감기에 걸리면 죽을 끓이려고 끓여 둔 물에 자라가 투신을 시도한다.

난무하는 종교 드립 중에서도 특히 마감 중인 에디터가 배를 잡고 구르게 한 대목은 사우나에서 만난 야쿠자와의 대화다. 야쿠자가 "형씨 나와바리는 어디였어?"라고 묻자 "골고다였죠"라고 대답하는 예수. 야쿠자가 아우의 배신으로 감방에서 7년을 색은 사연을 얘기하자 예수는 "아, 저랑 같은 처지였군요. 뭐 그래도 전 아버지의 뜻으로 사흘 만에 부활했죠"라는 부활절 드립을 친다. 멍청한 야쿠지는 이를 '조직의 일인자인 아버지의 뜻으로 3일 만에 출소했다'라고 이해하고, 이후 예수를 형님처럼 따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작가는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친숙한 내용과 현세가 뒤죽박죽된 상황을 실 새 없이 보여주며 깨알 같은 재미를 선사한다.

### 신성 모독과 일상을 사이의 줄타기

그간 예수와 붓다가 등장하는 만화라 해봐야 여러 보수적인 종교 단체에서 만든 지루한 학습 만화들 뿐이었다. 물론 '신'은 잘못 다했지만 크게 분쟁거리가 되어 욕을 공양미 삼백석 만큼 처벌을 소재다. 종교 이야기를 유머의 소재로 아슬아슬하게 이끌어 나가는 작가의 능력이 꾸준한 연재를 가능케 한 것이다.

물론 종교적인 색채나 교훈적인 내용을 강하게 넣었다면 '두 종교 단체의 화합을 장려하고 청소년의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달의 우수 서적으로 선정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책은 <만화로 보는 명작 동화>와 함께 어린이 추천 도서 코너에 올라가 먼지만 쌓이고 있을 테지.

<세인트 영맨>을 출시한 학산문화사는 아마 출판 전에 꽤 고민했을 거다. 종교 단체들이 문화 산업 전반에 끼치는 입김이 유독 강한 우리나라에서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세인트 영맨>은 1, 2권이 동시 발매되자마자 초판 발행본 전부가 완판되었고, 이후 출시된 시리즈는 '초판 완판! 중세 확장!'이라는 문구를 광고처럼 달고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논란거리를 날지 않는 '절대자' 캐릭터의 무난함과 작가의 워트가 대중들의 호감을 강하게 끌어낸 결과다.

### 신은 늘 우리 곁에

우리 할머니가 두 손 모아 애타게 찾는 예수가 지금 오락실 옆 칸에서 월계관을 쓰고 <버추어 파이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수만 수억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금욕의 아이콘' 부처가 게임 센터에서 닌텐도 DS 타이틀을 지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속세의 인간들과 몸을 부대끼며 PC로 블로그를 하고, 최신 게임기에 열광하는, 너무도 자기감정에 충실한 신이다.

신앙심이 투철한 누군가가 <세인트 영맨>을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한다 해도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 세상에 만약 신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이런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

## 우리 그분이 이렇게 멋질 리 없어!

이왕 믿는 거 잘 생기면 좋잖아?



###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부제 - 붉은 사막이여! 아름답게**  
<아름>, <밀림의 왕자 레오>로 유명한 일본 만화의 거장 데즈카 오사무의 명작, <붓다>를 리메이크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원작의 그림체는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주연을 방불케 하는 꽃미남으로 재탄생시킨 붓다 덕에 여성 관객... 아니, 신도들을 뻑뻑 끌어모을 예정이다. <세인트 영맨>의 붓다도 극찬한 작품.



### 어벤저린&글로리

#### 가디세이 편

타릭천사 어벤저린과 지하세계의 섹시한 여전사 글로리가 함께 등장하는 섹시 액션물 <가디세이(Godyssey)>. 작품 초반에 십자가에 못박힌 근육질 예수가 제우스의 신성 모독에 분노해 그와 격투를 벌이는 이야기. 헤라클레스, 아폴론 등의 시디바리들을 한 방에 잠재우는 예수의 숨씨가 일품이다.



양아치  
연기류 甲



## 임창정의 못난 남자 '창수'



이 남자의 허세와 짜질함이 입지 않은 이유는 뭘까?

BY 손안나



임창정 주연의 영화 <창수>가 가까스로 배급사를 찾아 촬영을 끝낸 지 2년 만에 개봉했다. 영화는 창수라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파국을 그리고 있다. 창수는 못난 남자다. 그는 누가 봐도 삼류다. 건달도 못 되는 동네 양아치. 내일이 없는 징역살이 대행업자. 이미 놓아버린 인생. 심심은 착하다. 그래서 더 못났다. 창수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못남을 감추기 위해 언제나 한껏 과장된 허세로 자신을 포장한다. 현란한 꽃무늬 남방, 허리까지 끌어올린 배바지, 건들건들한 팔자걸음, 시종일관 앞머리를 넘기는 고갯짓으로 말이다. 주먹은 못 쓰지만 입은 또 얼마나 거친지

욕설이 하도 많아 크게 잔인한 장면이 없는데도 이 영화, 19금 판정을 받았다.

영화를 본 많은 이가 "임창정 표 <파이란>", "자고로 이런 역할은 임창정이 제맛"이라며 그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다. 임창정은 '허세와 갑이 넘치는 양아 연기'에 특화된 배우다. 그 시작은 <비트>의 환규였다. 환규는 친구에게 얻어터져 코피를 흘리면서도 그게 다 얼마 전 17 대 1로 싸우다가 허리를 좀 삐끗한 탓이라고 말하는 녀석이다. <불량남녀>의 극현도 인상적이었다. 여자와 전화 통화를 끝내고 스스로에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리니까 여자들이 뺨이 가지."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은 임창정의 '양아치 메소드(!) 연기' 중 거의 역대급이다.

이번 영화의 창수는 기존에 임창정이 소화한 배역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는 동네 후배에게 늘 "이노무시카"라고 욕박지르며 형인체 하고, 가진 건 쥐짤도 없으면서 후배의 결혼 소식에 "내가 집 한 채 해줄게"라고 큰소리를 뽕뽕 친다. 그말에 피식 웃는 후배처럼, 우리 역시 그런 그의 허세가 싫거나 밉지 않다. 사실 우리의 연약한 내면은 오직 성공만을 좇는 영화 속 비정한 인물이나 악에 받친 집요한 형사, 잔혹한 사이코패스보다, 이 험한 세상에서 굴하고 아무지게 살고 싶지만 늘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창수에 더 가깝다.

누구나 마음속에 못난 창수 한 명씩은 있다. 말도 안 되는 가요, 통 자존심... 내가 굶어도 내 동생은 챙겨야 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집에 걸어가지만, 동생한테는 택시비를 쥐여 주어야 한다. 보성이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남자고, 그게 의리니까.

비극적인 건,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그런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다. 하지만 <창수>의 미연(손은서)은 달랐다. 그녀는 창수의 허세를 보고 "한심하다"가 아니라 "참, 착하다"고 말해준 여자다. 만난 지 고작 며칠도 안 된 여자를 위해 창수가 목숨을 내던지는 것도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미연을 향한 피 끓듯 뜨거운 사랑 때문이 아니다. 허세로 치열하게 감추며 치장해온 자신의 삶의 방식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여자가 바로 그녀이기 때문이다.

그런 미연을 위해서, 영화 중반 창수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죽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조직폭력배들에게서 도망가지 않고 맞설 결심을 한 것이다. 매번 뒤로 물러서 있던 그가 머리털 나고 처음 내본 용기다. 그리고 나서 창수는 어설픈게 그들에게 덤벼다가 딱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고, 살인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만다.

우리는 임창정의 영화에서 원빈의 <아저씨> 같은 복수 판타지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에서 기대하는 정서는 공감이다. 그리고 그 공감은 '나' 같은, 아니 '나'보다도 못한 주인공, 내 마음속에 있는 못난 창수가 그답지 않은 용기를 내는 결정적 순간에 극대화된다. 임창정의 연기는 그렇게 현실의 남자에게 위화감이 아닌 위안과 용기를 준다. <1번가의 기적>에서 '필제'가 용역업체 동료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던 그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 야구 심판 '범수'가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고소영의 이름을 외치던 그 순간이 그랬듯이 말이다.

몽글한 감동도, 통쾌한 액션도 멋진 남자 주인공이나 탄탄한 내러티브도 없는 이 영화를 비난하고 싶지 않다. 못났지만 어쩐지 내 이야기 같은, 이 남자의 인생을 엿볼 수 있게 해준 배우 임창정에게 고마울 뿐.



그가 그녀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MAXIM**  
KOREA

**THE SEXIEST SANTA ON EARTH**  
강예빈

**Smart Sex Guide**  
에디터 추천 크리스마스 모델 가이드  
여성 운동 뒤론드는 터치 가이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법률 가이드  
씨드 되는 섹스 토이 가이드

**Ultimate Lip Service**  
편의점 재료로 이태리 세프 명치는 빼내 만들기  
이름 아한 작업 라테일 3종  
인스턴트 블랙커피 1등부터 골동까지

2013.12.20.FRI  
**MAXIM x-mas Party**  
@ Club Syndrome

**Hip Hop Legend 이현도**

2013년 12월호  
정액 5,900원

**Rising Star**  
(응답하라 1994)  
**민도희**  
**Mika Newton**  
김태희가 발을 간다는  
우크라이나의 미녀 가수

**Christmas Stuff Special**  
**69**  
Best Gift of the Year

님 지금 재수 고민?  
점수 풀리는 담안 작성 비법  
MAXIM 수능 실공 제2장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30가지 개 황당한 것

2013  
**MISS MAXIM FINAL**  
이제 둘 남았다!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최대  
5만 원  
할인!**



48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ARBUS 손목 시계**

3개월	정가 17,700원	+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000원 할인 + 1,000원 적립	+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000원 할인 + 2,000원 적립	+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5,000원 할인 + 4,000원 적립	+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0,000원 할인 + 6,000원 적립	+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0,000원 할인 + 8,000원 적립	+	



※ 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 락=1 원)

※ 사은품은 한정 수량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원록  
QR 코드 스캔 후 확인하세요!

##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        |                   |
|--------|-------------------|
| 하나은행   | 569-910012-00904  |
| KB국민은행 | 185801-01-004866  |
| 농협     | 355-0006-4797-03  |
| 신한은행   | 100-026-074070    |
| 우리은행   | 1005-701-637646   |
| 기업은행   | 208-107032-04-013 |
| SC제일은행 | 117-20-225316     |
| 우체국    | 012559-02-079161  |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심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 Game

CHARACTER OF THE MONTH

## 기구한 악녀의 아이콘 사라 캐리건



'사기 캐릭터'라 욕하지 마라.  
알고 보면 엄청 불쌍한 여자야.

BY 조용재 ILLUSTRATION Laurel D. Austin

### ← 사라 캐리건

요즘엔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친다. '천하의 개쌍년' 캐릭터도 자주 등장한다. 교묘한 계략으로 시댁 식구를 피산시키거나 남편을 속여 회사를 통째로 먹고, 심하면 살인도 청부한다. 사라 캐리건은 자아비도, 시댁도 아닌, 전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우주 최고의 악녀다. 앞에서 언급한 악행은 여기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다. 오죽하면 자신을 "은하계의 생년 여왕(Queen Bitch of the Universe)"이라 하겠는가.

사연 없는 악녀가 어디 있겠느냐만, 캐리건의 운명은 사실 너무나도 가혹하다. 어린 시절, 타고 난 초능력으로,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직장에서 처음 사귀던 남친은 로맨스를 막 시스하러던 첩나 살해당하고... 이만한 집 레너처럼 질되나 싫다니면 결국 그녀는 자에게 납치당해 추수물을 찍고 민다. 지그의 지배자 '초월체'에 세뇌된 그녀는 공포의 파괴자가 되어 테란과 프로투스의 내로라하는 영웅들을, 마치 일요환이 흉신호 바르듯 줄줄이 쓰러뜨린다. 미친년이 된 캐리건을 보다 못한 구 남친 후보 레너는 그녀를 억압치,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내부에서 이를 뒷바라지해 여간 무리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고, 결국 캐리건은 다시 지그 행성으로 돌아가 더 무시무시한 존재로 거듭난다. 인생의 8할이 배신으로 물든 그녀의 기구한 운명이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모르겠다. 얼마 전 블리자드가 발표한 드린 매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톼>에 주연으로 등장한다고 한다. 기구한 사연은 잠시 잊고 여전히 존나 센 갑날 여왕의 힘 자랑이나 감상하자.

###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톼

게임계에 농구대잔치나 엘 클라시코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리프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같은 궁금중이 <어벤져스> 같은 영화로 이어지듯, 블리자드는 기어이 자사 게임의 모든 히어로가 총 출동하는 드림 매치를 재현했다.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의 영웅들이 대거 등장하니, 찢었던 블리자드 노예 시절을 추억하기에 이보다 좋은 떡밥이 있을까.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선방으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블리자드가 과연 이 올스타전으로 다시 정상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장르	AOS
플랫폼	PC(온라인)
개발사	블리자드
일정	테스터 모집 중

그녀가 돌아왔다!



Laurel D. Austin



## 사무실을 개판으로! 직장 스트레스 해소 모바일 게임

 작은 화면 속에서나마 당신의 억눌린 욕구를 자유롭게 폭발시켜 보자. BY 조웅재



### STEP 1 가벼운 장난

#### Paper Toss 2.0

제작사 Backflip Studios



가벼운 장난으로 답답한 사무실 분위기를 바꿔보자. <페이퍼 토스>는

손가락을 밀어올려 멀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쏙 던져 넣는 쾌감을 재현한 게임이다. 종이만 던질 수 있던 전작과 달리 바나나, 콜라 캔, 볼링공(?) 등 다양한 투척물이 준비되어 있다. 사장실, 창고, 사무실(잘 넣으면 여사원이 박수도 쳐준다!) 등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 백미는 역시 '인턴 모드'다. 쓰레기통을 들고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인턴의 모습이 예전 내 모습 같아 안쓰럽다. 하지만 보고 있는 나는 왠지 기분이 좋다. "김 인턴, 그렇게 해서 정사원 되겠어?"

### STEP 2 동료 괴롭히기

#### Office Jerk

제작사 Fluik



'이달의 사원'으로 뽑힌 알미운 동료가 등짝을 보이며 앉아 있다.

연필, 지우개, 스테이플러 등 각종 사무용품을 뒤통수에 직구로 꽂아주자. 좀 심심하다 싶으면 컵케이크, 파이 등 위에 살짝만 묻어도 딱치는 음식들을 던질 수도 있다. 잘못 던져 물건이 빛나기엔 동료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비웃는데, 이게 은근히 열받는다. 일단 뒤통수를 맞으면 짜증을 내며 동료가 돌아본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군에 지친 동료의 면상에 부드러운 컵케이크를 처발라주자. 2단 콤보! 유행 게임이 아닌지라 이마에 스테이플러 심이 박히지 않는 건 좀 아쉽다.

### STEP 3 상사 쥐어 패기

#### Beat Your Boss 2

제작사 Game Hive Corporation



동료나 인턴을 괴롭히는 것도 지겨워졌다면, 아예 상사를 쥐어패자.

지난 2013년 12월호에 소개한 '인체 상해 모바일 게임' 중 불쌍한 난자를 발기발기 찢어대는 <Stress Ninja>와 같은 맥락의 게임이다. 학교 선생, 직장 상사, 슝 매니저 등 혼내주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해 안경이 부러지고 피멍이 들 때까지 떡으로 만들 수 있다. 멀티터치를 지원하니 한 손가락으로 먹살을 쥐고 다른 한 손가락으로 주먹을 마구 날려주면 OK! "좀 살살 해!"라는 의미인지 상사 캐릭터가 필요 이상으로 귀엽다. 무시하고 "과장님 개새끼야, 넌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라고 말하며 그냥 패. 계속 패. 막 패.

### STEP 4 사무실 아작내기

#### Smash the Office

제작사 Tuokio Oy



상사를 쥐어패고도 성에 안 찬다면, 아예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는 건 어떨까?

플레이어는 각목을 들고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무실 집기를 파괴해야 한다. 괴물만 없다면이지 <디아블로>나 다름없다.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괴하면 돈이 떨어진다. 인센티브라 생각하고 열심히 좀자. 모은 돈으로 골프채, 일본도 등 강력한 무기를 구매하면 좀 더 효율적인 내근(?)을 즐길 수 있다. 사무실 구성에서 물래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드니 조심하도록.

그래, 웅재씨, 좋은 말로 할 때 조심하게.





오늘은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이상한 아이디어의 게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y onesound

게임이랑게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중요한 산업이다보니

이상한 아이디어의 게임도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메탈기어 시리즈를 만든 코지마 히데오의 우리의 태양이라는 게임에는

GBA / 2003

게임팩에 태양광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걸로 햇빛에서 태양을 충전하면

충전한 만큼 게임내에서 태양충을 쓸 수 있었죠.

죽어라 뱀파이어! 으악!

날씨가 흐리면 낭패.

어쩌려고

옛날 패미컴 버전 젤다의 전설에는 폴스 보이시라는 몬스터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이 몬스터는 큰 소리에 약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귀가 커서...

하지만 주인공에게 큰 소리를 내는 기술 같은건 없는데.....

어버버...

사실은 패미컴 2P 컨트롤러에 마이크가 달려있어서

게임 도중 큰 소리를 외치면

이게 된다고?

Fus Ro Dah!!

게임 속 몬스터들이 전부 죽는걸 볼 수 있었죠.

최근에 나온 레이싱 게임 앵그리버드 GO에는 Telepods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실물 앵그리버드 장난감을 사서

실제로 굴러감

하단에 작은 QR코드가 있음

QR코드를 확대하는 역할.

게임을 켜고 이 장난감을 휴대폰 카메라에 얹으면

뚝

게임 안에 이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뱅

짱이다!!!

어머 이걸 사야돼!!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커스텀 메이드 3D라는 19금 게임에는

지금부터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겠다.

살롱 경영 시뮬레이션 (뽕)

무선 USB 컨트롤러가 있어서

이걸 나중에 빼야해서...

조립

이렇게 바나나를 컨트롤러에 끼우고

외떡잎식물 생강목 파초과 바나나속에 속하는 식물

바나나를 왔다갔다 하면

게임상의 캐릭터가 컨트롤러 입력에 실시간으로 반응!

이것이 21세기!!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오кул러스까지 지원한다니,

게임 속 캐릭터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수 있겠죠?

드디어 미쳤구나

게임속 여자가 밖으로 만나오면 직접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겠어!

CABAL II  
THE NEOFORCE ERA

# TASHA the FORCE- ARCHER

섹시 코스프레의 대명사  
'스파이럴캐츠'의 타샤가 <카발2>의  
포스 아처로 변신했다. 당신의 심장에  
매혹의 화살을 겨냥한 채로 말이다.

BY 조용재



① 포스 아처는 포스로 생성한 활을 사용한다. 활 길이 따로 안 드는 경제적인 여자

**스파이럴컷츠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게임 개발 업계에 있었던 만큼 '스파이럴컷츠'를 주제로 직접 게임을 개발하고 싶기도 해요. 또 '스파이럴컷츠'라는 이름의 메이드 카페를 만들고 싶은 꿈도 있어요. 해외에도 같은 이름의 팀을 만들어서 각국의 스파이럴컷츠가 모여 경쟁하는 코스프레 세계 대회를 열어보고 싶기도 해요. 스케일이 엄청나죠?(웃음)

**MAXIM 독자들에게 연말 연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  
하루쯤은 아이들을 위해,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코스프레 이벤트를 준비해 보세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크리스마스라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산티클로스 모자나 루돌프 머리카락을 쓰는 정도로도 충분해요. 시기를 놓쳤다면 신년에는 꼭 도전해 보세요. 분명 특별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

**→ 먼저 인사 한 마디.**  
안녕하세요! '스파이럴컷츠'의 팀장 타사입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프로 코스프레 팀으로 데뷔해 <카발2>뿐 아니라 다양한 게임의 코스프레를 진행해왔어요. 팀 모두가 코스프레라면 사족을 못 쓰지요. 열정을 갖고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만한 고퀄리티의 코스프레를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발2>의 포스 아처 코스프레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플레이어들이 봤을 때 "힐 포스 아처대!"라고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 수 있게 고유의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캐릭터의 느낌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하는 시간 빼고 계속 <카발2>만 플레이하고

있지요. 처음엔 프로의식을 바탕으로 "아, 느낌이나 알아봐야지" 하며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조사를 핑계로 계속 게임만 하고 있네요.(웃음) 요즘은 같은 팀 멤버인 도레미와 레벨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웃음)

**직접 플레이해보니 <카발2>가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게임을 잘 못해서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연계가 같은 액션을 손쉽게 구사할 수 있어서 좀 더 빨리 적응했어요. 그래픽도 섬세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게임 속 포스 아처의 포즈를 연구하면서 코스프레의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② 포스 아처의 방어구는 주로 가족 의상이다(이 누님, 뭘 좀 아시네요).



## REAL GAME MONEY

 **김덕님하, 아이템만 지르지 말고 게임주 한번 사 봐.**

BY Fred Kim ([www.twitter.com/kimmanager](http://www.twitter.com/kimmanager))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억하는가? 1998년에 첫 선을 보인 <리니지>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며 대박을 기록했다. 15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오래된 할배 게임이 놀랍게도 사상 최대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엔씨소프트는 15년 된 게임 <리니지>에서만 지금도 한 분기에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어부지리로 철옹성을 쌓다

스마트폰과 LTE가 이끄는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 “온라인 게임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웬걸? 엔씨소프트는 2012년 넥슨에 인수 합병된 이후에도 온라인 게임 편에서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위메이드, JCE, 한게임 등의 쟁쟁한 국내 경쟁사들이 고성장 산업인 모바일 게임으로 비중을 옮기면서 오히려 온라인 게임은 경쟁이 덜한 과점 체제로 재편되었다. 한마디로 다들 민감하게 변화를 모색할 때 고지식하게 슬요만 먹었더니 어부지리로 주인 없는 빈 판을 먹은 꼴이다.

### "아오 속 쓰러" ncsso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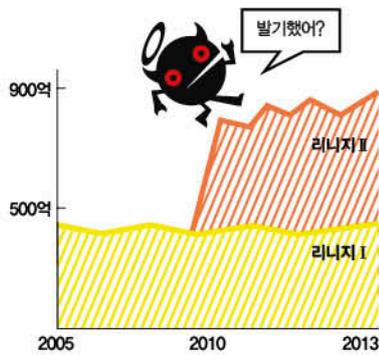
 엔씨소프트가 넥슨에 인수되던 2012년 6월 경, 재테크에 폭 빠져있던 나는 회사 업무용 PC에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한참 주식에 빠져 있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아닌 직접 투자에 맛이 들러 업무는 이미 뒷전이었다. 도박판도 초짜가 들어가면 만다더니 몇 달 새에 천만 원의 이익을 내며 한껏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주식에서 발을 빼게 된 계기가 바로 엔씨소프트다. <블레이드 앤 소울>의 출시 호재로 적잖은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엔씨소프트가 느닷없이 회사를 넥슨에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당황했어?



네이버 증권 엔씨 종목토론방에 들어가니 개오지랴꾼들이 흥흥한 얘기들로 매도를 부추겼다. ‘온라인 게임은 곧 모바일 게임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지금의 폭락은 시작에 불과하다’, ‘엔씨는 이제 넥슨의 온라인 담당 스튜디오로 전락한다’ ‘팔아치운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엔씨 임원들은 이미 다 팔았단다’, ‘여태 잡고 있는 분 한강물에서 여럿 발견될 듯’... 식은 땀이 흘렀다. 떨리는 손으로 전량 매도를 클릭했다. 그리고 주식에서 손을 씻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그 때 더 사 모았어야 했다. 아니, 그냥 팔지 말고 갖고만 있었어도 지금쯤... 아, 일하기 싫다.

모바일 게임은 심플하고 중독성있는 게임이 주류를 이룬다. 고사양 컴에서나 돌리는 대작 온라인 게임과 달리 폰에서도 잘 돌아가야 하니 저예산 캐주얼 게임도 뛰어날 수 있는 시장이다. 반면, 엔씨소프트가 최근 중국에 런칭한 <블레이드&소울>은 제작비만 600억 원에 육박하고, 개발에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대작 게임이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은 이제 웬만한 대작이 아니면 유저의 눈을 끌기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점도 향후 엔씨소프트에 대항할 신규 경쟁자의 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즉,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의 엔씨소프트의 독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리니지, 15년째 성장 중

기본적으로 엔씨소프트라는 회사는 특유의 계단식 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질한 게임을 다작(多作)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작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즉, 긴 간격을 두고 이런 신규 온라인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신규 매출이

붙으면서 매출과 이익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물론 계단식 성장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새 게임의 출시가 기존 게임의 매출을 잠식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게임에서 매출을 올려주던 유저들이 그 게임을 버리고 새 게임으로 갈아탄다면 계단식 매출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엔씨소프트의 대작 게임들은 연식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임으로의 유저 유출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다. 2003년 <리니지2>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리니지1> 유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신규 유저가 더 유입되고 시장이 확대되며 엔씨소프트의 매출은 급성장했다. <리니지1>의 몰락을 예상한 많은 투자자들은 이 결과에 의아했지만, <리니지>를 좀 해본 유저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생각해보라. 유저 입장에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 현실로 키워놓은 <리니지1>의 캐릭터를, <리니지2>가 나왔다고 해서 버릴 수 있겠는가?

### 슬로우 스타터, 블레이드&소울

엔씨소프트가 작년에 발표한 <블레이드&소울>은 국내에서 <LOL>에 밀려 다소 실망스러운 성과를 거뒀다. 옆 페이지 박스 기사에 신세를 한탄한 유승민 에디터 또한 2012년 <블레이드&소울>에 대한 기대심리에 힘입어 엔씨소프트로 재미를 봤다가, 출시 후 부진과 벅스 인수로 손해를 본 대표적인 케이스인 듯 하다. 쫄쫄...

사실 <블레이드&소울>은 철저히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개발된 게임이다. 최근 엔씨소프트는 중국 1위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 '텐센트'와 손잡고 <블레이드&소울>을 중국에 런칭했다. 과거 중국에서 실패했던 <아이온>을 거울삼아 이번엔 철저히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무장했다. 일단 스토리 자체가 무협소설이며, 캐릭터와 의상 등의 디테일도 중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했다. 그 결과, 초기부터 반응이 매우 뜨겁다.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서버 수가 100개에서 200개로 두 배가 늘었고, 동시접속자 수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도면 <블레이드&소울>은 내년엔 4천억 이상의 매출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1천 500억 수준의

로열티 매출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

### 다음 계단, 준비됐나?

새해엔 종전의 히트 게임인 <길드 워>의 후속작 <길드 워 2>가 중국에서 출시된다. 중국 퍼블리셔 풍중 사와 제휴하는 <길드 워2> 또한 최소한 500억 이상의 로열티를 엔씨소프트에 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4년은 엔씨소프트의 계단식 성장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원년이며, 그 계단의 폭도 기존 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의 더블 성장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엔씨소프트에게 2014년은 더 이상 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가 아닌 글로벌 온라인 게임 회사로 거듭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국제 시장에서 재평가되며 이종점프를 한 NAVER처럼, 엔씨의 주가 역시 글로벌 재평가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신이 소위 '게임 좀 하는' 남자라면 게임주에 관한 한, 어쩌면 투자전문가 못지않은 안목을 이미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게임 아이템을 현실하는데 물땀한 그 돈을, 이번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사는 데에 쓰는 건 어떤가? ☹



## 이달의 결다리 게임 뉴스

뜨랩도 알 권리가 있는 게임판 소식 이모저모.



### 1 축빠들아, 기대하라!

2014 브라질 월드컵 조 편성이 공개된 가운데 (위닝 일레븐 온라인 2014)가 말도 안 되는 스펙으로 찾아온다는 소식이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12월 10일에 열린 신작 발표회에서 그동안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위닝 일레븐 온라인 2014)를 전격 공개했다. 그간 피노키오보다 뽀뽀한 움직임으로 '목각 온라인'이라는 놀림을 받아온 게 억울했는지, 콘솔 버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신형 폭스 그래픽 엔진을 탑재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덕분에 올 한 해는 거실에서나 PC방에서나 입속구 선수들의 침샘이 마를 날이 없을 예정이다.

### 2 서든어택, 겨울 시즌 '꿀잼' 업데이트 실시!

컬스테이와 국악 소녀 송소희를 모델로 기용한 넥슨의 서든어택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3월 까지 총 다섯 가지의 이색적인 게임 모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업데이트 타이틀은 '눈싸움', '투명 인간', '도둑 잡기', '슈퍼워폰', '유지 공모 콘텐츠' 등이다. 눈싸움으로 상대 진영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점령하기, 달리거나 공격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투명인간과의 대결 등 설명만 들어도 혹할 꿀잼이들이 즐지어 당신의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다 겨울을 콘셉트로 한 다양한 캐릭터 스킨과 아이템도 함박눈처럼 펄펄 쏟아진다.

### 3 몬스터를 잡아!

원시 수렵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 4)가 닌텐도 3DS 버전으로 정식 발매됐다.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제목 그대로 사냥꾼이 괴물을 후려잡는다는 흔하디흔한 내용. 하지만 클릭질을 연속해 몬스터를 잡는 여타 단순한 게임과 달리, 몬스터 헌터의 사냥은 퀘스트 수주를 받거나 무기를 만드는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이번에 출시된 (몬스터 헌터 4)에서는 견고 뛰기만 하던 전작과 달리 높낮이의 개념을 살린 점프 액션이 가능하며, '고아-마기라', '가라라이자라' 등의 병신 같은 이름을 가진 새로운 몬스터도 등장한다.

## 2013 최고의 게임은 뭐?!

뚜구뚜구뚜구...



tVN (SNL 코리아)에서 패러디하며 국내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은 록스타 게임즈의 (GTA 5)가 미국 스파이크 TV가 주최한 'VGX'에서 2013년 최고의 게임으로 뽑혔다. 역대 게임 제작비 중 최대 금액인 2억 6,500만 달러(한화로 약 2,900억 원)를 쏟아부었으며 출시 24시간 만에 8억 달러(한화로 약 8,668억 원)의 매출을 뽑아내며 단기간 최다 판매량 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 결과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 이 정도는 돼야 GTA 덕후!

가상 범죄 시뮬레이션을 콘셉트로 하는 게임이니만큼, GTA 마니아들은 게임을 사러 가는 순간에도 미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GTA 5)가 출시된 지난해 9월에는 뉴욕에서 3인조로 구성된 19~20세 청년들이 은퇴한 아버지의 경찰복과 배지를 착용한 채 시어런을 단가짜 경찰차를 몰고 게임 숨을 찾았다. 당시 매장에는 (GTA 5)의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보안 경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인 척하며 새치기에 성공해 손쉽게 게임을 구매했다고. 깔끔하게 "미션 컴플리트"한 줄이었으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경찰을 사칭한 죄로 진짜 경찰에 붙잡혔다.

## ‘전력 보강의 장’ FA 시장,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나

먹튀가 될 것이냐, 복덩이가 될 것이냐.

BY 강산(마이테일리 스포츠 기자)



성적은 이제  
됐고, 시구  
영상이나  
보자!



→ 프로야구는 물론 모든 프로스포츠에서 최고의 전력 보강책은 다름 아닌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이다. 리그 정상급 선수 2명만 잡아오면 전력 상승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물론 거액을 들여 영입한 선수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 ‘먹튀’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그래서 FA 영입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이전까지 하던 대로만 해줘도 반타작은 가능하다. 그래서 전력 보강을 노리는 팀에게 FA는 무척 매력적이다. 다소 침울하던 군부대 생활관 분위기가 MAXIM 몇 권으로 화기애애하게 변하는 것과 같은 매력이다.

2014년 프로야구를 앞두고 펼쳐진 FA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오버페이’와 ‘거품’이다. 몸값 인플레이가 어마어마했다. 2005년 현대 유니콘스(현 넥센)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심정수가 받은 4년 60억 원? 이번 FA 첫 계약부터 이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사실 거액의 몸값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한 구단 관계자는 “FA 계약은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기도 하다”고 말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선수라면 많은 돈을 거머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게 FA 시장의 섭리기도 하다.

반면, 애지중지 키운 선수를 다른 팀에 뺏기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마냥 슬퍼할 일은 아니다. 기존 선수가 이적한 구단으로부터 보호선수 20인 외 1명을 보상 선수로 받아올 수 있고, 여기에 해당 선수의 연봉 200%에 해당하는 보상금까지 거머쥔다. 정 필요한 선수가 없다면 해당 선수의 연봉 300%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받을 수도 있다. 이번 FA 시장에 나온 6명이 모두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11월 18일 롯데 자이언츠가 최준석과 4년 35억 원에 계약하면서 FA 시장은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FA 시장에서 누가누가 잘했고, 누가누가 못했을까? 한번 짚어보자.

# Sport



## 한화 이글스

잔류 이대수, 한상훈, 박정진  
영입 정근우, 이용규  
보상선수 한승택 ▶ KIA 이적

잘했다. 부정할 수 없는 FA 시장의 승자다.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6일 이대수(4년 20억 원), 한상훈(4년 13억 원), 박정진(2년 8억 원)을 모두 눌러 앉히는 데 성공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제주도 마무리 캠프를 관찰하던 노재덕 단장이 대전까지 올라가 직접 선수들과 대면했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정근우와 이용규의 영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타 구단 협상 첫날인 11월 17일이 되자마자 노재덕 단장과 김종수 운영팀장이 각각 서울, 인천으로 이동해 두 선수를 만났다. 김용용 감독도 새벽에 선수들에게 직접 전화해 "함께하자"고 했다. 17일 아침 7시 30분. 한화는 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정근우는 4년 70억 원, 이용규는 4년 67억 원이다. 올해 두 자릿수 도루 기록자가 단 3명에 불과한 한화는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은 물론 수비력까지 갖춘 둘을 영입해 기동력과 센터라인 강화에 큰 힘을 받게 됐다. 게다가 SK는 보상선수도 지명하지 않아 전력 유출을 최소화한 한화다.



## 롯데 자이언츠

잔류 강민호, 강영식  
영입 최준석  
보상선수 김수완 ▶ 두산 이적



FA 1호 계약은 롯데에서 나왔다. 국가대표 포수 강민호가 11월 13일자로 4년 75억 원의 역대 FA 최고액에 잔류를 택한 것이다. 그는 "부산에서 행복하게 야구하고 싶다"는 말로 롯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원소속 구단 협상 마지막 날에는 좌완 볼펜 요원 강영식이 4년 17억 원에 계약하면서 집안 단속이 성공했다. 그리고 타 구단 협상 둘째 날인 11월 18일 '파워 히터' 최준석과 4년 35억 원에 계약했다. 지난해 타격 부진과 거포 부재에 시달리던 롯데의 갈증을 해결해줄 카드다. 투수 김수완이 보상선수로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됐지만 전력 보강의 효과를 누리기에는 무리가 없다.



## NC 다이노스

영입 이종욱, 손시헌  
보상선수 없음



누군가 FA 시장이 열리기 전 이런 얘기를 했다. "NC에 선수 뺏기면 큰일 난다"고. 지난해 1군에 첫발을 내디딘 NC는 FA를 영입해도 보상선수를 내줄 필요 없이 보상금만 주면 된다. 창단 첫해 돌풍을 일으켰지만 4강, 우승권 도약까지 노리는 NC는 아직 목이 마르다. 김경문 감독의 제자이던 이종욱과 손시헌을 품에 안았다. 이종욱은 4년 50억 원, 손시헌은 4년 30억 원을 받고 자신을 키워주던 김경문 감독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고의 선택이다.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 준수한 수비력을 갖춘 리드오프 이종욱과 국가대표 유격수 손시헌의 가세는 젊은 선수 일색이던 NC에 엄청난 힘이 될 전망이다. 올해 도루왕을 차지한 김종호와 이종욱이 테이블 세터로 나섰을 때 나타날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 삼성 라이온즈

잔류 장원삼, 박한이

꼭 필요하던 자원 둘을 모두 눌러 앉혔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따내며 '홀수해 징크스'를 깨뜨린 장원삼과 한국시리즈 MVP 박한이는 각각 4년 60억 원, 4년 28억 원에 계약했다. 박한이는 "너무 낮은 금액에 계약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금액보다 팀에 대한 애정이 먼저였다. 그는 "삼성을 떠나기 싫었다"고 했다. 선발진과 상위 타선의 축을 담당하는 장원삼, 박한이의 계약은 내년 시즌 전력 유지를 위한 첫걸음이다. 마무리 오승환이 일본 한신 타이거즈로 떠난 건 아쉽지만 '투수 왕국' 삼성에 걸맞게 또 다른 마무리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기아 평균 외모  
업그레이드 성공!



호령이 옷을 입은 이대형 선수(좌)

LG 큰 성님 박용택(좌), 이병규(우)



## LG 트윈스

전류 이병규, 권용관  
이적 이대형 ▶ KIA  
보상선수 신승현 영입

송구홍 LG 트윈스 운영팀장은 선수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갔다. 야구 선배로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LG의 레전드 이병규와 계약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LG맨이었다. 어렵지 않게 3년 25억 5천만 원에 사인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다시 LG 유니폼을 입은 권용관은 1년 1억 원에 계약하며 내년 시즌에도 LG맨으로 남게 됐다. 베테랑 둘과는 계약을 마쳤으나 '슈퍼소닉' 이대형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온도 차가 있었다. 결국 이대형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시장에 나간 그는 타 구단 협상 첫날인 11월 17일 KIA와 4년 24억 원에 '덜컥' 계약했다. 하지만 LG는 보상선수로 사이드암 투수 신승현을 받아들였고, 보상금까지 거머쥐었다. 잘생긴 외모로 여성 팬을 불러 모으는 이대형의 이적은 분명 아쉽다. 하지만 그의 빈자리는 다른 선수들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평가다.

## KIA 타이거즈

영입 이대형  
보상선수 신승현 ▶ LG 이적



이용규의 한화 이적 소식이 나온 지 6시간쯤 지난 뒤 발표된 그야말로 '파격 인사'다. 일단 기동력을 갖춘 이대형을 영입해 수비와 주루에서는 이용규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그러나 타격이 문제다. 이대형은 2007년 타율 3할 8리를 기록한 이후 단 한 번도 3할 타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 2년간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타율 2할 2리 2홈런 29타점. 한 시즌도 아니고 두 시즌에 걸쳐 100안타도 못 쳤다. 도루도 2년간 38개만 기록했다. 타격이 돼야 출루를 많이 하고 그만큼 될 기회도 많아진다. 4년 24억 원을 덜컥 안겨준 건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래도 한때는 3년 연속 60도루를 기록하던 선수이니만큼 타격만 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다. 넓은 수비 범위는 이미 검증됐다. 하지만 지난해 송은범 트레이드 때 함께 넘어온 신승현을 곧바로 보상선수로 넘겨준 게 아쉽다. 투수 한 명이 아쉬운 KIA이기에 더욱 그렇다. 과연 KIA의 이번 도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

신이시여...

정신 차려! 게임은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야!



## SK 와이번스

이적 정근우 ▶ 한화  
보상선수 없음



정말 큰일이다.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난 건 둘째 치고 누가 정근우의 공백을 메울지 궁금하다. 정근우는 SK의 2루수임은 물론 국가대표 2루수로 자리매김한 선수다. 일반적으로 보상선수를 받아 공백을 메우게 마련인데, 데려올 선수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보상금만 받고 이번 FA 시장에서 철수했다. SK의 상징적 존재인 정근우의 공백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는 또 다른 스타 최정과 김강민이 FA로 풀린다. 술한 영광을 함께하던 젊은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는 게 반가울 리 없는 SK다.



## 두산 베어스

이적 이종욱, 손시현 ▶ NC  
최준석 ▶ 롯데  
보상선수 김수완

FA 시장에서는 SK보다 더 큰 아쉬움을 남긴 팀이 바로 두산이다. 원소속 구단 협상 기간에 이종욱, 손시현, 최준석을 놓려 앉히지 못했다. 이들 모두 타 구단의 러브콜을 받을 것이 확실했기에 두산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종욱과 손시현은 타 구단 협상 첫날인 11월 17일 NC 다이노스와 계약했다. NC는 올해까지는 FA를 영입해도 보상선수를 줄 필요가 없다. 보상금만 주면 된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전력 유출이다. 둘과 작별한 다음 날에는 포스트시즌에서 거포 본능을 선보인 최준석이 롯데자이언츠와 계약했다. 보상선수로 투수 김수완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3명을 뺏기고 한 명만 받았으니 전력 누수가 맞다. 실상가상으로 올해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김진욱 감독마저 경질됐다. 베테랑들이 팀을 떠난 데 이어 수장까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이래저래 울거울이 더욱 쌀쌀하게 느껴질 두산이다. 🐻

자유계약 말고  
자유계약 같은  
건 없어?



# Sex

## When women want



###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당신보다 덜 하고 싶다고 생각해?

BY 김희성



참고 서적  
 <욕망 하는 여자>  
 대니얼 버그너 지음/  
 김학영 옮김/ 메디치미디어/  
 14,500원



#### 여자는 남자보다 덜 하고 싶을까?

사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망설였다. 여자가 성적 욕망을 운운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안될 것만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욕, 섹스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라면 늘 부끄러워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척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란한 여자로 과거를 의심 받거나 누군가의 여자 친구 후보에서 자동 탈락된다는 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학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 특히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는 이런 얘기에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나이가 어리지 않은 데도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표정을 지으며 눈만 깜빡거리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자들 입장에서 '나 지금 당장 너랑 하고 싶으니깐 어서 빨리 덮쳐 줘'라고 말하지 못하니 답답하지만 남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건 마찬가지일 거다. 이 여자가 정말로 나랑 하기 싫은 건지, 내숭을 떠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는데 그날이거나 안 예쁜 속옷을 입고 와서 일부 후퇴하는 건지,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하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다. 함께 술도 마셔 보고 야한 드립도 쳐 보고 '난 너랑 자고 싶는데 넌 어때'라며 아예 대놓고 물어 보기도 하고 은근슬쩍 스킨십도 시도해 보면서 겨우 여자가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 본다. 이렇게라도 알 수 있으면 다행이지, 분명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는데 MT까지 가서 갑자기 철벽사수 모드로 돌변해 화장할 뻔한 적도 있었을 거다. 여자들이 성욕에 대한 의사표현에 조금만 더 솔직하다면 당신도 지금보다 돈 덜 쓰고 힘 덜 들고 눈치 덜 봐도 수월하게 하고 살 텐데 말이다. 지금 호르몬 주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굳이 에디터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익히 접해왔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찾아볼 수 있는 정보다. 에디터는 늘 불만이었던 게 왜 여자의 성욕은 항상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와 같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배란기에 성욕이 어쩌구 하는 근거들은 마치 '여자들은 평소와 그다지 하고 싶지 않지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리 몸이 원하니 어쩔

수 없이 섹스를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서 말이다. 여자들의 성욕이 호르몬이나 생리주기와 무관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다만 어쩌서 여자들의 성욕만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 남자들은 늘 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욕구가 없는 게 비정상적으로 취급되고) 여자들은 그 방면에 있어서 그다지 욕구가 없는 존재로 인식돼 왔다. 그건 성에 대해 경직된 우리나라 정서상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들도 성욕을 감추고 있는 걸 보면 이걸 순전히 진화 심리학의 탓인 것 같다. 남성의 정자는 무한한 반면 여성의 난자는 유한하고, 번식에 있어서 남성은 소중한 것을 그다지 많이 투자하지 않는 반면 여성은 난자뿐만 아니라 몸의 일부를 내어주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진화 심리학적인 논리가 오랫동안 여자들의 성적 욕망을 평가 절하해 왔던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여자들도 실은 당신처럼 하루에도 몇 번, 많게는 수십 번 섹스를 생각한다.

### 낯선 남자를 상상할 때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 낯선 사람을 보면서 '저 남자와 자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가끔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는 것 자체에 놀란다. 다른 여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려나?

길거리에서 만난 아무 남자와 하고 싶다.

남자들은 마음의 방이 여러 개라 마음이 없는 여자라도 섹스를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마음의 방이 하나라 마음을 주지 않은 남자와는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남녀의 성욕에 대한 좋은 예시로 주로 인용되어 왔다. 정말로 여자들은 '사랑' 혹은 사랑에 준하는 어떤 친근한 감정이 전제될 때만 하고 싶어질까?

이와 관련해 실험을 했는데, 그 방법이 조금 무섭다. 질에 혈류 측정기를 삽입하고 다리받침이 있는 인락의자에 몸을 반쯤 높이고 포르노 영상을 감상하게 한 거다. 피험자들의 질에 삽입된 혈류 측정기는 질벽을 향해 광선을 비추고 질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조도를 읽는다. 혈류량에 따라 조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질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욕망을 억제하는 뇌 상단부의 간섭을 배제해 가장 원초적인 여성의

성욕을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 여자는 정말 사랑이나 친근감의 감정이 선행되어야 성욕을 느끼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자.

실험자는 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묘사를 들려주고 질내 혈류량을 측정했다. 먼저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 사람 친구와의 섹스 묘사 장면을 들려줄 때 질내 혈류량이 높았다. 하지만 낯선 여자와의 섹스에 대한 묘사 장면을 들려줄 때는 두 배나 높게 치솟았다. 원래 알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 사람 친구와의 섹스 장면에서는 그 흥분이 가라앉았고 질 박동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해졌다. 하지만 낯선 남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무려 여덟 배나 박동이 강해졌다.

실험 후, 피험자들은 낯선 사람과의 섹스 장면에서 거의 흥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들의 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다. 혈류 측정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오랜 연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꿈에 그리던 완벽한 외모의 연인이든 '낯선' 남자나 여자보다 강력한 건 없었다. 즉, 낯선 사람과의 섹스에 대한 상상은 여성의 질내 혈류량을 하늘로 치솟게 했다.

여자의 성적 욕망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책 <욕망하는 여자>에서 저자 대니얼 버그너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했다. '감정적인 유대, 탄탄하게 확립된 친밀감, 그리고

안전하다는 기분, 이러한 토대가 있어야 여성의 성욕이 발동한다는 사회적인 전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규칙보다는 예외로써 다뤄왔던 개념이었다. 오늘날까지 사회적인 전제나 일부 연구에서는, 원초적인 성욕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은 극히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이따금씩 꿈꿔보는 성적 판타지의 소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체계적인 증거들이 있었다.'

### 야한 장면을 볼 때

영화관에서 야한 장면이 나올 때, 갑자기 하고 싶어져 그곳을 뛰쳐나오고 싶었다. 걸로 보기에 팝콘 먹는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별안간 그의 그곳이 단단해져 있는 걸 봤을 때, 내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걸 느꼈다.

몇 해 동안 섹스 칼럼을 쓰다 보니 남자들이 연애나 섹스에 관해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오는데, 그중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여자들은 야동을 보느냐'였다(여자들이 야동을 보는지 안 보는지 등에 관한 Q&A와 여자들의 야동 판타지는 2013년 6월호에서 다뤘으니 여기선 따로 설명하지 않기로 하겠다).



# Sex / When women want



남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이거다.

‘여자들도 (우리처럼)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느냐’는 것이었다. 여자들도 물론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한다. 어떤 포인트에 반응하느냐 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여자들이 시각적인 자극에 무디다는 속설은 틀렸다. 남자들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 여자들의 각종 커뮤니티에 가보면 남자들 못지않게 최신판 야동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고, ‘없는 것이 서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댓글들이 좌르륵 달리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야한 걸 볼 땐 하고 싶은 것뿐 아니라 남자의 골추 선 그곳을 봐도 하고 싶다. 물론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몸을 거짓말하지 못하는 법.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사례를 살펴보자.

여성의 성욕은 남성보다 시각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한 연구원은 성과학 관련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 피험자들에게 예로틱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관심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0.001초 단위로 피험자들이 사진을 보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여자도 남자 피험자들 못지않게 포르노 사진을 보는 시간이 길었다고 했다. “마치 못으로 박아둔 듯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그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미소년 사진을 볼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왜냐하면 미소년 사진의 페니스는 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단하게 발기된 남근만을 포착한 사진을 보여주자 질내 혈류 측정기의 붉은 선이 무섭게 치솟았다.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돌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녀들의 몸은 정말 정직하게도 골추 선 아랫도리에 반응한다는 거다.

## 섹스한 다음 날 아침

*격렬한 섹스를 하더라도 한 다음 날 아침 그곳에 아릿한 느낌이 들면서 어젯밤의 폭풍섹스가 떠오르곤 한다.*

여자도 남자처럼 시각적인 것에 성욕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시각적인 자극 따위 하나 없이 상상만으로도 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특히 섹스한 다음 날 아침에는 아직 어제의 여운이 남아 있어 그 때의 전율이 조금씩 느껴지면서 별안간 또 하고 싶어진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제의 상황들을 찬찬히 상기하다보면 아찔한 기분마저 든다. 그러고 보면 ‘여자는 상상만으로도 오르가즘에 이를 수 있다’는 속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나와 섹스를 한 상대방이 삽입하고 사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나 때문에 그가 흥분하고, 그의 아랫도리가 단단해졌다는 그 자체가 오롯한 만족감과 흥분을 가져다준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적 속성 때문에 흥분하기도 하는 여자들의 성욕과도 연결될 수 있다.

## 그가 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 이유없이 하고 싶어 진다.*

*섹스를 하기 전 그가 나를 벗겨 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더 흥분 된다.*

전화를 나누는 여자와 남자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초점의 패턴을 비교한 연구 논문이 있다. 남자가 여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부엌의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전라였고 비누거품으로만 몸을 가리고 있었다. 남성 피험자들은 화면에 등장하는 여자의 얼굴과 몸을 여성 피험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응시했지만, 여성 피험자들은 이미지 속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몸을 주로 바라봤다. 즉, 여성 피험자들은 남자의 욕망과 그 욕망을 유발하는 여자를 보면서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동성애자가 아닌 여자들이 같은 여자의 몸을 보면서 흥분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자들이 갖고 있는 성욕의 핵심인 ‘나르시시즘’, 즉 순수한 자아도취의 개념으로서의 나르시시즘 때문에 여자들은 같은 여자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 자신이 갈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예로틱한 흥분을 느끼는 거다. 이런 점을 들어 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동성애 성향이 잠재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쪽보다는 나르시시즘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껏 차려입고 나온 그녀를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바로 옷을 죄다 벗겨버린다거나 만나자마자 바로 MT로 직행 한다든가 하는 건 그녀의 성욕을 자극하지 못하는 행위다. 섹스를 하기 전 술을 한 잔 한다든가 혹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걸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유에는 사실 이런 욕망이 깔려 있었다.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욕망하는 남자의 눈빛, 허벅지나 가슴으로 꽂히는 시선, ‘너와 하고 싶었다’는 말, 표정, 스킨십 등이 여자들을 하고 싶게 만들어 더 격정적으로 섹스를 하게 만든다.

# 섹스를 망치는 혜방꾼, 그 이름 조루

밤일에 대한 남자들의 고민.  
당신은 상관없다고 펄쩍 뛰고 있나?  
거짓말 치지 말고 집중해서 보자.  
조루든 아니든 알아뉘서 니쁠 건 없잖아?



→ 대한 비뇨기과 의사회 황진철 이사 (신촌 임비뇨기과 원장, 이하 황이라 함)를 모시고 조루에 대해 궁금한 3명의 남성이 끝장토론을 벌였다! 속 깊은 이야기. 그러나 차마 물어 보진 어려웠던 이야기를 대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보자!

Q 오늘 모인 분들은 그래도 한 '사정'하는 분들이 아닌가. 지금까지 겪어 본 가장 황당한 '사정'은?

패걸조루: 두말할 나위도 없이 콘돔에 구멍 났을 때가 아니겠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 느낌,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겠?

저스트미닛: 하다가 중간에 죽는 거.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 그럴 때 제일 민망하다. 허무하고, 쪽 팔려서...

폭주바니: 뭐니 뭐니 해도 너무 빠를 때가 가장 당황스럽다. 조절이 안 될 때의 민망함이란...

→ Doctor says

황: 사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성기능 장애는 발기부전이 아닌 조루다. 인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확률상 남성 10명 중 3명이 조루라고 하니, 여기 모인 세 명 중 한 명도 조루이거나 조루를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크다.

Q 조루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나?

패걸조루: 첫 여친이랑 만날 때 조루였던 것 같다. 조절이 안 됐다. 느낌은 한 마디로 그냥 구석에 쪼그라드는 것 같다. 할 말도 없고 허탈하기도 하고.

저스트미닛: 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다.

폭주바니: 그렇기도 하고, 약간 고자가 된 느낌 아닌가? 성불구자?

→ Doctor says

황: 요즘 중년 여성들이 하는 시쳇말로, 발기부전은 '불쌍한 놈', 조루는 '나쁜 놈'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발기부전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질환

이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도 안타까워하고 도와 주려 한다. 그런데 조루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는 멀쩡해 보이지 않나? 남성의 욕구만 채우고 끝내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투로 생각하기보다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실제로 조루 남성의 이혼율은 건강한 남성보다 두 배 높다고 한다.

Q 조루를 겪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시도해 봤나?

저스트미닛: 예전에 친구가 마취 성분이 들어 있는 콘돔을 준 적이 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써 봤는데 치과 마취 안 풀렸을 때 음식 먹어 봤나? 딱 그런 느낌. 허공에 하는 기분이라.

폭주바니: 난 칫직이를 뿌렸다가 여친 혀를 마비시켰다. 그날 엄청나게 벌었다. 그 여친이랑 지금은 헤어졌지.

패걸조루: 보통 술 마시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폭주바니: 난 '반지'도 끼워봤다. 욕으로 된 거 있지 않나.

저스트미닛: 말로만 들던 반지의 제약? 어땠나. 효과 있었나?

폭주바니: 웬걸! 혈관에 염종 생겨서 큰일 날 뻔했다. 고자되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Doctor says

황: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제품 사용 시 자칫 잘못하면 성 기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환자 가운데 실리콘 링을 사용하다가 음경해면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발기 자체가 불가능해진 케이스도 있었다. 발기 상태가 48시간이 지속될 경우 성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능이 파괴되기 때문에 다시는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이다. 소위 '칫직이'로 불리는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제나 이것이 들어있는 콘돔도 사용 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에 염종 같은 부작용을 입을 수 있고 사용 후 씻지 않고 관계를 가지면 파트너의 질, 구강 등을 마취시키게 되어 난감한 상황

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술은 적당히 마시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정 시간을 조절해주는 것은 아니다. 조루 치료를 위해서는 다독세틴 성분 같은 검증된 조루 전문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정 시간을 4배 정도 늘려주고, 사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처방에 준 환자 80%가 만족했다.

폭주바니: 치료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먹어서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지 않나? 필요할 때마다 먹어야 하는 약 아닌가?

황: 음...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루로 인해 약을 매일 먹을 필요도 없다. 조루는 증상뿐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그리고 말 그대로 치료제이다. 조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상담 및 행동요법 그리고 적절하게 약용량을 조절하는 등 치료 과정에서 전문의와 함께 고민한다면 치료가 당연히 가능하다.

Q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섹스에 대한 좋은 팁이 있다면 알려달라. 많은 남성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 Doctor says

황: 글썄...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우선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쁘고... 그래서 사랑에 바탕을 둔 따뜻한 대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좋은 섹스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다. 너무 교과서적인가? 하하.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조루나, 발기부전 등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라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고생 말고, 성과 관련된 문제는 혼자만 가슴앓이하는 고민이 아니다. 혈압, 당뇨처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허리가 아프면 정형 외과를 찾듯이 조루, 발기부전과 같은 질환으로 사랑이 아프면 비뇨기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자!

# Smoke & Drink



## ♥사랑은 시나몬을 타고

계피(시나몬)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성욕과 몸의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성기에 시나몬 오일을 발라 문지르며 성적 자극을 증대시키는 비법이 있을 정도이지만 복통, 간지럼, 심장박동 증가, 저혈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과다 복용은 금할 것!

## 체리 시나몬 칵테일

여자를 사로잡고 싶다면 입술부터 적셔줄 것.

뭐 말은 쉽지만 여자를 입맛 맞추기가 어디 그리 쉽나. 그래서 뉴욕의 잘나가는 바 에블린의 오너 바텐더인 저스틴 페어웨더에게 도움을 청했다. "체리의 달콤새콤한 맛, 시나몬과 바닐라 향, 거기에 달콤하고 향긋한 버번이 들어간 이 칵테일에 안 넘어오는 여자가 없을 거다." 알았으니까 말 그만하고 만들거나 해.

### 재료 및 비율

버번위스키 : 체리 시나몬 시럽\* : 레몬주스 : 갈리아노 리큐어\*\* = 7 : 3 : 3 : 1

위 재료를 비율대로 붓고 얼음과 섞어서 잔에 담는다. 체리를 올린 뒤 시나몬 가루를 보기 좋게 뿌려 장식한다.

### \* 체리 시나몬 시럽 만드는 법

냄비에 설탕 2컵, 물 2컵, 시나몬 스틱 6개를 넣고 끓인다. 설탕이 다 녹으면 불을 끄고 20분 뒤에 시나몬 스틱을 건진다. 여기에 체리 15개를 넣고 믹서에 간 후 체에 걸러서 잘 저어주면 완성!

### \*\* 오렌지와 바닐라로 만든 이탈리아 리큐어

### 막걸리 플레이버



맛있다고 훌쩍훌쩍 마시다가 MT행 특급열차를 타게 된다는 전설의 막걸리 믹스 레시피. BY 김희성



#### 1 막걸리 블루베리 플레이버

##### 준비물

- 블루베리 3스푼
- 얼음 2~3조각
- 막걸리 120mL

##### 만드는 법

마트에서 산 블루베리를 글라스에 투하한다. 마늘 빵을 때 쓰는 절굿공이와 비슷하게 생긴 방망이(좁아 보이는 말로 '머들러')로 블루베리를 으갠 다음 얼음 2~3조각을 넣고 칵테일 셰이커에 담아 흔든다. 글라스에 내용물을 담고 거름망에 부으면 껍질이 제거되고 즙만 남는다. 여기에 막걸리를 부으면 완성! 아, 블루베리는 맛이 상당히 강하니 막걸리를 많이 넣는 게 좋다.

#### 2 막걸리 오렌지 플레이버

##### 준비물

- 오렌지 3조각
- 얼음 2~3조각
- 막걸리 90mL

##### 만드는 법

조각낸 오렌지를 글라스에 넣고 머들러로 으개 즙을 낸다. 얼음을 넣고 칵테일 셰이커를 신나게 흔든 뒤 거름망에 부어 껍질을 거르고, 남은 오렌지즙 위에 막걸리를 붓는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막걸리 위에서 오렌지 껍질을 라이트로 태우면 오렌지 향이 스며들어 향이 더욱 풍부해진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에 여자들이 빠가는 법이지.

#### 3 막걸리 딸기 플레이버

##### 준비물

- 딸기 4개
- 얼음 2~3조각
- 딸기주스나 우유
- 막걸리 90mL

##### 만드는 법

머들러로 딸기를 뺀 딸기즙을 낸다. 만약 딸기를 샀는데 이놈의 마트에서 딸지 않은 딸기를 팔았다면,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된다.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 걸쭉하니 막걸리를 넣기 전 딸기주스나 우유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다. 마찬가지로 쉐킷~ 쉐킷~, 그녀가 딸기 건더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거르지 않고 그대로 투하해도 된다. 츄름, 츄름, 츄름.

### 몰라도 되는 막걸리 상식

그래도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다고!

>> 연산군 때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던 정희량은 막걸리에 소주를 섞어 마시는 걸 즐겼다. 이름하여 '혼돈주'. 조선 시대의 폭탄주인 셈이다. 당시에는 '처음처럼', '참이슬' 같은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안동소주' 같은 증류주를 섞었으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수가 높았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10대 히트 상품 중 1위로 막걸리를 꼽았다.

>> 막걸리는 '막 걸러냈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밑거나 말거나.



#### Helper

신호민(a.k.a ALEX)

8년 동안 바텐더로 활동하면서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궁극의 칵테일 기술을 연마했다. 현재 국내 주류 회사에 근무하며 주류와 칵테일을 연구 중이다.



# Smoke & Drink

## Tobacco Issue



### 담배 레전설

호랑이 곰방대 피우던 시절, 담배는 어떤 존재였을까?

#### 추녀와 담뱃잎

인디언 전설에 의하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인디언 소녀가 상심하여 자살하면서 "다음 생엔 세상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다"는 짝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자리에 핀 풀이 바로 담뱃잎이라고 한다. 그래, 이제 환생해서 아주 원없이 빨리고 있지?

#### 미녀 사랑, 담배 사랑

옛날 일본 동쪽 나라에 못남성의 구애에 시달리던 미인 '담파고'가 살았다. 하지만 아깝게 단명했는데, 그녀를 사모하던 어떤 청년이 그녀 무덤가 주변을 맴돌다가 배가 고파져서 무덤 주위의 풀을 뜯어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후 사람들은 그 무덤가에 난 잎을 그녀의 이름을 따 '담파고'라고 불렀다.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다가 찾은 풀이라는 의미에서 '상사초'라고도 했다.

#### 신비로운 반혼초와 남령초

중국에선 죽은 혼을 되살린다고 담배를 '반혼초(反魂草)'라 했다. '남령초(南靈草)'는 조선시대에 담배를 부르던 말로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이라는 뜻이다. 옛날엔 담배가 편두통과 매독 치료, 각종 통증 완화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었다. 배 아픈 애한테 빨리 나오라고 담배를 물리고 빨게 했는지.

#### 근대 사실은...

15세기에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들이 담배를 씹거나 태워 향을 즐기는 것을 본 유럽인들이 이를 보고 가져와서 피우기 시작하면서 담배가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16세기 중반엔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담배를 전파하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포르투갈말 '토바코(타바코)'가 일본에서 '담바고'라는 이름을 거쳐 우리나라에선 '담바구, 담박고, 담바귀, 담바' 등으로 불렸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담배'라는 익숙한 우리말로 정착하였다.

>> 17세기 후반, 모험가이자 의사인 라이오넬 와피가 쓴 <새로운 여행>에 등장한 인디언의 흡연 장면 묘사. 애가 맛나게 흡연하는 모습이 충격적인데, 당시 인디언들에겐 남녀노소 흡연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이달의 뉴페이스

새로 들어온 녀석들 면상 좀 볼까나?

한 방이 있는 놈  
레종 블루  
타임캡슐  
고양이  
캐릭터로



꾸준히 인기를 끈 레종이 한정판을 냈다. 기존 제품 19개비와 필터 안에 캡슐이 숨은 1개비로 구성된 '레종 블루 타임캡슐'이 3주간 한정 판매될 예정. 이 숨은 1개비에선 2002년 첫 출시된 레종 블루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타르 3.0mg, 니코틴 0.3mg 가격 2,500원**

#### 복고의 매력을 아는 놈

말보로 2013 빈티지

종이갑이 아닌 소프트팩에서만 느껴지는 향수가 있다. 말보로가 이런 향수를 자극하는 멋진 빈티지 한정판을 냈다. 포장의 블랙과 레드 컬러가 강렬한 이 한정판 담배는 2013년에 수확한 담뱃잎으로만 만들었다고 한다. **타르 6.0mg, 니코틴 0.60mg 가격 2,700원**



### 광해군 vs. 정조

흡연? 금연? 뭐래? 하여튼 어영이요!



#### [광해군 | 당장 끊지 못할까]

희의 때마다 조정 관료들이 여기저기서 피워대는 담배 연기 때문에 괴로웠던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결국 참지 못하고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 죽어버릴 거다"라며 폭발했다. 이때부터 웃어른 앞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예절이 생겼다고 한다.



#### [정조 | 결별, 어서들 피우게!]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끝초이차 대단한 흡연예찬론자였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느냐고? "흡연은 가슴에 막힌 것을 뚫고, 연기 잔액이 폐와 장을 윤택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잠이 잘 오게 하며, 추위와 더위를 막고 악취를 쫓으며, 사고 및 문장을 지을 때 도움이 된다"며 담배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예찬사를 직접 썼을 정도다.

### 던힐, 그라몬 안 돼~

없는데 있다고 뺑치고, 그라몬 안 돼~

<허위표시 제품>

<정정 제품>



IMAGE 공정위

브리타니아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판매한 '던힐 파인컷 멘솔(1mg)'에 허위표시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8일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필터에 숯이 안 들어갔는데 포장지엔 '숯필터(Charcoal Filter)'라고 표시했기 때문. 던힐은 앞선 2008년에도 담뱃잎에서 즐기는 배고 순 잎살만을 원료로 썼다고 허위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 담배에 관한 재미난 숫자

매일 입술 비비고 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5,500,000,000,000**

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담배는 약 5조 5천억 개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무역 거래되는 단일 품목도 바로 담배다. 1년에 약 1조 개비가 거래된다.



**1,000,000,000**

전 세계 흡연자의 수는 약 10억 명. 2013년 1월 기준, 세계 인구가 약 71억 명이니 7명 중 1명은 흡연자인 셈.

**1/4**

WHO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에 판매되는 담배의 약 25%가 밀수품이라고.



아아...백마들의 시대는  
이제 끝인 건가...

젠장, 나도 파랗게  
칠하면 되잖아!

## 2014년 청말띠의 해! 마초남의 필살 아이템!

드디어 2014년 갑오년 청말띠의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도 독자 여러분이 멋진 MAXIM 마초남 되시길 소망하며, 마초남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최고의 '청마' 아이템을 찾았으니... BY 정재식

→ 갑오년의 '갑(甲)'은 청색을, 일곱 번째 지지 '오(午)'는 말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2014년 새해는 그 이름부터 에너지가 뿜 치솟는 '청마의 해!'  
올해야말로 우리 같은 마초남들이 빛을 발할 최적의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청마처럼 단단하고 강한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럭키 아이템 '더원 임팩트'에 주목하라.

남자여! 청마와  
싱크로울 99.99%  
마초 행운 아이템  
더원 임팩트로  
받기찬 새해 맞으라!



**1 말 근육처럼 단단한 하드필터**  
말처럼 단단한 근육질의 사자와 모내기를 해도 좋을 광활한 등짝... 하지만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마초맨다운 꽃꽂한 정신력! 기세와 의리, 카리스마의 아이콘이자 마초맨의 롤모델인 관우는 마취 없이 독화살을 뿜고 뼈를 칼로 끊는 순간에도 신음 한 번 안 내고 태연히 바둑을 두었다! 이 얼마나 간지인가! 자고로 남자의 담배도 겉도, 속도 단단해야 한다. 오래 물고 있어도 침에 젖거나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담배가 좋겠지? 더원 임팩트의 하드필터처럼 말이다.



**2 청마처럼 강한 청색 팔각 패키지**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은 다르겠지만 남자의 컬러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청색'이다. 페라리 엔진 같은 역동적인 에너지의 상징 '말'에 남자의 색 블루를 더한 '청마'라니, 말 중에서도 남자답기로는 이 녀석이 단연 갑이다. 짹짹 갈라진 근육과 근사하게 솟은 골격을 가진 푸른 말은 강인하고 단단한 청색 팔각 패키지를 가진 남자의, 남자를 위한 담배 '더원 임팩트'를 연상시킨다.



**3 말 눈처럼 크고 초롱초롱한 홀로그램**  
이 세상을 통째로 삼킬 듯한 패기와 기개가 담긴 남자의 눈은 이글이글

빛나는 게 당연지사! 마치 말의 눈망울처럼 큼직하고 불링블링해야 그 강렬함은 더욱 압도적일 터. 더원 임팩트 패키지에 강렬하게 박힌 홀로그램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로 그녀를 유혹해 보자. 당신의 눈빛에 홀랑 빠진 그녀가 먼저 일출을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면? "일출? 글썄, 볼 수 있겠어? 해 둘 때까지 난 날 가만히 두지 않을 생각인데."



HEATHER GRAHAM  
THE ULTIMATE HANGOVER CURE



→ 롤러걸, 섹시 스파이, 스트리퍼까지... 배우 헤더 그레이엄이 연기한 캐릭터는 이렇게나 다양하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할리우드 여배우와의 짜릿한 판타지를 꿈꿀 때마다 나타나는 여인은 언제나 그녀다!

by  
**JULIAN STERN**

photographs by  
**JAMES MACARI**





브라  
La Perla  
목걸이  
Dana Rebecca

→ 헤더 그레이엄이 처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1988년 청소년 코미디 《License to Drive》에서 남자 주인공의 짝사랑 상대로 등장했을 때다. 20년이 훌쩍 지나고 그녀는 영화 《스윙어스》부터 《부기 나이트》, 《오스틴 파워》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에 출연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낳은 코미디 영화 《행오버》 1편과 2편에서 스트리퍼 제이드 역을 맡았던 그녀는 지난해 《행오버3》에도 등장해 라스베이거스를 다시 뜨겁게 달궜다. MAXIM이 그녀를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합방을 하고 왔으니...

**《행오버》에서 당신이 연기한 ‘제이드’는 병신 같은 남자 주인공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해결사 스트리퍼다. 제이드를 다시 연기한 기분이 어떤가?**  
《행오버》 감독에게 3편을 찍는다는 기쁜 이메일을 받았을 때부터 완전 흥분 상태였다! 모두를 다시 만나니 정말 좋았다. 동창회 같달까? 물론 예전과 분위긴 좀 달랐다. 1, 2편이 워낙 대박이었으니까 다음 때같이 달라졌지.

**주인공 4인조와 《행오버》 스타일 만취 파티를 즐기나?**  
나는 술을 못 마신다. 음,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안전한 것 같다.

**《행오버3》의 대본은 할리우드 일급비밀이었다던데, 입이 근질근질했겠다.**  
제작진이 처음에 대본도 못 읽게 했다. 모든 것이 극비사항이었다!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강박증 환자들처럼 전전긍긍했다. 마치 CIA에게 감시 당하는 기분이었다.

**제이드가 전편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180도 확 다르다. 내 캐릭터는 완전히 달라졌고 처한 상황도 아주 다르다. 참고로 이제 제이드는 스트리퍼가 아니다.

**당신은 전에 “제이드가 임신을 하고 랩댄스를 춘다면 재밌겠다!”고 한 적이 있다.**

여전히 하고 싶다! 진짜 재밌을 거 같지 않나? 이걸 못 해봐서 정말 아쉽다.

**거기 출연진들이 워낙 웃긴 사람들이라, 촬영장에 함께 있다보면 웃음을 못 참는 순간이 많겠지?**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일이 계속됐다. 한 장면에서 6번이나 웃다보면, 그건 이제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지.

**《행오버3》의 홍보 문구는 “이제 끝이다(It ends)”인데, 정말 끝인가?**  
그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 한 5년 후에 감독이 “술술 돈 좀 벌어볼까, 이번엔 번 건 다 써버렸는데!”하고 손을 댈지도 모를 일이지. 하지만 그가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진짜 돈을 많이 벌었거든.

**파티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저저른 미친짓 하나쯤은 있겠지?**  
난 별로 라스베이거스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파티보단 하루에 세 시간씩 요가를 하는 스타일이랄까.

**여자 피려고 요가 수업을 듣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차츰 요가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겠지. 만약 예민한 남자라면 기량을 감추느라 근육을 치를 거다. 요가 교실에 딱 달라붙는 운동복 차림의 섹시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기 나이트》에서 당신이 연기한 롤러걸은 정말 끝내줬다. 그이후로 스케이트를 신어본 적 있나?**  
몇 년 전 롤러장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에 스케이트를 신고 참석했다가 넘어졌다. 파티에 있던 누군가 “세상에, 롤러걸이 나자빠졌네!”라고 소리쳤다. 사실 우리 집 선반에는 《부기 나이트》를 찍고 받은 롤러스케이트가 있는데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다. ☹

수영복  
Herve Leger  
H 모양 팔찌  
Heather Belle Co.  
팔찌와 반지  
Cresta Bledsoe

“  
요가 교실에 짝 붙은  
운동복 차림의 섹시녀가  
얼마나 많은데!  
”

악 반 영화  
(행오버)  
맞보기





➔ **Heather Graham**

헤더 그레이엄  
생일: 1월 29일

대표작: 《부기 나이트》, 《오스틴 파워2》, 《행오버》 시리즈  
취미: 요가, 요리  
좋아하는 계절: 여름  
특이 사항: 까블다간 골로 간다.  
아버지가 FBI 출신이거든.  
그녀와 친구가 되자:  
@imheathergraham

STYLING TARA SWENNEN OF THE WALL GROUP HAIR IAN JAMES OF THE WALL GROUP  
MAKEUP JO STRETTALL OF THE MAGNET AGENCY USING NARS MANICURE TRACEY SUTTER OF CLOUTIER REMIX USING ESSIE



# MAXIM Fan Page 5,000 Like Promise “We Like You, too”

페북 팬 페이지에 쏟아진 ‘좋아요’ 세례에 감동한 맥심 에디터의 선물 공약!

‘좋아요’ 누른 사람 중  
예쁜 여자도 많더라.  
흐헤흐헤



[www.facebook.com/maximkorea](http://www.facebook.com/maximkorea)



### MAXIM 페북 페이지 OPEN! 진작 할 걸!

온라인에서 에디터 서로간에 소소한 일상도 공유하고, 독자와도 노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지만, 사실 그간 MAXIM 한국판에는 공식 SNS채널이 없었다. 회사에서 안 만들어주니 어찌겠나. 그래서 보다 못한 편집부 에디터들이 얼마 전 페이스북에 ‘맥심 에디터’ 페이지를 짜치게 오픈했다. 그런데 웬걸? 소소한 취미가 무색하게 독자들의 폭발적인 ‘좋아요’ 세례가 쏟아졌고, 오픈한 지 24시간 만에 ‘좋아요’ 2,300개를 뚫더니 벌써 4,000 Like를 향해가고 있다. 댓글도 100개씩 달린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페이스북 팬 페이지를 운영해 온 국내 유명 남성 매거진들이 2~3년에 걸쳐 쌓은 것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하루이를 새에 돌파하는 걸 보고 MAXIM 독자들의 파워를 새삼 실감하고 있다.

### 그래서 준비했다! ‘좋아요’ × 5,000 공약

1월 중에 ‘좋아요’가 5,000개를 돌파하면 ‘좋아요’를 누른 독자를 랜덤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쏘겠다! 놀기 좋아하는 우리 독자들, 이 겨울을 더 신나게 놀라고 긴지 스노보드웨어 브랜드 Sugapoint 보드북 상의+하의 콤비네이션 13벌을 준비했다! (미달되면 멋쩍게 이벤트 접어야 하니 폐천 많이 초대해 주셈)



- 남성용(L): 447,000원 상당 × 8벌
- 여성용(M): 567,000원 상당 × 5벌
- ※ 보드북 디자인은 모두 다르므로 랜덤 발송이며,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직 안 끝났어!



맥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번 이벤트 게시물을 자신의 타임라인으로 공유한 사람 9명을 뽑아 연극 <코미디 넘버원> 티켓을 2장씩 뿌리겠다.

일시: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서울 종로구 동숭동 르메이에르 씨어터  
보드 안 탄다고? 걱정 마라!



모든 당첨자는 페이스북 ‘맥심 에디터’ 페이지에 발표합니다.

# Stuff

GEAR OF  
THE MONTH

## 위로 휘었다고 다 명기랴? LG G 플렉스

 똥줄이 타던 LG가 야심차게 준비한 G 플렉스 출시 한 달째,  
아무래도 망할(한) 것 같은 이 사생아의 운명은? BY 조용재





### SPEC CHECK

크기 81.6(짧은 축) x 160.5(긴 축) x 7.9(두께)mm  
 디스플레이 1280x720 HD Curved 플라스틱 AMOLED  
 칩셋 퀄컴 스냅드래곤 800  
 메모리 2GB  
 용량 32GB(외장 미지원)  
 배터리 3,500mAh(내장형)  
 출고가 99만 9,900원



→ 지난 10월, 삼성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플렉서블 스마트폰 '갤럭시 라운드'를 출시했다. 아래쪽에서 보면 U자형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이 기기는 사용자가 컵을 든 듯한 그림감을 느낄 수 있게 제작했다. 분명 '휨' 디스플레이는 맞지만, 힘을 가하면 굴렁거리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영 시답잖은 녀석이다. 반응이 어쨌든, 삼성이 먼저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상용화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LG는 한 발 늦게 'G 플렉스'라는 이름의 후발 주자를 내놓았다. 시작부터 삼성의 뒤통수에 강한 혹은 날렸는데, 광고에서 '갤럭시 라운드와는 달리 진짜로 휘어지는 폰'임을 강조하며 삼성 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대항마를 자청한 만큼 갤럭시 라운드와는 정반대로 휘어, 측면에서 보면 대가리와 엉덩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솟아 있다. "나는 위로 휘어진 명기야, 이 쓸모없이 안으로 한 새끼야!"라며 갤럭시 라운드를 비롯한 듯하다. 곧 LG는 휘어진 G 플렉스에 힘을 가하자 곧게 펴졌다 휘었다 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사람들은 "넌 그나마 진짜로 휘어지는구나"라며 G 플렉스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사실 G 플렉스에는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잔상 현상(한 화면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 잔상이 남는 현상)이다. 이는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제품'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자기 폰 허리를 꺾으며 히히덕대던 유저들은 멘붕에 빠졌다. LG는 G 플렉스에 자사가 제조한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TFT-LCD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다 해도, AMOLED 외길 5년의 삼성이 가진 기술력에 비할 바 아니다. 스시 요리사 요시다 쇼이 인도인 카심이 5대째 운영하는 정통 인도 카레 전문점 옆에서 카레라이스를 팔다니 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간만에 내놓은 혁신적인 제품에 낮은 성능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LG, 스마트폰 보는 눈이 이미 하늘만큼 높아진 소비자들이 거기에 만족할 리가 있다. 그렇다고 탈착형 배터리도 아니요, HD급 화질이 대세인 요즘 스마트폰 시장에 2년 전 출시한 갤럭시 2만도 못한 ppi(해상도)라니, 대체 무슨 깡이었을까. 이래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제품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 <무모한 도전>이 망하고, 오히려 유저들이 피를 보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첫 시도란 늘 그런 것이다. 🍌

## 디스플레이의 역사



### 1세대 - CRT

1990년대 초, 텔레비전 광고에서 우리는 '브라운관'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이 1세대 디스플레이 CRT로, 진공 상태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화면에 전자를 쏘아 빛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주로 볼록한 형태의 무거운 모니터 제품들이 이에 속한다. 제조 비용이 싸지만 전력이 많이 소비되며 화질은 LCD에 비해 좋은 편.



### 2세대 - LCD

1990년대 말, '평면 TV' 열풍이 불면서 LCD 방식의 디스플레이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CRT 제품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화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식탁만 한 화면 크기를 자랑하면서도 브라운관보다 가벼운 덕에 빠르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현재는 PC를 비롯해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TV가 LC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다.

휘어! 휘어!



### 3세대 - Flexible Display

그리고 2004년, 국내 제조사들은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유연한(Flexible) 디스플레이 개발에 착수한다. 하지만 아이폰이나 LG 기기가 자랑하는 선명한 TFT-LCD 디스플레이는 액정 아래에 유리 기판인 컬러 필터가 붙어 있어 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휘어짐에 강한 자체 발광 소자인 '아몰레드'를 탑재한 제품들이 하나둘 출시되는 중이다.

### 귀차니스트를 위한 참 괜찮은 제품 5

새해가 되어도 귀찮은 건 귀찮은 거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인생이 확 편해지는  
기어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BY 김희성



누가 내 팔  
질러줬나?



#### 가제트 팔

잠들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는데 불을 안 껐다!  
너무 귀찮은 나머지 일어날지 말지 고민하다 불을 켜놓고  
그대로 잠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가제트 팔만  
있으면 누워서도 불을 끌 수 있다. 손잡이를 당기면 평범한  
최막대기가 길게 늘어나 가제트 팔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집게 부분을 고무 패킹으로 처리해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좁아터진 공간 사이에 빠진 물건을  
꺼내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꽤 쓸모 있다.  
아, 침대와 벽 사이에 빠진 콘돔 찌꺼기를 꺼낼 때도 매우  
유용할 거다.

9,900원 / 브랜드발전소 / [www.newgood.co.kr](http://www.newgood.co.kr)



#### 30분 만에 마르는 속옷

혼자 살다 보면 제일 귀찮은 게 설거지와 빨래다. 빨래는 세탁기가  
일어서 해주긴 하지만 세탁기를 돌려놓고 까먹거나 잠드는 경우도  
부지기수. 제대로 안 말려서 선내 풀풀 나는 빨래를 또 돌리느라  
뽀송뽀송한 속옷이 하나도 없는데 썸너한테서 “오빠, 지금 뭐해?”  
라는 카톡이 왔다면 그야말로 멘붕이다. 오늘이야말로 거사를  
치를지도 모르는데 속옷이 죄다 빨래 바구니에 처박혀 있다니!  
이럴 때 ‘30분 만에 마르는 속옷’이 있다면 폼페이 최후의 날  
챗터미에서 구조된 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터다.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도 빨리 되는 ‘쿨론’ 소재를 적용해, 속옷을 빨아놓고  
사워를 하고 나오면 이미 말라 있는 기적을 보게 될 거다.

22,000원 / 크레이지본 / [www.crazyboneshop.com](http://www.crazyboneshop.com)



#### 일어서 저어주는 머그컵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붓고 저으려는데, 그 흔한 숟가락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  
설거지통에 모조리 들어가 있는 빌어먹을 순간이 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  
귀찮은 설거지를 해야 하다니! 그뿐 아니라 코요아나 미숫가루 같이 여러 번  
젓기에도 빠센 게 땡길 때 버튼만 누르면 일어서 내용물을 저어주는 ‘스티어링  
머그컵’은 그야말로 신의 축복과도 같은 발명품이다.

잘 저어 먹어도 늘 굵은 가루 덩어리가 컵 바닥에  
남아 목구멍에 막히기 일쑤였는데, 일어서 삭삭  
들려주는 요고 요고 참 물건이네그러.

22,000원 / 황금마차 / [www.goldcart.co.kr](http://www.goldcart.co.kr)

그런데 그걸  
지금 당신에게  
주려고 해





## 귀차니즘 안경

분명 퇴근길 지하철에선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피곤에 찼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정신이 말짱해진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썸녀에게 "자니?"라고 카톡도 날려보고 페이스북에 진지빠는 글도 써보고 웹툰을 정주행하다 잠이 들겠지. 그러는 도중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이리저리 바꾸느라 불편했다면 '귀차니즘 안경'이 딱이다. 광학유리 프리즘 렌즈로 물체를 반사시켜주니 당신은 정자세로 가만히 누워서 카톡을 보내고 포코팡이나 모두의 마블을 하고 TV도 볼 수 있다. 아아, 과학은 역시 위대해!

11,900원 / 지모 / [www.jimo.co.kr](http://www.jimo.co.kr)



## 맥주 마시는 모자

시베리아 벌판을 벌거벗고 거니는 것 같은 요즘 날씨에는 방구석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텀굴거리는 게 최고다. 여기에 맥주만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럴 때 맥주 마시는 모자가 있으면 손 하나 까딱 않고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자유로운 두 손으로는 신들린 컨트롤을 하거나 축구를 보면서 치킨을 뜯으면 된다. 머리가 커서 평생 맞는 모자를 써본 적이 없다고? 걱정 마라. 머리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밴드도 달렸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모자와 컵 홀더를 분리해 배송하기 때문에 귀찮게 직접 조립해야 한다는 거... 맥주 꺼내러 가기도 귀찮아 하는 사람이 이걸 펍이나 제대로 하겠다.

16,700원 / 스투피드 / [www.stupid.co.kr](http://www.stupid.co.kr)



Stuff

Ultimate Toy



만화 <진격의 거인> 레고판 디오라마

## 진격의 레고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아는 캐릭터가 보일 거다. 디테일 짙어.

BY 유승민 PHOTOGRAPH Oh!

### Collector's Profile



(왼쪽부터)

최담백(본명 최동원): 레고 미니 피규어 몸통, 얼굴 디자인  
 제로(본명 이한민): 피규어 커스텀 및 가공, 제작, 도색, 마감  
 단테(본명 백대현): <진격의 거인> 디오라마 구성 및 제작

카페 브릭나라에서 활동 중  
 (cafe.naver.com/bricknara)



조사병단의 물놀이 한지 분대장 (편집장님과 비슷)

기행중인가!



지난 달, <슬럼 덩크>보다 더 놀라운 걸 들고 나오겠다고 했을 땐 솔직히 믿지 않았다. 레고판 <진격의 거인>을 이 크기로 커스텀한 건 이들이 세계 최초란다.

**<진격의 거인>을 위해 저 거대한 거인형 레고는 따로 제작한 건가?**

아니다. 원래 있는 거다. '레고 후레쉬'라고, 20cm 크기의 레고 인형 모양으로 나온 LED 손전등이다. 거인 복근 부분 잘 보면 버튼이 있고 불빛은 발 밑에서 나온다. 국내에선 4만 원 정도 한다.

**그렇군. 항상 그렇게 기준에 나와있는 순정 레고 부품만을 사용하는 건가?**

가능한 한 레고에 있는 걸 쓰려고 하지만 정 없는 건 퍼티로 모형을 쓴다.

**건프라(건담 프라모델)도 좋아한다면? 그와 비교했을 때 레고의 매력은?**

건프라를 제대로 하려면 도색까지 해야 하지만 하지만 레고는 조립만으로 완성! 후가공이 필요없다는 게 매력이다.

**레고에서 <진격의 거인>을 실제로 상품화해도 불티나게 팔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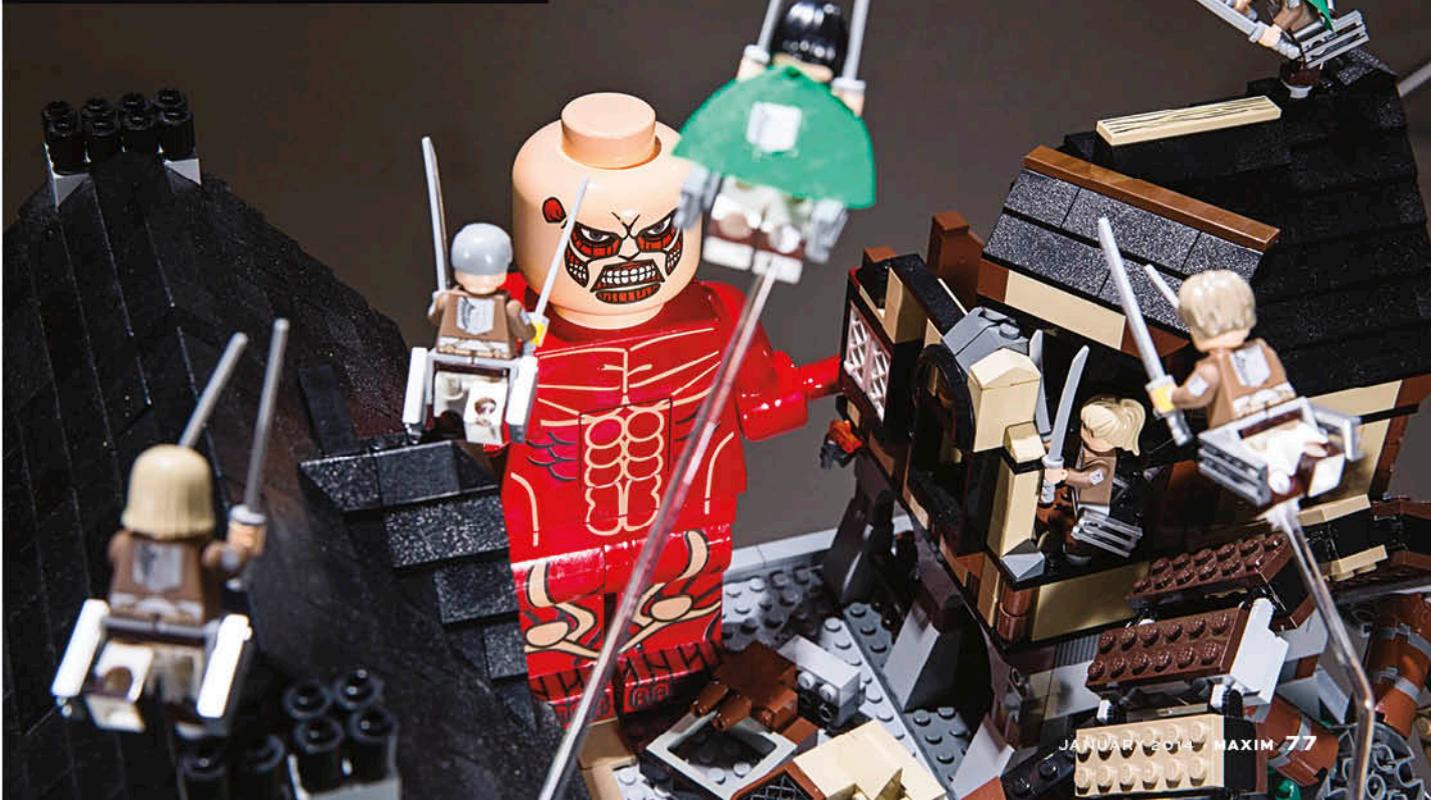
많은 작품들이 상품화되고 있다. 예전엔 <스타워즈> 정도가 다였는데 지금은 레고에서 <어벤져스>, <아이언맨> 등의 라이선스를 따서 많이 만들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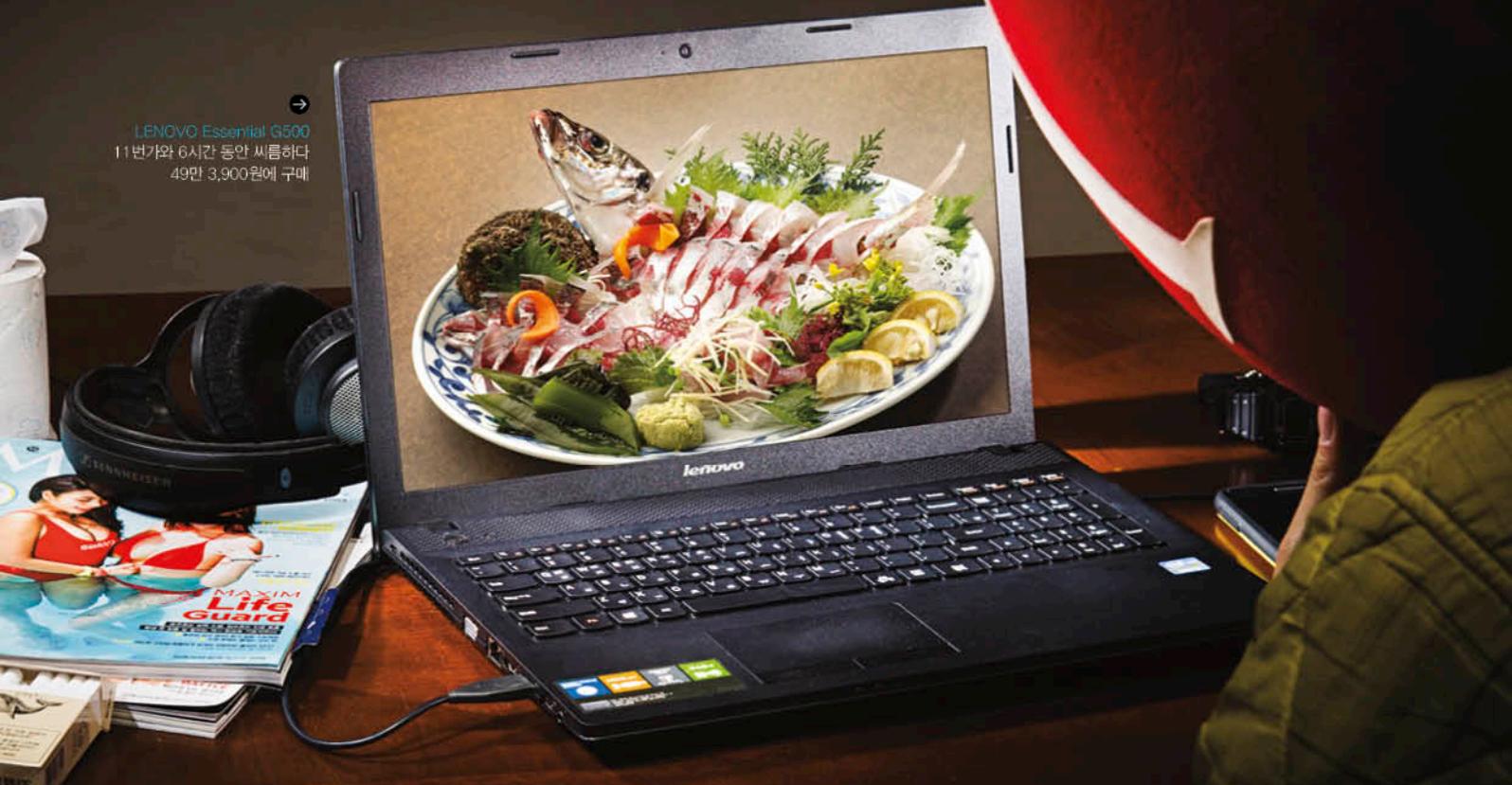
조사병단의 상징인 '자유의 날개' 문양을 망모에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조사병단 최강 여전사 미카사 아커만이 '입체기동장치'를 이용해 날아들고 있다.



→  
LENOVO Essential G500  
11번가와 6시간 동안 싸름하다  
49만 3,900원에 구매



### 그거 왜 샀어? #13

 이 추운 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지름신을 이기지 못한 MAXIM 편집부의 돈지랄 이야기. BY 조용재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 LENOVO Essential G500

 뭐야, 승민 선배 노트북 또 샀어요?  
 응. 심심해서 다나와 뒤지고 있는데 5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올라와 있더라고, 싸길래 하나 질렀지.  
 와... 선배는 레알 지름의 아이콘이네요.  
 내가 막 지르는 것 같아도 밤 12시까지 눈갈 빠지게 찾다가 구한 거야. 이 가격대에 이런 스펙은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 동급 노트북 찾다 보면 심한 경우 100만 원까지 하니까.  
 그래요? 저도 전에 노트북 하나 지르려고 찾아보니까 30만 원대에서도 괜찮은 거 많던데. 혹시 낡긴 거 아니에요?  
 그거 클릭해봤나? 무슨 '쇼킹 딜', '오늘만 특가' 같은 말로 꺾어서 개 쓰레기 같은 물건

파는 웅팔이 새끼들 엄청 많아. 괜히 낚이면 안 돼.  
 그래서 낚였잖아요. 제가 산 것도 레노보였는데, 이걸 디자인이 더 구리네요?  
 레노보에 디자인이라는 게 있더냐. 정말 레노보가 색상이랑 디자인만 조금 괜찮았어도 노트북 시장을 쓸어버릴 수 있을 텐데 허구한 날 시커멓게만 나오니... 이게 노트북이냐, 지리냐?  
 근데 일주일 전에 택배 받았잖아요. 왜 이제 뜯어요?  
 시발, 이거 받아마자 두근두근 뜯어서 OS 깔고 드라이버 다 잡고 세팅 좀 하려는데, 계속 와이파이가 버벅대는 거야.  
 그럼 아예 인터넷이 안되는 물건이예요? 진짜 쓰레기네?  
 아니, 아예 와이파이가 안 잡히면 내가 병신이라 설정을 잘못했나 했을 텐데 이게 멀쩡히 인터넷이 되다가 한 5분 있으면 끊기고 지랄이더라고.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이 사람들도 나를 병신이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새로

까는 법만 알려주더라. 그래서 다음 날 서비스 센터로 보냈는데 랜 카드 불량이라면서 교체해서 보내주더라고. 결국 산 지 1주일 만에 쓰게 됐지.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가요?  
 생생 돌아가지. 우측에 넘버패드(숫자키)까지 다 있는 풀 사이즈 102키짜리라 편하지. USB 3.0에 하드도 1테라짜리라서 충분한 한데, 워솔직히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에게 1테라는 좀 부족하지?  
 도요할 풀 HD 시리즈가 4기가 정도니까... 한 250개? 아, 좀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 같은 호색한 말고 게임이나 무거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에게겐 좋은 선택이 되겠지. 거기에 불량 제품을 받아 고객 센터에 연락했는데 병신 소리를 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거야.  
 선배의 참는 스킬은 정말 존경스럽네요. 지금이라도 AV 배우 쪽으로 나가 보세요.

## FISH & FANCY 물고기 필통

**아오** 비린내! 편집장님 지금 생선 배때기에 뭘 넣고 계신 거예요?

**오버하지 마** 이 새끼야. 이거 필통이라고. 필통에 뭘 넣고 있잖아!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런 비린내 날 것 같은 물건은 왜 사셨어요?

**얼마 전에** 경영자원팀 비서 석영 씨가 고딩들이 이걸로 생선 가게 놀이 하는 영상을 보여줬거든. 고등어 손질하는 학생의 유려한 손놀림에 반해서 질렀어.

**근데** 하필이면 왜 고등어를... 좀 간지 나는 건 없었나요?

**광어랑** 우럭도 있더라. 광어는 지퍼가 달려 있어서 화장품이나 간단한 소품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

**근데**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진짜 놀라겠어요. 요 광어 디테일이 진짜 죽이네요.

**사실** 너무 리얼해서 첫인상은 좀 징그럽지. 안쪽을 펼쳐 보면 고등어 살이랑 뼈가 세밀하게 프린팅돼 있어서 비린내가 날 것 같지만,

'내장은 다 빼서' 보내준 덕에 비린내는 안 나더라. 근데 이거 필통 주제에 1만 4천 원이야. 형강 필통 치고는 비싸지. 나도 이거 사고 사실 너한테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 나이 서른 넘어서 이런 거 샀다고 했다가 날 저능아로 볼 것 같아서.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어머니한테 싸대기 맞겠죠?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 식탁 위에 필통을 놔뒀더니 엄마가 와서 "왜 이거 방동실에 안 넣느냐?"라고 했다는...

**브랜드가** '피시 앤 팬시' 라니... 만든 사람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네요.

**나도** MAXIM 편집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여기서 별별 물건을 다 만들겠네요.

**이게** 괜찮게 팔렸으니 후속작이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참치 머리 파우치', '킹크랩 등 굽개', '멸치 라이터'... 멸치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지.

**저는** '말미잘 오나루' 나오면 살게요. 따뜻하게 담아서... 해해...



**FISH & FANCY**  
물고기 필통  
11번가에서  
싱가에 구매  
...는 아니고,  
고등어 13,400원,  
광어 14,900원



**LUMINARC World**  
Drinks Experience  
칵테일 셰이커  
회사 앞 버록시장에서  
3천 원에 증정 구매

## LUMINARC World Drinks Experience 칵테일 셰이커

**깜짝이야!** 진옥 선배, 지금 뭘 흔들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오거? 칵테일 셰이커야. 요 앞에 버록시장에서 하나 샀어.

**병에** 정신없이 뭐가 그려져 있네요?

**이게** 이 컵의 포인트야. 웅재 씨는 술을 잘 안 마셔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려진 선에 맞춰서 음료를 섞어 넣으면 피나 콜라다, 마가리타, 모히토 같은 칵테일을 인터넷 찾아볼 필요 없이 혼자서도 만들 수 있지. 엄청 편하다고.

**저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컵이네요.

**뭘** 잘 모르나 본데, 집에 여자 끌어들이면 꽤

유용해. 재료만 좀 사다 놓고 "2차는 오빠네 집에 가서 카테일 한잔 할래?"라면서 피어내는 거지. 나는 주로 마가리타를 이용해. 도수가 꽤 높거든.

**선배** 여자 친구 있지 않아요? 용도가 좀 의심스러운데.

**하하**. 사실 농담이고 내가 마시려고 산 거야. 나 술 좋아하는 거 알잖아.

**루미나크**라는 회사 제품이네요. 여기 락앤락 같은 용기 회사 아닌가요?

**응**. 루미낙이라고 읽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역사가 깊은 세계적인 용기 제조 회사더라고. 프랑스의 행남자기 같은 거랄까?

**근데**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요? 아예 유리병인데요?

**그게** 좀 문제야. 일반 세이커처럼 스테인리스 재질이면 여기 그려진 용량 맞추는 선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괜히 감치면서 이리저리 던지고 세이킹을 하다 떨어뜨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역시** 말처럼 위아래로 세이킹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특히 오른손으로 말이예요.

### GEE LIFE 캐주얼 코타츠 KTT-75

**웅재씨**, 혹시 일본 드라마나 만화 많이 봐?

**아뇨**, 저는 덕후가 아니라서...

**아**, 그럼 잘 모르겠네... 아쉽다~ 나 이번에 코타츠라고...

**정확한** 발음은 '고타츠'입니다. 난방용 테이블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응!** 그래! 아무튼 그거 있잖아, 막 일본 드라마 같은 데서 TV 보면서 안에 들어가면...

**굴**을 까먹고 하죠. 이런 걸 안다고 덕후는 아닙니다.

**맞아** 맞아. 얼마 전에 그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아서 샀거든. 처음엔 작은 테이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블랙홀이 따로 없을 정도야. 한 번 몸을 들여놓으면 빠져 나오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끝내 천근 같은 눈꺼풀을 버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지.

**근데** 선배, 테이블 색이 너무 한정판스러운거 아녜요? 고타츠 아래에서 루돌프 나오겠어요.

**크리스마스** 느낌 내고 싶어서 고른 거야. 이불은 사이트에서 별도로 6~7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어.

**내구성**은 어때요? 위에 올라가서 자도 될 정도인가?

**아니...** 다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 튼튼해 보이지는 않아. 저가형이라 그럴 거야. 아쉽네요. 고타츠 후배위 같은 걸 생각했는데.

**하긴** 웅재씨는 싱크대도 침대로 쓸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전기요금 엄청 나오지 않아요? 열과 함께 돈도 증발해버릴 것 같은데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달 내내 중일 틀어놔도 전기요금은 1만 원 정도 더 나오는 수준이야. 히터를 '강'으로 틀고 있어도 시간 당 60원 정도밖에 안 나가. 다른 난방 기구들보다 훨씬 싸지. 웅재씨도 관심 있으면 사이트 알려줄까?

**저는** 관쟁이요. 미소녀 배...아니, 안고 자는 따뜻한 베개가 있거든요. ☺



GEE LIFE 캐주얼 코타츠 KTT-75  
www.geelife.co.kr  
고타츠 테이블 116,000원  
+ 클리어 레드 이불 74,000원  
+ 비싼 배송비 6,000원  
= 총 196,000원에 구매

### 내가 더 잘 샀어!

같은 가게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지른 두 호구의 자존심 대결!

알리 어답터라 쓰고 호갱이라고 읽는다.

**조용재 에디터**  
갤럭시 노트 3

**손안나 에디터**  
베가 시크릿 노트

스펙	스냅드래곤 800에 1,300만 화소 카메라. 3GB 램을 자랑하지.	카톡 되고 포코팡만 되면 좋은 거 아냐?
노트	명불허전 S펜! '모나리자'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펜이 너무 구리고 마찰이 심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보안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쓰면 뿔테만 써도 아무나 다 풀리더라. 젠장!	지문 인식 기능과 시크릿 박스 기능으로 폰을 두 개처럼 쓸 수도 있다.
가성비	비싸게 산 건 인정한다. 저는 영원한 삼성의 호구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최강이다. 팬택 사장이 미쳤어요!

# MAXIM 봄부질

방안에서 꿀이나 까먹으면서  
애네하고 놀자

## 블루투스로 널 컨트롤 해주겠어, 로지텍 m557 출시

문어발처럼 이놈 저놈 다 엮어주는 마우스가 있다. 로지텍이 출시한 m557은 PC와 MAC 두 PC의 호환이 기본에 윈도우 8 태블릿까지 블루투스를 이용해 연결할 수 있는 마우스. 셋포인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의 버튼에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스크롤 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8 인터페이스가 쉽게 전환된다. 끊임 없는 움직임과 최대 12개월의 긴 배터리 수명은 돌쇠의 힘을 연상시킨다. 마님~ 어떤 폴더를 열어볼까요? 네? [마님은 돌쇠에게 쌀밥은 왜 주었나] 폴더요?!

64,900원, 로지텍코리아(www.logitech.com)



## 고화질 액션 캠 eGO Cam (이고캠) 선보이는 에이모션

이제는 자전거에 캠 달고 로드무비를 찍는 시대다. 패션 자전거 전문 업체인 에이모션이 이번엔 겨울철 레저 스포츠를 겨냥해 액션 캠 이고캠을 판매한다. 엄지손가락만큼이나 작은 이고캠은 75g으로 가벼워 어디든 쉽게 부착할 수 있어 휴대하기 좋고 Full HD급 영상을 2시간까지 녹화할 수 있다. 넓은 화각의 렌즈가 탑재되어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영상을 담을 수 있다. 또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고 SNS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다. 이거 완전 자전거용 블랙박스네?! 20만 원대, 에이모션(02-2106-5448, www.anmbike.com)



## 화면도 디자인도 깔끔한 ACER ASPIRE S7-392

일반 HD 해상도보다 4배나 선명한 WQHD 고해상도 스크린을 장착한 에이스어스피어 S7-392 울트라북이 출시된다. 뛰어난 색감과 화질로 생동감 넘치는 영화감상은 물론 그래픽 작업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8GB 메모리, 인텔 HD 4400 내장 그래픽, 128GB SSD를 탑재해 우사인 볼트만큼 빠른 처리속도가 돋보인다. 인텔의 4세대 코어 프로세서 i5-4200U와 i7-4500U를 탑재한 2가지 모델로 출시 예정. 올해도 새해 선물로 나에게 선물하자!

1,599,000원(i5 탑재모델), 1,799,000원(i7 탑재모델), ACER(www.acer.co.kr)

## 소니, 블루투스 스포츠 헤드셋 MDR-AS700BT 출시

소니에서 목에 착용할 수 있는 밴드 디자인으로 운동할 때도 착용감이 뛰어난 헤드셋 MDR-AS700BT 모델을 출시했다. 방수 성능으로 땀으로부터 자유롭게 분리형 이어쿠션을 넣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8대의 기기와 호환이 되고 오디오 기기와 스마트폰 2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또 버튼 하나로 음악 컨트롤과 핸즈프리 통화도 가능하다. 특히 1시간 30분의 짧은 충전만으로 최대 9시간 동안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다. 나도 이 녀석처럼 잠깐만 자도 체력이 풀 충전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나는 늙고 병들어...

119,000원, 소니스토어(store.sony.co.kr)



## 애플만을 위한 벨킨 MIXIT(믹스잇) 충전+싱크 독

애플 제품을 동기화할 수 있는 귀여운 충전 거치대 벨킨 믹스잇 충전+싱크 독이 출시됐다.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를 위한 익스프레스 충전+싱크 독과 아이폰 5시리즈를 위한 충전+싱크 독 두 가지로 선보인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감상 중인 음악, 동영상을 멈추지 않고 충전하며 안정적으로 거치도 할 수 있어 페이스 타임에 활용하기 좋다. 아이폰 5시리즈를 위한 충전+싱크 독은 5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자신의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이제 눕혀서 못지않고 앉아서도 꽃아봐. 데헛, 79,000원(익스프레스 충전+싱크 독), 48,500원(충전+싱크 독), 한국 벨킨(02-2088-7305, belkin.com/kr)

# Style

## Gold vs. Blue

금색 시계를 찬 남자는 신중해 보이고, 파란색 시계를 찬 남자는 자유로워 보인다. 당신의 선택은?

**1. 케네스 콜 뉴욕 파워드 바이 유**  
수익의 일부를 에이즈 연구 재단에 기부하는 착한 시계. \$250, kennethcole.com

**2. 몬테그라파 네로우노**  
이탈리아의 만년필 명가에서 신사들을 위해 시계를 내놓았다. \$1,450, montegrappa.com

**3. 태그호이어 까레라 1887**  
태그호이어는 일각을 닦는 레이싱 경기의 공식 계측시계로 명성이 자자하다. \$6,200, shop.tagheuer.com

**4. 스와로브스키 피아자 그란데**  
크리스탈 브랜드답게, 우아한 동시에 남자다운 매력을 가졌다. \$900, swarovski.com

**5. 티쏘 럭셔리 오토매틱**  
오토매틱 방식 시계 중 사상 최장인 80시간의 동력 비축 시간을 자랑한다. \$995, tissotshop.com

**6. 론진 콘퀘스트 클래식**  
안전한 생김새와는 달리 57갑까지 방수되는 특이한 녀석. \$3,950, shop.us.longines.com

**7. 익스프레스 스테인리스 스틸**  
속도를 쫓 수 있는 타카미터와 스톱워치 기능이 크로노그래프가 장착된 유용한 제품. \$168, express.com

**8. 부로바 프리시저니스트**  
건강지로 가는 퀵츠 방식 중 드물게 초침이 물 흐르듯 움직이는 스텝 세컨드 시계. \$750, macys.com





**9. 세이코 키네틱**  
 오토매틱 방식으로, 24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춰 에너지를 아끼고, 다시 차면 현재 시각을 알아서 찾는 영리한 시계. \$275, sears.com

**10. 불가리 디아고노 칼리브로**  
 불가리를 대표하는 스포츠 시계 라인. 캐주얼하지만 불가리 고유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12,800, bulgari.com

**11. 라도 하이퍼크롬**  
 세라믹으로 만든 견고한 케이스가 특징이다. 스크래치 걱정은 넣어 두라! \$4,600, radoshop.com

**12. 게스**  
 세련된 도시 남자의 손목을 빛낼 스테인리스 시계. \$115, guesswatches.com

**13. 모바도 시리즈 800**  
 정오를 의미하는 12시 방향의 동그란 점이 포인트! \$950, movado.com

**14. 파슬 레트로 트레블러**  
 60년대 클래식 스포츠 시계를 완벽히 재현했다. \$135, fossil.com

**15. 닉슨 센트리 SS**  
 심플해서 더 매력적인 닉슨의 야심작. \$200, nixon.com

**16.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42**  
 1,500m 방수가 가능한 다이버 시계. \$3,290, breitling.com



## 해맞이 목욕재계



송구영신의 1월, 지난 1년간 더러워진 네 육신을 씻어줄 목욕제이니  
 꼼꼼히 따져 잘 택해서 씻어라. 그래야 올해에 또 잔뜩 더럽히지. BY 유승민 MODEL 에디터 김희성

모델을 싫은 거야?



### 1 SWAGGER 스나이퍼 더블킬

용량: 275g / 가격: 25,000원  
 보디워시+샴푸를 겸한다고 '스나이퍼 더블킬'이라는 격한 이름을 붙였다. 사용 후 물로 씻어내도 미끈미끈한 게 몸에 남는다. 아아 보습 성분이겠지만 잔여물이 남은 듯한 느낌을 싫어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남자의 향 샤워젤하면 이제 스펀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위의 암컷에게 좀 더 골똘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향수를 뿌려본 적이 있나? 향수는 주로 손목이나, 귀 뒤 같은 국부에 뿌리지만, 향 샤워젤을 쓰면 당장은 머리 끝부터 불일 밀까지 온 몸에서 남성이 터지는 향을 은은하게 풍길 거다. 그녀에게 당당하게 오를을 해달라고 내밀어라. 그녀 기억 속에 당신의 육신틱은 진한 머스크 향으로 남을 거다(그래도 거기에 향수는 뿌리지 마라. 여자가 먹는 부위잖아).

### 2 BURT'S BEES 내추럴 스킨케어 포맨 바디워시

용량: 350g / 가격: 27,000원  
 '내추럴 스킨케어 포맨 바디워시'라니 이름이 무지하게 길다.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다. 우리말로 하면 '자연스런 피부관리 남자용 몸씻개'니까. 버츠비...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 직접 한 번 써보고 싶었는데 촬영만 하고 제품을 바로 반납하란다. 비싼 거라 그런가보다. 그래서 써 보지를 못했다. 미안하다. 냄새만 맡아봤는데 향은 좋다. 베르가못이 함유되어있어 지성 피부에 특히 좋다...고 제품 정보에 쓰여 있다. 투명한 용기에 담겨있는 내용물의 색깔만 보면 오줌을 담은 병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앤지 모르지만 표면에 거품도 항상 꺼 있다) 애가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제품이란단. 해바라기, 코코넛, 콩 단백질, 레몬, 감귤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먹어도 되죠?

### 3 MALIN+GOETZ 베르가못 바디워시

용량: 236g / 가격: 25,000원  
 순한 천연성분, 저자극을 표방한 보디워시다. MAXIMI가 추천 4개의 제품 중, 요 녀석은 일단 외모부터가 가장 청순하게 생겼다. 제품명 자체가 아예 '베르가못'인데, 앞서 버츠비 제품에도 들어있던 베르가못이 대체 뭐냐고? 피부 트러블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꽃 식물의 일종인데, 여드름 치료에 특히 좋단다. 써 보니 향이 마치 욕실 세정제와 흡사하다. 그 있잖아? '홀스타'라고... 가격도 버츠비 다음으로 비싼데, 샤워하는 내내 욕실 세정제로 몸을 닦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었다. 전에 보디워시가 다 떨어져 조카의 아기피부용 제품을 썼을 때 비슷한 향이 났던 걸 떠올리면, 화학적 향료가 없는 순한 저자극 제품에서 주로 이런 냄새가 나는 듯 하다. 당신의 피부가 은근히 예민하고 약하다면 이걸 추천한다.

### 4 AXE 딥 스페이스 샤워젤

용량: 400ml / 가격: 9,900원  
 색시하고 재치있는 남성상을(나잖아) 추구한다는 점, 여자 좋아하는 샤워젤과 보디 스프레이가 유명하다는 점에서 스펀지와 충돌하는 경쟁 브랜드다. 써 보고 느낀 장점은? 앞서 쓴 스펀지에 비해 물로 씻어낸 뒤 잔여물이 남은 듯한 미끈거림이 없다는 것. 향도 더 진하고 오래간다. 이걸로 샤워를 했더니 몸뿐 아니라 욕실에서도 계속 이 향이 난다. AXE 측은 이 제품의 효능이 '그녀의 우주 속 침투'라고 공언한다. 효과가 없진 않은 것 같다. 밑에 어리고 예쁜 어시스턴트가 하나 있는데 그녀도 이 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앤지 만능 스포츠맨에게서 이런 향이 날 것 같아요!"하며 이거 자기 달라고 했다. 족다. (제길, 어떤 놈 씻길라고...) 가격 하나는 진짜 착하다! 그런데 왜 엔지오일 통에 담아 파세요? 🐼

# Watch out!

## 강한 만큼 따뜻하다. 조르지오 페론 1919 스포츠 유틸리티 GFAV002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날카로워질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위치가 출시됐다. 조르지오 페론 1919의 스포츠 유틸리티 GFAV002는 강렬한 검은색 문자판과 오렌지 색상의 가죽 밴드가 돋보이는 위치다. 또 강렬한 빨간색의 초침은 조르지오 페론 1919만의 엷지를 표현했다. 크로노그래프와 100M 방수뿐 아니라 가죽 밴드까지 방수 처리되어 실용성까지 뛰어나다. 코트 소매 밖으로 흘러나온 GFAV002로 네가 얼마나 센스 있는 남자인지 보여주란 말이야

340,000원,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http://www.eurotime.kr))



## 난 사다리꼴이다. 이세이 미야케 Trapezoid SILAZ001

톡톡 튀는 매력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Trapezoid SILAZ001 모델은 부등변 사각형에서 착안한 개성 넘치는 측면 디자인으로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또 베젤 측면에 거꾸로 각인된 타키미터는 정면으로 봐야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반전을 주었다. 특히 자동차 계기판처럼 디자인한 다이얼은 남자들의 소유욕을 불타오르게 한다. 시계와 똑같은 사다리꼴 디자인의 박스에 담긴 SILAZ001. 엄마에게 세뱃돈 대신 당당하게 요구해 보자. 처맛아도 우리 책임은 아니...

750,000원, 삼정시계(02-511-3182, [www.isseymiyakewatch.co.kr](http://www.isseymiyakewatch.co.kr))



## 우아하고 편리하다. 자스페로 투파토레 아쿠아 프로폰데 TG101-03

자스페로의 투파토레 아쿠아 프로폰데(Acque Profonde) TG101-03 모델은 고급스러운 다이얼과 가독성 뛰어난 시침을 넣어 안정감과 기능이 돋보인다. 용두 옆에 적용된 플라이 커버는 버튼을 덮어 200m 방수 기능에 완벽을 더했다. 올 매트 타입의 밴드와 베젤이 돋보이며 속도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가 새겨졌다. 시계 뒷면의 특수 스테인리스 스틸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어서 이리 오너래 한번 차보자꾸나~! 얼췌

697,000원,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http://www.zaspero.co.kr))



##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아뉴투스 AR609SNN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계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시계다. 그리고 얼마 전 아뉴투스가 미래에 태어날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만큼 멋진 오토매틱 시계 AR609SNN을 출시했다. 다이얼 위에 연도와 월이 표시되는 Year&Month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톤을 다르게 한 톤온톤 스타일의 화색빛의 인덱스와 스트랩으로 독특한 감성을 담았다. 무반사 코팅 글라스와 50m 방수 기능. 기능까지 완벽한 아뉴투스 AR609SNN! 나중에 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계 물려주면 말한테는 무엇을 주지? 음...밑은 스탠리?! 558,000원, 글로벌타임(02-778-1590, [www.globaltime.co.kr](http://www.globaltime.co.kr))



## 당신 손목이 호강한다.

### 헬다이버 SB2C-2001BKRG

마음도, 옆구리도 시린 겨울. 그래도 손목만은 헬다이버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 줄 것이다. 흰 눈 내리는 겨울 날, 새무가죽 밴드가 돋보이는 헬다이버 SB2C-2001BKRG 차고 맛을 뽐내보자. 블루 코팅 미네랄 글라스와 무광 스테인리스 스틸 용두, 무광 베를로 고급스러운 멋이 살렸다. 날짜, 24시, 요일을 확인할 수 있고 5기압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춰 기능성도 높였다. 고민하는 순간 이놈마저 다른 수컷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 연애나 자름이나 인생은 타이밍 아니겠나!

189,000원,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http://www.helldiverwatches.com))



## 우린 이란성 쌍둥이다. 제이스프링스 BFJ004, 005

판박이처럼 닮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 반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닮은 이란성 쌍둥이가 있다. 그런 미묘하게 닮은 이란성 쌍둥이 위치 제이스프링스 BFJ004와 BFJ005가 출시됐다. 같은 검정 문자판에 같은 디자인의 인덱스에서 이 둘의 미묘한 닮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BFJ004는 우아한 골드 색상과 가죽 밴드를, BFJ005는 스포티한 주황색에 나토 밴드를 적용해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왼팔, 오른팔 하나씩 차고 다니면 간지 폭발, 혹은 무얼 살지 고민된다면...다 새

260,000원, 성원(02-3445-4603)

# Style news

##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 한땀 수놓아 만든 W173 카페 슈즈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안토니 모라토의 W173 카페 슈즈를 소개한다. 안토니 모라토의 W173 카페 슈즈는 MADE IN ITALY 슈즈만의 타협하지 않은 고집이 느껴지는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색감이 가죽 본연의 그윽한 맛을 살려준다. 또한, 가죽 소재 자체의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신을수록 멋이 더해지는 아이템이다. 어떤 스타일의 패션에도 잘 어울리고 다리까지 길어 보이게 하는 안토니 모라토 W173 카페 슈즈. 타월이나 슈즈나 역시 메이드 인 이태리!

264,000원.

안토니 모라토 코리아(02-586-7592, [www.cultizm.co.kr](http://www.cultizm.co.kr))



## NEW ERA ANACONDA COLLECTION 출시

2014년을 맞아 뉴에라가 아나콘다의 가족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아나콘다 컬렉션을 발매한다. 이번 컬렉션은 9FIFTY 실루엣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의 뉴에라 스냅백과는 달리 아나콘다 가족 패턴의 스트랩백으로 시곗줄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NHL의 인기 팀인 LOS ANGELES KINGS 로고에 아나콘다 가족 패턴의 조합으로 탄생한 이번 컬렉션,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가 생각나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새로움에 목마른 사람에게 딱인 컬렉션!

가격 미정, 뉴에라코리아(02-540-8891, [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 브랜드드 램스울 케이بل 피셔맨 출시

겨울 아이템으로 니트만한 것도 없다. 하나 싸구려 니트는 늘어남과 보풀 발생 등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 그러한 걱정을 한 번에 날려줄 제품인 램스울 케이블 피셔맨(Lambswool cable fisher man)이 출시된다. 고급 램스울을 사용하여 두껍게 편직(제작)한 제품으로 최고 수준의 커다란 니트 케이블 조직과 피셔맨 조직을 넣어 고급스럽게 포인트를 주었다. 그래서 일반 외플 니트에 비해 5배 이상의 편직 시간이 걸리는 높은 노력의 결정체이다. 춥다고 징징대지 말고 솔 마실 돈으로 따뜻한 니트 좀 사 입어라!

68,000원, 브랜드드(053-428-5007, [www.branded.co.kr](http://www.branded.co.kr))



## 떡볶이 코트의 컴백, 토글코트가 돌아왔다.

수년 전 겨울, 대한민국의 고딩들을 하나로 화합시킨 전설적인 패션이 있었다. 떡볶이 코트, 정식 명칭으로 토글 코트가 북고 바람을 타고 돌아왔다. 제너럴아이디어가 세련된 색감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토글 코트를 선보인다. 하이넥의 옷깃과 누빔 안감으로 보온성을 높였고 나무와 가죽의 묵직한 토글에 가벼운 색상의 고리를 믹스매치 해 디자인에 재미를 주었다. 그녀와 내 손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안락한 큰 주머니가 있어 실용성까지 좋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여! 응답하라 1999!

826,000원(펠트 구즈다운 토글코트), 556,000원(토글 울코트),

제너럴아이디어(02-3442-0045, [www.generalidea.co.kr](http://www.generalidea.co.kr))



## 완전 따뜻해!

### 에이글 Window(윈다운) 재킷!

아웃도어 브랜드 에이글에서 속살을 따뜻하게 데워줄 윈다운 재킷을 선보인다. 무광택의 소프트한 고어 바람막이 소재를 사용해 보온 효과가 좋다. 안감은 정전기 방지 기능을 더해 겨울철 불청객 정전기로부터 자유롭게 체내에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언제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다. 최고급 거위털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온 효과는 물론 복원력과 경량성이 뛰어나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으로 무장한 에이글 윈다운 재킷 정도 입어줘야 고딩이 아니지!

630,000원, 에이글([www.aigle1853.co.kr](http://www.aigle1853.co.kr))

# Motor

CAR OF THE MONTH

## 전기 충격 電氣衝擊 NISSAN BLADE GLIDER

코가 길고 뾰족해서 양눈인줄 알았다면  
오해일세. 이 녀석은 일제라네.

BY 박정욱



문은  
어떻게  
열리게?



1769년, 니콜라스 쿠퍼가 4km/h로 달리는 증기기관 자동차를 발명했다.

1886년, 카를 벤츠가 가솔린으로

달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개발했다.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하고 정확히 240년이 지난 2009년,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은 요코하마 사옥에서 세계 최초 양산형 전기차 '리프'를 선보이며 말했다. "우리는 전기차로 간다."

볼타기에 팔린 리프 덕분에 자신감을 얻은 닛산이 이번에는 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충격적인 비주얼의 전기차를 선보였다. '2013 도쿄 모터쇼'에 등장한 닛산의 콘셉트 카 블레이드 글라이더다. 역시 이름에 걸맞게 날카로운 비행기 같이 생겼다. 가장 큰 특징은 앞바퀴 쪽의 프런트 트랙이 좁고,

뒷바퀴 쪽의 리어 트랙은 넓은 것이다. 보닛을 네모반듯하게 획일화한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블레이드 글라이더는 노즈(자동차 앞 부분)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빠져서 마치 피자 조각처럼 생겼다. 피스톤 운동을 해야 할 거대한 엔진이 없어지니 엔진룸도 필요 없어 이런 과감한 디자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조수석 없이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놓인 운전석은 '이 자동차는 미래에서 온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닛산의 전기차는 엄연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이브리드 시장을 토요타와 혼다에 내준 닛산에게 전기차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었다. 그게 썩었던 멀쩡하던 불잡을 건 전기차밖에 없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 동아줄이 훑시 썩었을까 걱정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닛산은 과감히 하이브리드를 건너뛰고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닛산은 제로미션(배기가스 무배출) 시장을 5년 사전 예인 가슴 주무르듯 손쉽게 주무르고 있다. 닛산의 80kW 전기모터는 자동차 전문지 <워즈 오토>가 선정한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되기도 했다.

20년 전 우리는 "삐삐 채"라고 했다. 10년 전 우리는 "문자 해"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카톡 해"라고 한다. 시대가 바뀌면 패러다임도 바뀐다. 곤 닛산 회장은 향후 20년 안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장담했다. 이제 자동차 제원을 볼 때, 출력과 토크의 단위로 hp와 kg.m 대신 전력과 에너지 단위인 kW와 Nm가 더 익숙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Motor

This is My Car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8

# SSANGYONG KORANDO C

당신의 애마를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나? 당신 차와  
섹시한 MISS MAXIM이 함께, 열 모터쇼 안 부러운  
멋진 화보를 남기는 MAXIM의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에 주목하라! 그 행운의 여덟 번째 주인공은  
얼마 전 쌍용 코란도C를 구매한 라이프가드 임재원  
독자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그를  
위해 특별히 MISS MAXIM 최고의  
섹시 글래머 엄상미를 출동시켰다!  
MODEL 2011 MISS MAXIM 준우승자  
엄상미



진격의 상미  
섹시 여전사  
변신 영상





구두 슈즈원



"코란도C의 뒷좌석은 단연 동급 최강이다. 일단 뒤로 젖혀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혼자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뒷좌석에 탄 사람도 배려해야지. 게다가 실내 공간이 넓어서 긴장한 장정 셋이 티도 즐기잖아."



**임제원 / 34세 / 워터파크 라이프가드 팀장**

활동 중인 동호회: 렵코란도C  
 내 차 애칭: 코랑이(코란도+호랑이)  
 드림카: 랜드로버 레인지모버 스포츠  
 추천 드라이브 코스: 해운대 달맞이길



아, 역시 새 차라더니 새 차 티가 팍팍 난다. 좋겠다.

뽕은 지 3주 정도 됐다. 애칭은 코랑이다. 코란도와 호랑이의 합성어다.

**이 녀석 정말 장군같다. 들던대로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다. 원래 쌍용차가 튼튼하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 녀석을 선택한 건가?**

그렇다. 나는 차를 오래 타는 편이라 튼튼한 차를 선호한다. 전에 타던 차 레조는 10년을 탔다. 코란도C는 딱 생김새부터 튼튼해 보이잖아.

3주밖에 안 된 녀석이면 길도 덜 들었을 텐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느라 고생했다. 이 차를 몰고 처음으로 장거리를 뒀었다. 그토록 원하던 화보 촬영인데, 나의 코랑이도 기뻐할 거다.

**SUV 중에서 코란도C의 라이벌 자동차는 뭐라고 생각하나?**

스포티지R이나 쏘렌토R 정도? 하지만 코란도C의 실내가 더 넓다. 그리고 튼튼하기로는 쌍용차가 제일 아닌가?

**코란도C 스포츠라는 픽업트럭도 있다. 레저용으로는 그게 더 제격일 텐데, 왜 그냥 코란도C를 샀나?**

뒷좌석이 불편하더라. 그러면 오히려 레저용으로 별로다. 한계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기본형을 선택했다. 미국에서야 픽업트럭이 인기겠지만 여기는 한국이잖나.

**1974년 첫 출시된 코란도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장수 자동차다. 나를 자부심도 상당하겠나.**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오래된 차들을 조사해봤다. 대표적으로 소나타, 그랜저, 스포티지, 코란도가 있다. 차가 튼튼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주니까 오래 가는 거겠지.

**코란도의 역사에서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나?**

내 눈엔 83년식 거화 코란도\*가 가장 멋지다. 랭글러와 비슷하게 생긴 정통 지프다.

\*코란도의 주인은 신진-거화-쌍용 순으로 바뀌었다.

**지금 애마와 거화 코란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가 더 멋있나?**

솔직히 말해서 거화 코란도가 멋있다.

**애마가 들으면 섭섭해 하겠다. 코란도C는 어떤 사람에게 어울릴까?**

역시 코란도C는 활동적인 남자의 차다. 나처럼 수영, 보드, 스쿠버 다이빙 등을 좋아하는 액티브한 남자에게 딱 어울린다.

**맞다. 아웃도어 레저를 하기에 코란도C처럼 수납 공간이 넓은 게 최고다.**

요즘 같은 계절에 겨울 캠핑 좋잖아? 트렁크 수납공간도 넉넉하니 이것 저것 사서 넣고 캠핑을 다닐 생각이다.

**한적한 데에 텐트 치고 하는 야외 섹스를 상상하니 나도 쿨감이 뜨거워진다. 근데 여자들은 이 차를 좋아할까?**

충분히 여자들이 좋아할만한 자동차다. 코란도C가 상남자의 투박한 SUV라는 이미지와 달리 은근 운전자를 배려하는 아기자기한 장치가 많은 차다.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있어서 손이 찬 여성들도 따뜻하게 운전할 수 있다. 또 시트를 높이면 시트포지션이 꽤 높아져 전방이 훤히 보이니 여자가 운전하기 참 좋다.

**10년 뒤에는 어떤 차를 타고 싶나?**

멋진 스포츠카! 포르쉐 911이 괜찮겠다.

# Motor

## This is My Car



\*코란도C의 트렁크는 넓기도 넓지만, 리터 단위로도 설명하기 힘든 효율적인 수납 공간이 돋보인다. 2열 시트가 6:4 폴딩 방식으로 접어서 스노보드나 자전거, 텐트 등 커다란 레저용품도 무난하게 실을 수 있다.\*\*

### SPEC CHECK

엔진	배기량	연료	최대 출력	최대 토크
I4 2.0	1,998cc	디젤	149hp	36.7kg.m

## 코란도의 기구한 40년 역사

훌륭한 장수는 여러 주군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거늘...



코리아 캔 두? 대중 끼워맞춘 거 아니?



### 1 1974~1983년: 1세대 신진 지프

쌍용차의 전신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가 1967년 5월 신진자동차와 업무제휴를 시작해 1974년 4월 신진지프자동차공업을 합작 설립했다. 그해 5월 AMC(American Motors Corporation)와 기술계약을 통해 신진 지프가 처음 탄생했다.



### 2 1983~1996년: 2세대 거화 코란도

1981년, 신진이 거화로 이름을 바꿨다. 신진 지프는 1983년 3월부터 코란도라는 이름이 생겼다. 코란도는 '한국인은 할 수 있다(Korean land do)', '한국 땅을 뒤덮는 차(Korean land over)', '한국을 지배하는 차(Korean land dominator)' 등의 의미가 있다.



### 3 1996~2005년: 3세대 쌍용 뉴 코란도

동아가 거화를 인수하고, 쌍용이 동아를 인수하면서 쌍용이 코란도의 새 주인이 됐다. 쌍용은 1996년 7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 벤츠 엔진을 얹은 뉴 코란도를 출시했다. 정통 오프로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곡선이 돋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 4 2011~현재: 4세대 쌍용 코란도C

2005년 9월 코란도가 단종됐다. 빈자리는 쌍용 액티언이 채웠다. 그러던 2011년 2월, 코란도는 코란도C로 부활했다. 정통 오프로드 스타일을 버린 코란도C는 젊고 발랄한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광고 모델로는 걸그룹 씨스타를 썼다.

Motor

Event



맥시 스타프  
항시 대기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특급 이벤트는 계속된다. MAXIM 화보로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타 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뭐예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어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

잡지로만 만났던 미스맥시를 양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마.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자랑해라!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명팀, 에디터가 당신의 차를 멋진 화보로 남긴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차가 공짜 구독 혜택도 안겨준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호가 MAXIM 정기 구독 첫 권!

**응도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mailto: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뺨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 Feed Your Ego **Lamborghini** **Egoista**

엄친아 같은 이 녀석도 못 하는 게 하나 있지. “야, 태!”

BY 박정욱





문이 넷 달린 세단, 문이 둘 달린 쿠페. 여기까지는 흔히 보는 자동차다. 문이 하나 달린 에고이스타, 이걸 조금 헛갈린다. 전투기보다 더 전투기 같은 생김새를 보고 있자니 과연 이것 자동차라고 불러도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다. 2013년 12월호 '독자의 차 확보 프로젝트' 인터뷰 중, 왜 쿠페를 선택했는지 묻는 에디터에게 문짝 두 개 달린 머스탱 쿠페를 타는 그 독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차는 무조건 문이 두 개여야 한다. 사실 두 개도 필요 없다. 내가 타는 차인데 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위해 휠베이스는 길어지고,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서스펜션은 물렁해진다. 그리고 운전의 재미는 떨어진다. 지금까지 운전자는 동승자를 위해 희생해왔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될 것 같다. 에고이스타는 바로 이런 이기주의자를 위한 자동차.

에고이스타로  
만든  
한 편의 영화

# Motor / Super Car

**SPEC CHECK**

배기량 5,204cc	엔진 V10 5.2	연료 가솔린	최대 출력 600마력	승차 인원 1인승	구동 방식 뒷바퀴 굴림
----------------	---------------	-----------	----------------	--------------	-----------------



→ 에고이스타는 람보르기니의 창업자 람보르기니 페루치오를 위한 오마주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엔진을 뒤에 얹겠다. 조수석은 필요 없다. 오로지 나 혼자만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가 람보르기니를 창업한 지 30년이 되던 1993년,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흘렀다. 람보르기니는 201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페루치오를 위한 레퀴엠, 에고이스타를 세상에 공개했다. 사실 에고이스타는 엄밀히 따지면 반쪽짜리 오마주다. 페루치오는 엔진을 뒤에 얹겠다고 다짐했지만 에고이스타는 미드십(좌석과 뒷바퀴 사이에 엔진을 얹는 구조) 방식을 취했다. 또 페루치오는 서킷이 아닌 일반도로 위를 달리는 차 중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에고이스타는 차량 경량 소재 연구용에만 쓰일 뿐 양산 계획도 없다. 심지어 양산되더라도 보행자를 치면 사람을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는 날카로운 전면 디자인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제를 통과하기조차 어려울 거다. 하지만 어쨌든, 덕분에 에고이스타는 페루치오를 위한 단 한 대뿐인 기념 현정이 됐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할까? 에고이스타는 국방색을 입혀놓으면 금방이라도 이륙해서 “뽕뽕뽕” 미사일을 쏘며 적들을 공격할 것

같이 생겼다. 군용 헬리콥터 아파치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에고이스타의 운전석은 아파치 헬기의 콕핏(조종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아파치의 캐노피 디자인이 적용된 리프팅 캐노피 도어(Lifting Canopy Door)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투기 조종석처럼 지붕이 덮개처럼 통째로 열리는 방식이다. 게다가 이 문은 탈부착이 가능해 언제든지 로드스터로 변신할 수 있으니, 뚜껑을 열고 달리면서 여자를 고이기에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어차피 여자를 태울 수 있는 자리는 없지만). 물론 좌석은 비상 시 드라이버가 재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사출좌석을 사용했다. 운전석에는 양 손잡이가 돌보이는 스티어링 휠과 마치 미사일 조준에 쓰일 것 같은 헤드업디스플레이를 갖췄다. 심지어 이 녀석은 최고 사양의 전폭기에만 있는 스텔스(레이더 탐지 방지) 기능까지 탑재했다. 실제 공군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탐지 방지 소재를 사용해 도장했으며, 캐노피엔 반사가 되지 않는 유리까지 적용해 숨여 있기엔 제격이다. 당신이 차 안에서 미국 대통령 마누라와 폭풍섹스를 즐겨도 FBI가 절대 당신을 찾아낼 수 없을 테니, 이 얼마나 간지 나는 기능이란 말인가! 이름 되면 자동차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고 차라리 달리는 전투기라고 부르는 편이 어울리겠다.



→ 엔진은 가يار도 대표 엔진인 5.2L 10기통 엔진을 사용했다. 하지만 출력은 가يار도 엔진의 570마력보다 30마력 업그레이드된 600마력이다. 6.5L V12엔진을 탑재하고 최고 출력 750마력을 내는 베네노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에고이스타는 파격적인 비주얼, F1 머신처럼 오직 혼자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에 딱 한 대뿐이라는 희소성이 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차보다 더욱 돋보인다. '도로 위 전투기'라 불리며 실제 전투기와 3km 활주로 달리기 시합을 벌인 레벤톤 역시 디자인과 기능 모두 전투헬기와 전투기를 모티브로 한 에고이스타에게 '가장 전투기를 닮은 자동차' 타이틀을 물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에고이스타의 디자인엔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폭스바겐 그룹의 디자이너 발터 드 실바가 참여했다. 람보르기니 350대가 대규모 랠리를 벌인 창립 50주년 행사 '그란데 지로'(Grand Giro)의 마지막 날, 실바는 이 차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고이스타는

\*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 발터 드 실바, 크리스 뱅글, 피터 슈라이어

자기표현과 쾌락을 위해 주변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세상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않는 차입니다."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열정과 감성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람보르기니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더불어 '1인승 슈퍼카'의 본질인 '이기심'이라는 콘셉트와도 딱 맞아 떨어진다. 오직 운전자 하나만을 위한 자동차 에고이스타. 어쩌면 람보르기니가 수없이 만들어온 슈퍼카 중에서 람보르기니다운 녀석이 아닐까? 🏎️



앞모습은 꼴을 치켜세우고 돌진하는 향소를 달았다.

### 유럽 3대 자동차 디자이너?



① 발터 드 실바 / 폭스바겐 그룹 총괄 디자이너

대표작 아우디 A5

"우리의 임무는 미래의 아이콘이 될 자동차를 창조하는 것이다."

② 크리스 뱅글 / 삼성전자 마스터 디자이너

대표작 BMW 7시리즈

"모든 자동차는 일생의 80%를 멈춰선 채 보낸다."

③ 피터 슈라이어 / 기아자동차 최고 디자인 책임자

대표작 아우디 TT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를 디자인하라."

## 혼자 타는 차가 다 무섭게 생긴 건 아냐...

귀여워서 깨물어 죽이고 싶은 1인승 시티 커뮤터



### ① TOYOTA COMS

2000년 택배용으로 처음 등장한 초소형 1인승 전기차

최고 속도	연비
60km/h	5~6시간 충전에 약 5km 주행



### ② PEEL P50

길이 1.2m의 초소형 SUV '1 M BIG'이 등장하기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로 기네스북에 오른 차

배기량	최고 속도	연비
49cc	60km/h	43km/L



### ③ MITSUOKA MC-1

일본의 명품 수제 자동차 회사 미쓰오카가 만든 마이크로카

배기량	최고 속도	연비
50cc	60km/h	25km/L



### ④ BMW ISETTA 300

1960년, 501의 판매 부진으로 도산 위기에 빠져 있던 BMW를 회생시킨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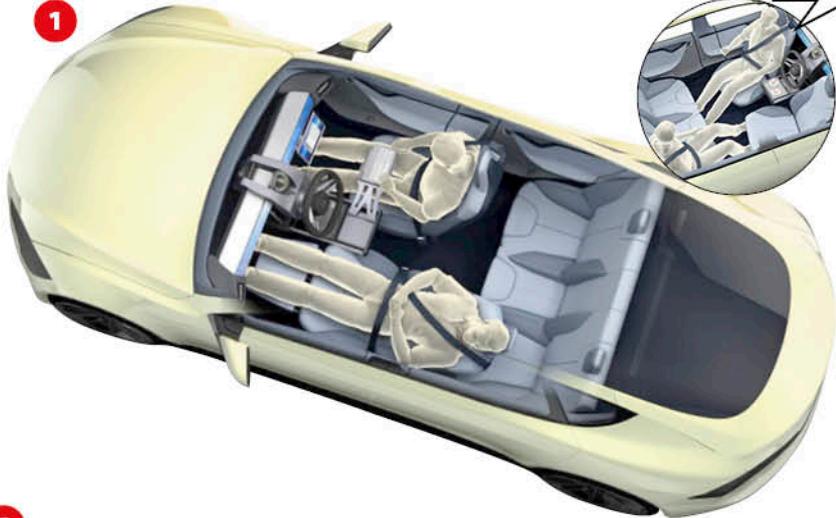
배기량	최고 속도	연비
298cc	85km/h	18km/L

### 이달의 결다리 모터 뉴스

토크니, 마력이니 관심 없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자동차 핫 이슈.



1



2



3



### 2013 도쿄모터쇼에 등장한 이상한 녀석들

토요타가 신박한 콘셉트 카를 대거 선보였나니!



#### FV2

스티어링 휠이 아닌 운전자의 체중 이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1인승 자동차. 차체 외부에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색과 문양을 카멜레온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 FCV

수소연료전지(FC)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구 사랑 자동차. 수소를 한 번 충전하면 50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은 고작 3분이다.



#### i-Road

제네바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3륜 퍼스널 모빌리티. 짐칸 달린 배달용 스쿠터처럼 생겼지만 엄연히 자동차다.

### 1 스스로 운전하는 재능 교육 같은 자동차

설 연휴, 꽉 막힌 도로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가 역주행하는 기분인가? 매년 특이한 콘셉트 카를 선보이던 린스피드가 내년 제네바 모터쇼에 선보일 자율 주행 전기자동차 '엑스체인지'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 자동차는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석이 없다. 특수한 상황을 대비한 스티어링 휠만 센터페시아 자리에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또 기차처럼 앞 좌석이 180도로 회전하므로 지루한 설날 귀향길, 4인 가족이 차 안에서 마주하며 세 명은 고스톱을 치고, 한 명은 광을 팔 수 있다.

### 2 지름 신경 풀리는 전기자전거

자전거 덕후라면 전립선이 타지고 굵아 고자가 될 때까지 타보고 싶은 간지럼 전기자전거가 등장했다. 동력 보조 방식(Power Assistant System) 전기자전거의 명가 야마하가 전기자전거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스포티한 하이브리드형 전기자전거 'YPJ-01'을 도쿄 모터쇼에서 공개한 것. 이 녀석은 스마트폰으로 모터와 배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너저분한 배선도 필요 없다. 지르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YPJ-01의 상용화 일정이나 상세 스펙은 아직 공개도 안 됐으니까.

### 3 3D 프린팅 자동차로 미 대륙 횡단하기

세계 최초 3D 프린팅 자동차 '어비'의 아우벨인 '어비2'가 곧 제작될 예정이다.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라고 해서 조립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어비2는 제작이 끝난 후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4,600km의 백선 대륙 횡단에 도전할 예정이다. 1903년 처음 미 대륙을 횡단하던 자동차가 휘발유 3,030L를 썼지만, 어비2는 오직 38L의 에탄올만 사용할 예정이다. 이리다 조인간 3D 프린터로 만든 여자 친구와 결혼하겠다는 미친놈은 안 나올지 모르겠다.

# Motor news

## 닛산, 2014년형 알티마 스마트 모델 출시

프리미엄 중형 세단 닛산 알티마가 연비와 편의 기능이 향상되어 돌아왔다. 탑승자의 편의를 고려한 원격 시동, 후방 카메라를 지원하는 5인치 컬러 모니터와 사이드 미러의 방향 지시등 등 다양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13.3km/L라는 우수한 연비는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함께 추가된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해 주행 중 즐거움을 선사한다. 2013년에 알티마 산 분들...  
괜찮아요 인생이 뭐 그럴조.  
3,290만~3,370만 원, 닛산([www.nissan.co.kr](http://www.nissan.co.kr))



## MINI 컨트리맨, 에어로다이내믹 키트 무상 장착 프로모션

통 큰 것도 Not Normal 한 MINI. 12월, MINI가 컨트리맨에 에어로다이내믹 키트 무상 장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어로다이내믹 키트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기능과 함께 외관 디자인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모듈. 기능 면에서 차량의 접지력을 높여 고속 주행과 험준한 노면 위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한다. 에어로다이내믹 키트 프로모션은 MINI 쿠퍼 SD 컨트리맨과 MINI 쿠퍼 SD 컨트리맨 ALL4 두 모델에만 적용된다. 흰 눈 사이로~ MINI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해도 하대.  
4,610만 원(MINI 쿠퍼 SD 컨트리맨), 5,290만 원(MINI 쿠퍼 SD 컨트리맨 ALL4),  
MINI 커뮤니케이션센터 (080-6464-003, [www.mini.co.kr](http://www.mini.co.kr))



## 한국 상륙 작전하는 아우디 A3 세단

아우디 A3 세단이 2014년 1월 한국에 상륙한다. 아우디 최초의 4도어 소형 세단으로 더 넓어진 차체와 경량 바디 등의 최고급 사양으로 무장했다. 연비 효율이 높은 6단 S트론닉 듀얼클러치 미션과 힘 좋은 2.0 TDI 엔진을 얹어 내실을 더했다. 기존의 A3 해치백보다 실용성과 역동적인 컨셉을 강화한 A3 세단은 2013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중형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도 아우디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격 미정, Audi(6009-0000, [www.audi.co.kr](http://www.audi.co.kr))



## K3 디젤M, 경제성까지 주목!

대한민국 준중형 세단의 대표 주자 K3가 디젤 엔진을 달고 컴백했다. 1.6디젤 엔진을 탑재한 K3 디젤은 16.2km/L의 연비와 최고출력 128마력, 최대토크 28.5kg.m의 힘을 자랑한다. 새로 추가한 고급형 Idle Stop & GO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였고 흡차음재와 엔진 블록, 오일 커버를 달아 디젤 엔진의 소음을 감소시켰다. 편의 사양으로 열선을 적용한 운전대와 뒷좌석 시트가 있어 아늑한 주행 환경을 만든다. 뭐니 뭐니해도 이젠 디젤이 답이지!  
1,925만 원(럭셔리), 2,100만 원(프레스티지), 2,190만 원(노블레스),  
KIA MOTORS([www.kia.co.kr](http://www.kia.co.kr))



## 국내 유일의 롤스로이스 알파인 센테너리 컬렉션

롤스로이스도 시작이 있었다. 그래서 성능을 입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100년 전 오스트리아 알파인 트라이얼 레이스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우승한 롤스로이스 실버 고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새 컬렉션이 출시된다. 전 세계에 오직 35대만 제작되며 그중 국내에는 단 1대만 출시된다. 블랙과 실버 투톤의 외관과 내부 아날로그 시계는 롤스로이스만의 고급스러움을 반영한다. 차 내부에 새겨진 알파인 코스 지형 무늬는 롤스로이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좋은 건 알지만...이 차 부품도 그럼 딱 한 개만 국내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4억 9,200만 원, 롤스로이스([www.rolls-roycemotorcars.com](http://www.rolls-roycemotorcars.com))

Super Horse Power!

세상에서 가장 잘난

# 7馬



2014년 갑오년 말띠 해를 맞아  
준비한 명마 특집 그것만 큰 줄  
알았는데, 사람보다 낫구먼? BY 손안나



낙마 SHOW!  
보러 가기



# 1

## 탈집승급 눈치코치 영리한 한스

20세기 초 독일 베를린, 말을 키우던 빌헬름 폰 오스텐은 어느 날 너무 심심한 나머지 심심해서 자신과 말 한스에게 수학문제를 냈다. '8-3'이라는 문제를 내자 말이 정확히 발을 다섯 번 구르고 멈추는 게 아닌가! 다른 문제를 내도 마찬가지. 백발백중이었다. 수학문제를 푸는 말이 있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마침내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가 검증에 나서게 됐다. 그들이 알아낸 사실은 아래와 같았다.

- ① 구경꾼이 없으면 적중률이 떨어진다.
- ② 답이 1이면 적중률이 더 떨어진다.
- ③ 관중들도 답을 모를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예 못 맞춘다.

알고 보니 한스는 발 구르는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눈치코치로 때려맞춘 거였다. 정답이 '5'인 경우, 네 번 발을 구를 때 사람들의 긴장한 표정과 다섯 번 발을 구를 때 사람들의 안도한 표정은 분명히 달랐을 테니까. 수학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눈치면 사회생활 3, 4년차 대리급 클래스 아닌가?



## 개천에서 명마났다! 한국전쟁 영웅, 레클리스

레클리스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서울경마장에 한 소년이 키우던 경주마였는데, 한국전쟁 중 어느 미해병대 중위에게 팔리면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됐다. 강제입대였지만 군 생활은 그녀의 (암컷!) 적성에 딱 맞았다. 레클리스의 주 임무는 탄약수송이었는데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혼자서 탄약보급소부터 병사들이 있는 정상까지 약 400여 회 왕복하면서 포탄을 운반하는 등 활약이 대단했다. 이 암말은 무모하리만큼 겁이 없어 이때부터 '레클리스(Reckless, 겁 없는)'라고 불렸다. 레클리스는 전방과 후방을 오가는 병사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거나 부상병을 등에 업고 수송하는 일도 맡았다. 병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녀가 말없이(당연히 말이 없지!) 총탄을 뚫고 생명과 같은 포탄을 날라주는 모습을 보고 지나할 것 없이 자신의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휴먼드라마가 연출되기도 했다고. 휴전 후 미국으로 건너간 레클리스는 하사로 진급, 1959년 성대한 전역식을 치르며 은퇴했다. 1997년 <라이프> 매거진 특별 호에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링컨, 존 웨인 등과 함께 미국 100대 영웅에 선정되기도 했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가다 다가다

### 관우의 적토마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명마로, 붉은 빛갈 털에 토끼처럼 빠른 속도를 자랑해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원래 동탁의 말이었는데, 여포한테 선물로 줬다가 여포가 죽은 뒤에는 조조가 관우에게 줬다. 적토마는 주인 관우가 죽자 불과 풀을 먹지 않고 스스로 굶어 죽었다. 의리! 이 말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였다. 먹지도 쉬지도 않고 달리지만 한다고 쳤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갈

# 3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삼국지〉 어디에도 적토마가 천 리를 달린 적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천 리를 달릴 수 있다”고만 적혀있을 뿐. 생각해 보라.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도 아니고 험준한 돌 발길을 24시간 쿵덕 쿵덕 달리는데 제아무리 여포나 관우인들 엉덩이가 남아났겠는가! 하여튼 대륙의 뺑스케일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말 이성계의 유린칭

# 4

전승무패의 명장 이성계가 사랑한 말 ‘유린칭’은 전쟁에서 화살을 3대나 맞았으나 극진한 간호 끝에 살아나 31세까지 마구간에 통칠하며 천수를 누렸다. 인간 수명으로 따지면 여든까지 산 셈. 이성계가 어쩌나 아꼈는지 죽은 후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판에 담아 묻어주었을 정도였다.

※ 반면 삼국시대 끝판왕 김유신의 말은 자동 내비게이션에 자동 주차까지 되는 명마였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 개죽음을 당했다.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줄던 김유신은 애마가 헤어진 기생 여친 ‘천관’의 집으로 자신을 데려다 준 것에 분노해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별 히스테리치고는 너무 과했던 거 아냐?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의 운명... 말 팔자 뒤엎박 팔자다.

## 호나우두와 지단을 합친 슈퍼 플레이어

### 투우마 메를린

피카도르는 말을 타면서 소를 흥분시키고, 흥분시킨 소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말한다. 성난 소와 싸우는 피카도르에게 가장 든든한 무기는 단연 영리하고 용감한 말이다. 투우사 그리고 전 세계 투우팬들이 사랑한 최고의 투우 명마 ‘메를린’은 옴프파탈 간지 제대로 내뿜는 황금빛 가죽과 은빛의 갈기를 지녔다. 별명은 투우장의 지배자답게 ‘흑왕’이었다. 메를린은 아주 똑똑한 말들이 겨우 구사한다는 후진은 물론 투우용 소 앞에서 페인트 모션으로 소를 속이는 일명 ‘페트를 컨트롤’ 기술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자리 회전으로 소를 농락하기도 했다. 메를린은 한마디로 호나우두의 스텝 오버와 지단의 마르세유 턴을 동시에 구사한 명마였다. 몸값만 340억 원이고 메를린의 새끼는 12억 원, 메를린의 씨만 해도 4억 원이었다. 현역 은퇴 후, 한 이탈리아 마피아 보스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메를린을 구입했고, 메를린은 그 집에서 편안히 요양하다가 2009년 사망했다.



안 돼! 애는 젖이 안 나온다고!



# 5

## 사람 잡아먹는 흉폭한 말

### 알렉산드로스 3세의 부케팔로스

동양에 적토마가 있다면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부케팔로스다. 원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흉폭한 말이라 아무도 그 위에 올라탈 수도 없었는데, 당시 열두 살 꼬꼬마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길들여 자신의 애마로 삼았다. 알렉산드로스는 부케팔로스가 그림자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 그림자를 마주 보게 하자 부케팔로스는 그림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면서 움직이는 것에 놀라 완전 쫓아 버렸고, 그를 타 말 등에 올라타는 데 성공한 것이다. 훗날, 말이 전사하자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이름을 따서 부케발리아라는 도시까지 건설해 성대하게 추모해주었다.

**\*** 실제로 말은 겁이 많다. 이번 호에는 노라조와 함께 모델로 활약한 말 '마타리'가 등장한다(P.102). 촬영 당시 마타리는 얼굴에 수염이 수북하게 난 조종재 에디터의 두려운 인상을 보고 놀라 경기를 일으켰다. 많이 놀랐는지 실은 우리도 매일 놀라고 있어...



# 6



## 아랫도리는 확실한 짐승!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의 모양을 하고 있는 종족이다. 신들의 연회에 초대받은 남자 사람 의시온이 여신 헤라에게 흑심을 품자 이에 뺨친 제우스가 구름을 헤라로 둔갑시켜 보냈고, 거기에 홀랑 넘어간 의시온이 구름이랑 봉가봉가를 해서 낳은 것이 켄타우로스다. 그렇다. 사람이 구름이랑 섹스를 하면 반인반마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 켄타우로스는 괴물이라고보다 정신적, 체력적으로 인간보다 우월한 종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신은 말인지라 가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추태를 부리는 실수를 많이 범한다.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겁탈하려다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인간의 결혼식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신부까지 범하려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게 처맞고 쫓겨난 켄타우로스들도 있다. 그나저나 켄타우로스 거시기는 어디에 달린 걸까? 사람 몸? 말 몸? 호...혹시 두 개인 건 아니겠지?



## 유니콘? 페가수스?

〈체험 삶의 현장〉에 등장하던 백마의 정체는?

둘 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페가수스는 메두사 목의 피가 바다에 떨어져서 탄생한 날개가 달린 말이고, 유니콘은 처녀, 특히 어린 여자아이를 밝히는 풀 달린 호색한 말이다.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둘 다 가상의 동물이고 흰 색이라서 헷갈려하는 이들이 많다. 예를 들어, KBS 〈체험 삶의 현장〉에서 알바 체험을 마친 패널들이 '사랑의 모금함'에 일당 봉투를 넣을 때 타고 오르내리던 백마 기억 나나? KBS는 그것을 분명 '유니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말의 생김새가 풀도 달리고 날개도 달린 유니콘과 페가수스의 요상한 돌연변이임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더라. 이거 원, 호랑이한테 사자 같기 달아놓고 사자라고 우기는 꼴이잖아? 미술 감독 나오라 그래. 🐾

## 말 찾기 퀴즈!

'말표'는 구두약에만 있는 게 아니다.

다음 중 엠블럼에 '말'이 등장하지 않는 차종은?

- ① 머스탱
- ② 질로퍼
- ③ 포르쉐
- ④ 페라리
- ⑤ 푸조

다음 중 심볼에 '말'이 등장하지 않는 브랜드는?

- ① 초다쉬
- ② 리바이스
- ③ 버버리
- ④ 까르띠에
- ⑤ 청보 핀토스 야구단

# ICON



# 달리고 달리는 유쾌한 이단아 노라조

말이 많군... 1년 6개월 만에 반인반수가 되어 돌아온 엽기 듀오의 대명사 '노라조'를 만났다.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2인조와의 정신나간 인터뷰를 공개한다. BY 조웅재 PHOTOGRAPH YuD

말이야 사람이야?



**반갑다 야생마들! 실원에서 벗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다.**

**조빈:** 사실 처음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생 좀 하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설레고 재미있는 촬영이었다. '배고픈 것도 모르고 일한다' '추운 것도 모르고 논다',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

**조빈은 재미있어 하던 반면 이혁은 굉장히 추워했던 것 같다.**

**조빈:** 괜히 보호복을 일으키려고 추운 척하는 거야. 이혁: 액션만 취한 거지...

**조빈:** 애는 더 격하게 자랐어. 괜히 추운 척하는 거다. 지금도 냉수마찰 하러면 할걸? 근데 돈 좀 줘야지. 돈맛을 알아가지고.

이혁: 아하하하

**하루 종일 말 인간으로 지내느라 고생했다. 대체 이 앨범의 아이디어 콘셉트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

**조빈:** '슈퍼맨'이나 '고등어' 혹은 '카레'처럼 어쩌다 보니 우리는 뭔가 사물에 대한 노래를 하는 팀이 되어버렸다. 오랜만에 캠크하는 입장에서 이번엔 뭔가 신나는 동물을 노래해보자 해서 나온 게 '말'이었다. 말 중에서도 좀 더 센 말. 자유롭게 뛰는 야생마가 어떨까 싶었거든. 진짜 말이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말이 되는 편이 낫겠다 싶어 켄타우로스가 됐다.

**말 몸통은 어디서 난 건가?**

**조빈:** 콘셉트를 짜고 나서 처음엔 인형극회사 제작 업체에 대해 관련 문의를 했다. 근데 대여비를 생각하니 차라리 맞추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마리(?)당 100만 원에 제작하기로 했다. 근데 운 좋게 무료로 해주셔서 돈이 굳었고, 남은 돈으로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지.

**이혁은 백마, 조빈은 그냥 갈색 말이다. 너무 차별이 심한 거 아닌가?**

**조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인도에서 카스트제도로 계급을 구분하듯이 외모도 뒤집을 수 없는 법이지. 애가 피부 톤도 흰 편이고 '백마 탄 왕자' 느낌이 강해서 백마를 맡았다. 나는 그냥 옷겨야 하니까 갈색 말로...

이혁: 색마~ 형형!

**'이혁은 카리스마, 조빈은 개고 담당'이라는 콘셉트는 변하지 않는 건가?**

이혁: 조만간 한번 갈아엎지 뭐.

**조빈:** 애도 일게 모르게 조금씩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여자사랑> 싱글 때 마틸다 단발머리도 했고, 이번 <야생마>에서도 사실 애가 둘 중에서 그나마 멋진 말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맛이 간 건 마친가지거든. 정신 나간 두 사람이 서로 "야, 너는 나보다 정신이 좀 멀쩡한 것 같아"라고 말하는 셈이다.

이혁

본명 이재용  
출생 1977년생  
신장 185cm / 72kg  
경력 3인조 락밴드 '오픈헤드' 멤버  
인더그라운드 밴드 'July' 멤버  
데뷔 2005년 노라조 1집 <노라조>

조빈

본명 조현준  
출생 1974년생  
신장 181cm / 70kg  
경력 3인조 보컬그룹 'TGS' 멤버  
데뷔 2005년 노라조 1집 <노라조>

헤비메탈 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Rock Star'라는 노래를 참 좋아한다.

**조빈:** 둘 다 록을 좋아한다. '슈퍼맨' 같은 음악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먼저 얻은 뒤, "이번엔 이혁의 느낌이 강한 음악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대신에 가사는 노라조의 유쾌함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혁: (테이블을 두드리며) 갱 갱

**조빈:** 아, 애 진짜 산만하지? 애를 왜 남들이 카리스마로 로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혁: 이렇게 말 한 마디 안 하고 30분 동안 있는 게... 아, 진짜 힘들다.

**조빈:** 근데 저리고 실면 진짜 편할 것 같다.

**이혁은 왜 말이 없나? 항상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왔나?**

**조빈:**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사실 얘가 카리스마를 풍긴다고 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순수해서 금방 속내가 드러나고, 깨기도 하거든.

이혁: 바보예요~

**조빈:** 이러면 이미지가 중화되잖아.

이혁: 중화되게 뿌리는 것처럼.

이혁: 중화중에 살아요~

**조빈:** 이 봐, 이렇다니까. '중화' 하나 걸리면 계속 파거든.

이혁: 중화 요리 좋아해요~ 아, 근데 네 시간 정도 인터뷰하다 보면 지쳐서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한다. 화장실 갔다 와도 모르더라.

**사람들은 노라조를 이야기하면서 "한 명은 노래 잘하잖아"라고 한다. 조빈도 딸리는 실력은 아닌데 섭섭하지 않나?**

이혁: "당신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인가. 하하하하

**조빈:** 그만큼 애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나도 애 덕에 많이 늘었다. 1집 준비할 때는 음정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적응이 돼서 다행이지.

**그리고 보니 조빈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 같다. 목은 괜찮은 건가?**

**조빈:** 믿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난 미성이었다.

이혁: 더럽지 않고 깨끗했어.

**조빈:** 근데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탁해지면서 사람을 선통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이혁: 선동렬~

**조빈:** 다음 생애는 데모나 한번 제대로 해볼까 싶다.

이혁: 최루탄 맞고 게거품 물면서 기절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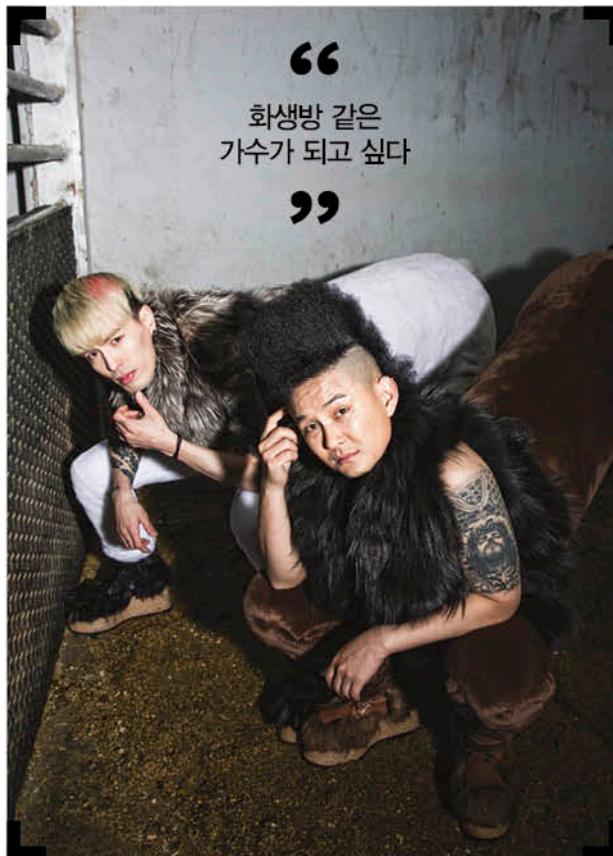
**조빈:** 남자는 최루탄보다는 역시 화생방이지. 화생방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이혁: 다 죽여버리고 싶어?

**조빈:** 우리 노래를 들으면 눈을 콧물을 막 쏟다가 클라이맥스에 가면 정화되는 그런 거 있잖아. 곡 하나를 '화생방'으로 할까? CD 케이스를 열면 최루탄 가스가 막 나오는 거지.

**얼마 전에 당신들의 'Gaia'라는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 11분짜리 노래라니?**

**조빈:** 록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예전부터 '헬로윈', '드림 시어터' 등 헤비메탈 대곡을 만드는 뮤지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엄청 생뚱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웬지 전문적으로 헤비메탈을 하는 사람들에게 "애네 진짜 미친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어보고도 싶었다.



“  
화생방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

**처음 시도한 것치고는 엄청난 퀄리티다. 천재데?**

**조빈** 사명감을 갖고 베토벤처럼 짹짹 써나간 거면 그렇지. 근데 우리는 무슨 엇가락 늘리는 할머니처럼 "늘려~" 하면서 억지로 늘린 거다. 이혁 기타 솔로가 64마디라니...

**조빈** 때마침 11월 13일에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거든. 제주도가 유력한 후보라기에 "11분 13초짜리 노래를 만들자!" 해서 솔로 더 넣고, 간주 길게 가고, 잠깐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늘렸지. 이혁 근데 그 선정 기관이 비공식 민간단체였다는 사기당한 거라고 말 많았지. 괜히 주동했다가...

어쨌든 요즘 가요계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실험적이지 않은가.

**조빈:** 그래서 "아, 우리나라 가요계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있어! 있더라. '강병철과 삼태기'라고, '삼태기 메들리'라는 노래가 25분이야. 대단해.

이혁: 가사는 어떻게 외우는지 몰라.

**조빈:** 그분들 정말 천재야. 그냥 막 넣어. 트로트도 넣고 동요도 넣고. 버전도 10분, 20분, 8분짜리 등 여러 개더라고.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언제 한번 그 노래 완창에 도전하고 싶다. 판소리 <심창기>를 완창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혁: 난 다음엔 블루스를 한번 해보고 싶는데...

**조빈:** 넌 그럼 블루스를 연주해. 나는 블루스를 출제. 파트너는 네가 클럽 가서 섭외 좀 해와라.

**일할 때 말고 평소에도 둘이 잘 어울려 다니는 편인가?**

**조빈:** 가끔 같이 놀 때는 그런데,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는 않는다. 성향이 좀 달라서 말이다. 나는 좀 나대는 성격인데 애가 좀 조용한 성격이라 같이 나가 놀면 티격태격할 때도 있을 거고, 한 여자한테 둘이 동시에 꽃하면 귀찮기도 하고.

**작업을 할 때는 어떤가? 공간에 "이혁이 작업하는 동안 조빈은 커피를 마신다"라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혁: 어디서? 어느 다방에서!

**조빈:** 그렇지. 애는 클럽에서 작업을 하고, 나는 커피를 마시고.

이혁: 아, 나를 또 쓰레기 만들었어.

**조빈:** 원래 공동 작업을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보다 우리 색깔을 더 잘 이해하는 작곡가가 생기면서 그 사람에게 열정까지 떠넘겨버렸지. 요즘은 뭔가 '안전빵'이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사례 많잖아. 독립해서 하고 싶은 음악했다가 꼭박 찬 뮤지션을 말이다.

**사장이 시켜서 삼각두 머리는 하기**

**싫다고 하더니 소속사에서 독립하고 난 뒤에 또 말 같기 머리를 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이혁: 광마~ 이마~

**조빈:** 이런 헛소리 좀 다 실려달라. 만천하에 애가 이런 능이라는 것 좀 일리게. 하여튼 노래 해서 인기를 얻으면 멀쩡한 노래도 부르고 싶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노라조'라는 정체성은 흐려지고, 초심이 사라질 것 같더라고. 독립이라는 건 오히려 '정상적인 짓'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다. 게다가 특이한 머리를 하면 얼굴로 가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좋다. 나이를 먹으니 주름이 늘어서...



“  
진짜 남자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남자다.”

들이 각각 MAXIM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조빈:** 아마 애는 솔로로 활동할 때였을 거다.

**이혁:** 맞다. 그 앨범 금방 망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조빈:** '남자'라는 노래였지.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야심차게 망했잖아.

**이혁:** 음만 우라지게 높고 말아야... 원래 그렇게까지 높은 노래는 아니었는데, 사장님이 무조건 높게 부르라고 했다. 3옥타브 '솔#'이면 '쉬즈 곤'보다 높다.

**조빈:** 다음엔 3옥타브 '시' 한 번 가는 거 어때? 3옥 시~ 옥사~ CF 한번 찍어야지. 때가 썩어야익! 이혁 마시던 똥려요! 이야아이아아~! 이런 거?(웃음)

가장 애착이 가는 자신들의 노래를 하나만 꼽자면?

**조빈:** 우리 노래지만 들으면 소름이 짝 돋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노래가 있다. '멍멍이'라고, 우리가 시치미 뚝 떼고 진지하게 부른 유일한 노래가 아닐까 싶다.

'형'이라는 노래도 굉장하더라. 원래 제목은 '변비'였다고?

**조빈:** 같은 노래인데 가사만 다르다. 그런데 사장님이 노래조 스타일의 발라드를 불러야 한다며 '변비'를 밀었지. 근데 판단 착오였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통과되지 않더라. 아예 방송 금지곡이 됐지.

**이혁:** 양학선 선수의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방송국에서 시켰을 리도 없는 게... 설마 우리 노래를 시켰겠는가. 어쨌든 우리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참 가슴 벅했다.

MAXIM이 노래조를 ICON으로 섭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조빈:** 글썬... 우리는 'B급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A급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희망', 뭐 그런 게 아닐까 싶다. 1등급은 아니지만 딱히 구린 것도 아닌 '완성도 높은 B급'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되려나?

'멋진 B급'인 당신들이 우리에게 '진짜 남자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이혁:** 롱 타임~

**조빈:** 그게 진짜 남자지.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이혁:** 새 이즈 개 장난 아니제!

**조빈:** 진짜 남자는 말야... 타고 난 능력으로 '오래' 가가지, 외부적인 크림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혁:** 크림이라니, 말 크림?

**조빈:** 그거 되게 좋다. 애가 엄청 가져다주거든. 아마 그거 팔았어도 돈깨나 모았을 거다.

스X리온(포장에 말 로고가 그려진 사정 지연용 크림 브랜드) 말하는 건가?

**이혁:** 맞아! 그게 이름까지 알고 있잖나!

**조빈:** 그래, 스X리온! 그거 최고지. 듀크의 히트곡 있잖아. '스X리온~!' 이거 아닌가? '오래가는 그대гаа~ 스X리온~!' 이거 우리 '야생마' 할 때 협찬 안 해주나?

**이혁:** 형을 위해서 특별히 1,000mL짜리?

그만 그만 그래서 진짜 남자가 뭐란 말이다.

**조빈:** 진짜 남자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남자다. 솔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내가 한번 무릎을 꿇음으로써 분쟁을 해소할 수도 있고, 내 사람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 혹은 여자 친구에게 청혼을 하며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준단거. 그렇게 따지면 난 진정한 남자네? 내가 진짜 얼마나 무릎을 자주 꿇었는데. "미안해 스X리온이 짝퉁이었나 봐! 이제 이 양으로는 안 돼!"라던가.

스X리온에 제대로 꽃힌 것 같은데, 이 이미지로 막 나가도 괜찮은 건가? 사정 지연제... 괜찮겠어?

**조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한다고 전부 실어주진 않을 거다. 이게 다 MAXIM이니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에둘러서 말하는 집지가 얼마나 많은가. '섹스' 이러면 될 것을 "그날 밤 그와의 쿵딱쿵딱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 그러니까 '스X리온' 이런 얘기도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든 가식적이지 않은 게 좋다.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다. 끝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빈:** 아무리 사람들이 "아, MAXIM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지언정 당신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좋다. 그게 진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솔직한 남자의 모습이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요즘엔 몇몇 집지가 당신들 콘셉트를 따라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앞으로도 계속 솔직하게 바란다.

걱정 마라. 이미 이번 달은 덕분에 백커버부터 무지하게 솔직하잖아?



# THE GODDESS IS SMILING ON YOU

KBS N 스포츠 <라리가 SHOW>를 진행 중인 정인영 아나운서. 대중에게 '물벼락 아나운서'로 더 유명한 그녀가 드디어 MAXIM을 만나 진정한 '축구 여신'으로 거듭났다. 자체발광 외모에 모델 뺨 후려치는 각선미, 거기에 소꿉친 성격까지... 이 페이지를 다 넘기고 나면, 당신도 꿈쩍 없이 그녀의 매력에 빠지고 말거다.

BY 손안나 PHOTOGRAPH Zho

원피스 애즈핏  
필지 모드콘



**여신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다니 심장 떨린다! 우선 오늘 촬영한 소감 한마디.**  
재미있었다. 지금껏 해본 촬영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지만 정말 술술 넘어가듯 찍은 것 같다. 에디터가 사람 자극하는 법을 알던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싫음 말고!"라니.(웃음)

**노출이 심할까 봐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래 작년 초쯤 섭외 연락을 한 번 받았다. 하지만 당시 신인인 탓에 조금이나마 노출로 이미지를 굳히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팀장님한테 엄청 혼났다. "아니 그걸 왜 안 찍었어!"라며.(웃음) 이번에는 스포츠 콘셉트로 촬영한다기에 흔쾌히 수락했지. 부담스럽지 않은 좋은 촬영이 된 것 같다.

**과연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 그럴지도.(웃음)

**처음 촬영장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뭐랄까...**  
크다? 아니면... 거대하다?(웃음)

**그렇지. 엄청 크다! 원래 키 큰 여자들이 키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당신은 어떤가?**  
어릴 땐 정말 콤플렉스였다. 이게 중학교 때 키거든.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도 나보다 큰 남자애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남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연애도 못 해봤대.

**키가 크면 주목도 많이 받고,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물며 친구들이랑 야자 시간에 땀땀이 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 때도 나 때문에 다 걸렸다. 교실을 나가면 나 혼자만 창문 위로 머리가 보였거든. "정인영 너 어디 개!"(웃음) 지금은 큰 키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한 번 본 사람들은 "아, 그때 그 키 큰 친구?"라고 하면서 기억해주시니까.

**방송에 나와 다리 길이를 쟀 적이 있다고 들었다. 무려 110cm라면서? 맞는 바지가 있긴 하나?**  
사이즈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하다. 길이뿐 아니라 골반도 커서 허리에 맞추면 엉덩이가 끼고, 골반에 맞추면 허리가 남는다. 외국 브랜드 중에는 바지 기장이 34인치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주로 입는다.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디서 '정인영 바지 사이즈 34'라고 기사 쓰는 거 아냐?

**차리리 치마를 입는 건 어떤가? 아까 보니까 원피스 아래로 쪽 뽀은 각선미가 프로 모델 뺨 후려칠 정도더라.**  
치마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남들이 입으면 무릎까지 적당히 가리는 예쁜 치마도 내가 입으면 미니스커트가 된다. 심지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엉덩이 가리개'가 되어버리니 원..



귀걸이와 필피 모드곤 축구공 키카

그냥 처음부터 아나운서보다 모델을 할 생각은 없었나?

송구스러우나, 본인의 기질이 장대한 고로...(웃음)  
배대가 좀 큰 편이라 그런 생각은 안 했다.

당신 같은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예전에도 우리 표지 모델로 자주 등장했다. 얼마 전에는 공서영 아나운서도 나왔었다.

선배 성격 엄청 좋지?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공서영 선배를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곤 했다. 지금은 회사가 달라서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한다. 엄청 바쁘기도 하고, 그게 좀 아쉽다.

원조 여신인 최희 아나운서와도 친한가?

당연하지. 최희 선배는 정말 천사다.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아나운서를 시작해 지금까지 일해왔으니,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경력으로 따지면 가장 고참이다. 그런데도 아직 때가 하나도 안 묻은 순수한 사람이다.

최희, 공서영 아나운서랑 친한 걸 보니 다른 스포츠 아나운서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다.

그렇다. 동기인 윤태진 아나운서도 있고, 후배인 박지영, 윤재인 아나운서와도 친하다. 지영이는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키가 나랑 비슷한데 서로 옷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 맞아! 신아영 아나운서도 자기 빼먹지 말라고 했다.(웃음)



스커트 미스치프  
필피 모드곤  
축구 스티킹과 축구화 협맬 코리아

안영 씨의  
슬막하는  
각선미



원피스 아메리칸 어패럴  
구두 스타카토  
필피 모드곤  
축구공과 작전판 힘멜 코리아



그렇잖아도 물어보려고 했다. 어딘가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 “정인영의 대항마, 신아영!” 이라고. 나랑 아영이도 그걸 같이 보다가 땀 터졌다.(웃음) 아영이가 그 기사를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더니 “언니, 내가 언니 대항마래ㅋㅋㅋ 언니 덕분에 검색어 1위 됐어!”라고 문자메시지가 왔다. 고맙다고 하더라. (웃음)

**사실 알고 보면 서로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속은 모르지!**

절대 그렇지 않다. 두 사람 다 축구 파트를 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난 아영이의 대항마가 될 수 없다. 머리로 좋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재원이러니까.

**겸손이 지나치구면, 현재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축구는 원래부터 좋아했나?**  
아니다. 원래는 K리그 A매치만 좋아했는데,

2012년에 우리 회사가 유로 2012 중계권을 따내는 바람에 보게 됐지. 6월부터 고박 한 달 동안 밤낮이 바뀔 정도로 중계를 챙겨 봤다. 한 경기도 안 빼고 말이다. 그때부터 해외 축구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축구뿐 아니라 배구나 야구 경기에서도 얼굴을 비쳤다. 특히 그 물벼락 사건은 빼놓을 수 없지. 안 돼! 이 얘기를 더 했다간 LG 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 같다.(웃음)**

**알겠다. 하지만 그때 기자의 생명인 수첩이 그때 폭 젖은 걸 보고 나도 마음이 아팠다. 엄청 꼼꼼한 스타일인 것 같다.**

그렇다. 내가 욕심이 좀 많아서 될 해도 어설프게 하는 걸 싫어한다. 야구를 볼 때는 기록지에 볼카운트까지 일일이 기록하고, 축구를 볼 때는 국가별 매치 기록을 짝 정리해놓는다. 지금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방송을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방송을 잘 못 하거든.(웃음) 순발력이 좋진 않다.

**어쨌든 당신의 물벼락 사건을 기점으로 세리머니 문화가 180도 바뀌었다고 하더라.**

그런 것 같다. 그때 내가 물벼락을 맞은 후 태진이가 나갔을 때 롯데자이언트 선수들이 물벼락 대신 주스랑 도넛을 주더라고.(웃음) 하관식 같은 것도 하고.

**야구팬들에게는 전보다 조금 심심한 세리머니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맞다. 사실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건 ‘스포츠 아나운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선수들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거다. 절대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외국에서도 자주 있는 세리머니 방식이니까. 심지어 메이저리그 세리머니에서는 물세례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밀가루를 붓기도 하더라.(웃음)



“

축구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매력이 있다

”

필씨 모드콘  
심판카드와 축구화  
함께 코리아



“

유로 2012를 챙겨 보면서 해외  
축구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스포츠는?**

꽤 많은 사람이 묻는데, 언제나 확실하게 답하지  
못한다. 그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어서... 축구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고, 배구는  
짧은 랠리가 계속될 때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농구는... 뭐랄까, 상 남자들의...

**농구 얘기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좋잖아.(웃음) 근데 유일하게 지금 농구  
프로그램만 안 하고 있어서 아쉽다. 요즘은  
배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거든.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웃음)

**아수를 밝히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인데...  
그러고 보니 당신도 이제 서른이다.**

아하하하! 여자 나이 서른은 매력이 생기는  
나이다. 뭐가 어때서?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2013년에는 워낙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일곱 번이나 나고, 바빠서  
치료를 못 받다 보니 몸도 상하고, 그냥 액땀한  
셈 치고 반갑게 서른을 맞는 거대

톱 르꼬끄 스포르티프  
운동화 류마 by 카시나  
글러브 험멜 코리아  
끼찌 모드곤

“

한번 연애를 시작하면  
경주마가 되어버린다

”

WORDS 조웅재 HAIR 선희(스타인플로워) MAKEUP 조희(스타인플로워) VIDEO 김상수 ASSISTANT 정혜민 김소윤 HELP 서경대학고 최구림

**트위터로 짐을 본 결과, 2014년에 연애할 확률이 66.6%로 나왔다며?**

그냥 요즘 힘들어서 해 봤다(웃음) 사실 연애하기가 쉽진 않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연애를 시작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멀티태스킹에 약하거든. 한번 연애를 시작하면 아주 그냥 경주마가 되어버리니...

**경주마라니! 이렇게 위험한 여자였나? 반할 것 같다. 그래, 사실 나도 내가 무섭다.(웃음)**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이런 남자가 좋다' 하는 것 말이다.**

예전에는 '내 남친이 어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어리지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조건이 아니라 결격사유를 따지게 된 거지. 어쨌든 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질색이다.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 말이다. 그렇다고 너무 쫓대다 안 되겠지만.

**그럼 얘기만 잘 들어주면 당신처럼 사귀 수 있다는 얘기인가? 희망이 보인다!**

같이 있으면 어색한 사람도 싫다.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 동안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말없이 한 시간을 함께해도 편한 사람이 있거든.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도 싫다. 말하다 보니 점점 더 많아지네.(웃음)

**신년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방송에서 "웃을 어떻게 입고 나왔더라"로 이슈가 되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스포츠크를 제대로 아는 아나운서'로 남고 싶다. 이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건강해지는 거다. 입사 초만 해도 체력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못 하니까 몸에 탄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부실해지고... 아, 나 방금 너무 슬퍼 보였나?(웃음)

**괜찮다. 그래도 예쁘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제가 MAXIM 2014년 1월호 표지 모델을 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첫 달부터 왜 이 여자를 찍었느냐면서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웃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나중에 방송에서 저를 보면 "어? 저 여자 MAXIM에서 봤는데, 방송 나쁘지 않네?"라는 느낌이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달라니, 이렇게 식상할 수가!**

무슨 소리! 원래 식상한 게 좋은 거다.  
(웃음) ☺



원피스 애즈핏  
귀걸이와 팔찌 모드곤

“

예쁜 치마도 내가 입으면  
미니스커트가 된다

”



**정인영**

생일: 10월 22일

혈액형: O형

직업: KBS N 스포츠 아나운서

별명: 물벼락 아나운서

대표 프로그램: <라리가 SHOW>

가장 친한 운동선수: 배구 선수 한송이

주량: 컨디션이 안 좋을 날은 맥주

500cc, 좋은 날은 무한정!

COOPERATION 나이키 (080-022-0182) 르포고 스포르타르프 (02-2007-3300) 모드콘 (070-8241-0596) 배일리엔 (02-2205-5566) 미스치프 (010-3334-4843)  
슈즈원 (1577-9286) 어베리안 어베릴 (02-591-3345) 카시나 (031-791-8144) 키카 (02-2268-5005) 에조크 (02-6338-4451) 윙벨 (080-919-1671)

# 공포를 극복하는 법

딱히 이유도 없는데 무언가의 앞에만 서면 정신이 혼미해지나?  
승승장구하는 당신의 발목을 잡을지 모를 공포증! 우리가 없애주겠다.



## ↑ 1

### 죽음에 대한 두려움

2013년 12월 기준,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4.6세, 남성 77.9세다. 평균 수명이 46세이던 1900년대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때 사람들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사는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건 변함이 없으니, 아마 2,0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죽음을 편하게 맞이할 사람은 없을 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너무 무섭다. 건물이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 한순간 혹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행한 상상을 계속 하게 된다.”**

➔ **해결 방안:**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죽음에 관해 생각한다면 당신은 강박장애에 걸린 거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정신과 교수 라마니 더바솔라 박사는 ‘죽음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1. 우선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분석해보자. 10대일 때 당신은 무서운 게 없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지고, 지켜야 할 사람도 늘어났다. 죽는 순간 잃어야 할 게 너무 많아진 거다.
2. 죽음에 대한 강박적 공포가 스멀스멀 떠오를 때는 의도적으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보자. MAXIM의 섹시 화보처럼,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일들을 자주 떠올리며 공포심에 잠기는 걸 피해라.

3. 운동만큼 기본 전환에 좋은 것도 없다.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탈모 현상, 과도한 업무 등 각종 스트레스에 특효약이다.
4.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온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 직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떠올려 적어두자. 그렇게 꾸준히 적다 보면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패턴을 찾게 된다. 그 패턴을 피하면 공포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두려움

2

연설, 사회, 발표, 세상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많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 혼자만은 아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연설의 대가 스티브 잡스도 확률상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발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으니, 너무 괴로워 말고 다음의 방법에 주목해 보자.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심장이 두근댄다. 입을 열면 목구멍 안에서 웬 염소 한 마리가 ‘음매~’ 소리를 낸다.”

➔ **해결 방안:**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을 디데이 전까지 머릿속으로 디테일하게 그려봐라. ‘실패하면 어찌지?’라며 자꾸 망하는 상황을 상상하다 보면 더 긴장하게 된다. 물론 긴장은 패망의 지름길. 발표하려 앞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당신을 쳐다보는 얼굴들, 사회자 근처에서 나는 싸구려 향수 냄새까지 머릿속으로 차분히 상상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다.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긴장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 3

## 공중화장실에 대한 두려움

‘공중화장실 공포증’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안을 느껴, 소변이 마려운데도 오줌을 배출할 수 없는 증상이다. 변기 물을 내려 자신의 배뇨 소리를 감추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누군가 벌떡 들어오면 오줌이 안 나온다. 들어온 사람이 내 옆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갈기고 나갈 때까지 멀뚱히 서 있어야 했다.”

➔ **해결 방안:** 요도의 근육을 움직이는 골반 기저부는 아무리 몸을 베베 꼬며 움직여보려 해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메릴랜드 대학의 부교수이자 ‘공중화장실 공포증 연대’의 대표 스티븐 소이퍼 박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소변이 안 나올 때 소변기 앞에서 서서 30초간 숨을 참아 보라고 조언한다. 어떤 원리인지는 소이퍼 박사도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 방법이 한 번도 안 통하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성공하면 계속 통하게 돼 있다.”고 장담했다.

이런 공포증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한 공포증

### Ithyphallophobia

#### 발기한 성기 공포증

단단하게 선 거시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하는 무서운 공포증. 인기 어렵겠지만, 남성에게도 종종 발견된다고.

### Parthenophobia

#### 처녀 공포증

경험이 없는 처녀와 관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다. 새하얀 카펫을 더러운 신을 신고 밟을 때 느끼는 불안함과 비슷한 걸까?

### Coulrophobia

#### 광대 공포증

TV에 광대만 나와도 발작을 일으킨다. 이 사람들은 맥도날드는 절대 못 먹겠네?

### Gymnophobia

#### 벌거숭이 공포증

어떤 사람들에게겐 옷을 벗는 일이 죽을 만큼 두렵다. 샤워도 옷을 입고 하려나?

### Paraskavedekatriaphobia

#### 13일의 금요일 공포증

서양에서 ‘13일의 금요일’은 불운의 상징이다. 비록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들은 숫자 13과 관련한 미스터리 사건을 파헤치며 무서워한다.

### Porphyrophobia

#### 보라색 공포증

도깨비도 보라색을 무서워해 팔죽을 싫어한다던데?

### Hippopotomonstrosesquipedaliophobia

#### 길이가 긴 단어 공포증

단어를 분해해보면 ‘하마’라는 뜻의 ‘hippopotamus’, ‘기괴한’이라는 뜻의 ‘monster’, ‘긴 단어’라는 뜻의 ‘sesquipedalian’이 섞여 있다. 직역하면 ‘하마처럼 기괴하고 긴 단어에 대한 공포증’. 이름 자체가 공포를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공포증이다.

### Ergasiophobia

#### 일 공포증

이 공포증은 ... 으악! 편집장님, 저 이만 퇴근해도 될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서워요...

# Face your Fear

## 대립 상황에 대한 두려움 4

별것도 아닌데,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극도의 대치 상황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몸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서 상황을 똑똑하게 해결할 엄두가 안 난다.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솟아버리든 얼른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

**“상사가 무슨 말만 해도 나를 꾸짖는 것 같고, 여자 친구는 입만 열었다 하면 내 말에 태클을 건다. 업무상 거래처와 협상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속이 울렁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욕을 한 바가지 내뱉고 싶어진다.”**

● **해결 방안:** <갑쟁이의 갈등 가이드>의 저자 팀 어시니 박사는 대립 상황에서 다음의 다섯 단계를 따르라고 조언한다.

**1단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라. 이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격식을 차려 말하지 않으면 무식하게 우기는 것밖에 안 된다. 의견을 전하고 나면 상대방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되물어보라.

**2단계:** 상대의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따라 말해라. 당신이 상대방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3단계:** 문장 사이사이에 “그런데”, “그리고”라는 말을 써가며 차근차근 서로의 입장을 되짚어라.

**4단계:** 두 사람 다 원하는 바를 최대한 얻는 방안을 모색해라.

**5단계:** 다음 만날 약속을 정하라. 별로 어렵지 않지? 무작정 상황을 피하지 말고 차분히 5단계를 밟아 갈등을 잘 해결하면 된다. 겁낼 거 없다고!

## 비행에 대한 두려움 5

40%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는 걸 두려워한다. 너무 많다고?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비행공포증은 고상공포증과 폐상공포증을 포함한다. 게다가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서 꽃향기가 날지, 방귀 냄새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복불복의 상황 또한 공포를 유발한다. 원래

비행기 안에서는 퍼질러 자는 게 정답이지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 온다면 다음 사실에 주목하라.

**“인기 미드 <로스트>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을 보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한반도 밖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이 트라우마는 언제 없어질까?”**

● **해결 방안:** 비행 중 염통을 찌그러들게 하는 무시무시한 현상들. 하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첫 번째, 난기류. 비행 중 선체가 흔들리는 건 비행기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바깥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안전벨트 사인에 빨간불이 켜지며 승무원들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건, 당신이 화장실을 가다가 다른 승객의 무릎 위로 넘어질까 봐 그러는 거다. 두 번째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음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고, 가끔 철쭉거리고 웅웅대는 소리는 에어컨과 선실 동력기가 만드는 소리(물론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추면 X되는 거지), 어차피 비행기 사고는 대부분 이륙 후 3분 이내, 혹은 착륙 전 8분 이내에 발생하니, 나머지 시간은 마음 폭 놓고 와인이나 마시는 게 마음 편하다.

# 6



## 바이크에 대한 두려움

땡 뚫린 국도를 달리는 질빠진 바이크보다 썩신 무생물이 있을까? 한가한 일요일 오후, 매끈한 여자 한 명 뒤에 앉히고 도로를 무한 질주하는 상상을 해본다. 하지만 그 꿈 같은 몽상은 아스팔트에 얼굴이 강판 위 감자처럼 곱게 갈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바이크 소리가 들리면 언젠가 들은 말이 떠오른다. ‘저거 타면 목이랑 등이 180도로 꺾여서 죽는데.’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바이크에 대한 로망이 공포로 변했다.”**

● **해결 방안:** 바이크의 위험 요소를 이해하면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이크 사고의 92%는 운전자가 혼자서 운전법을 터득한 경우나 지인에게 ‘야매’로 배운 경우였다. 그러니 돈 아끼기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의 바이크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자. 안전한 공간에서 먼저 운전을 해보고 계속 탈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 다음으로 주의할 것. 음주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운전자가 사망한 바이크 사고의 50%는 음주 사고였다. 그러니 바이크를 몰고 나갔을 땐 술 냄새도 말지 말자. 마지막으로 바이크에 타기 전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말자. 안전성이 검증된 헬멧을 쓰고, 눈에 잘 띄는

화려한 옷을 입어라. 바이크 사고는 운전자가 튕겨 나가 도로 밖 도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빨리 띄느냐가 관건이다. 바이크 타는 남자는 자유로워 보인다고?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물론 그 맛에 바이크를 타겠지만.



## 해고에 대한 두려움

대한민국 직장인은 평균 2.8회 이직을 한다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바까지 치면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보통 11개의 직업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러니 그중 한두 번은 질려서 관둔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신도 겪을 수 있으니, 다음을 잘 숙지해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보자.

**“책상 비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어색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해고 통보를 문자로 했으면 싶을 정도다.”**

**▶ 해결 방안:** 아무리 많이 질려본 사람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태연할 수는 없다. 대부분 사람은 해고를 당하면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며 멘탈에 데미지를 받게 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처음에는 상황을 부정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갑자기 그 화가 슬픔으로 변하며 상황을 인정하는 거다. 게다가 문득 ‘이젠 늦잠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번지기도 한다. 이 점을 숙지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감정을 잘 컨트롤하도록 하자.

**“직장에서 질리면 당장 스마트폰 요금이며 방세를 낼 수 없겠지? 그럼 서울역에 나앉아야 하나?”**

**▶ 해결 방안:**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건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민약에?’, ‘혹시?’라는 말을 하며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건지기 힘든 상태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팀 어시니 박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민약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내가 민약 해고를 당하더라도 집세는 내야 한다. 그러려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 이번처럼 질리는 꼴 나지 않으려면 좀 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해야겠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계획이 잡히기 시작한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치법을 먹으면서 적응해왔는데! 다른 데 가면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에 쥐가 난다.”**

**▶ 해결 방안:** <뉴욕 타임스>의 국제부 에디터이자, <사장실로 가는 길>의 저자 아담 브라이언트는 “문득 찾아온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그가 인터뷰한 수많은 경영진이 해고가 그들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증언한 것.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번 직장에서 해방되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다음 직장을 구하는 면접에서 왜 이전 직장에서 질렸다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허가 얼어붙는다.”**

**▶ 해결 방안:** 면접관은 당신이 어떤 식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지 궁금하다. 회사는 위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과거에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면접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당신이 질리던 상황과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는지 차분히 설명해라. 면접관들은 단 한 번도 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당신을 더 좋아할 거다. 🍀

**Don't Panic!**  
무서울 때 정신 차리는 법

### STEP 1 숨을 너무 많이 들이마시지 마라!

멘붕 상태에선 숨이 가빠지기 마련. 하지만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머리가 더 어지럽다.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했는데, 과호흡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 무섭거나 당황했을 때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해야 한다.

### STEP 2 들숨, 날숨을 컨트롤하라!

호흡을 조절하는 동시에 공포로부터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MAXIM 독자들에게만 살짝 공개할 테니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시길. 첫째, 감지로 콧구멍 한쪽을 막고, 뿔려 있는 다른 한쪽으로 3~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킨다. 둘째, 감지를 반대편 콧구멍으로 옮겨 끼운

후, 조금 전까지 막혀 있던 콧구멍으로 아가 들이마셨던 숨을 천천히 내린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어때? 조금 나아졌나? 그럼 이제 고개를 들어 MAXIM을 보면서 콧구멍을 파고 있는 당신에게 꽃한 냉정한 사람들의 시선을 두 눈으로 확인해라. 쫓지 마! 이것만 버티면 세상에 무서울 건 없어!

대걸레와 걸레짜기통 아직도 가격미정  
문서 새단기 맥심 경영지원과 소장  
부튼 원피스 그거 너 가져

# 악몽재현. 또 다시 화보 폐기 처분사태



인쇄를 불과 4일 남기고 느닷없이 화보 폐기라니, 정말 우리에게 왜 그러지...

MODEL 000 ⇒ 에디터 김희성 WORDS 이영비 PHOTOGRAPH Zho  
최수고 김도훈 김상수 김소윤 박을 박정욱 유승민 정성영 장혜민



## 어쩐지 요즘 우리 너무 평화롭다 했어

2012년 5월호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화보 촬영 잘 마치고, 인터뷰 잘 하고, 사진 보정에, 페이지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인쇄일만 기다리고 있던 중 또 다시 청천벽력같은 전화가 MAXIM으로 날아들었다.

MAXIM은 이번 2014년 1월호에 들어갈 세컨드 화보로(메인 화보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건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000 양을 섭외해서 화보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소속사 임원이라는 사람이 "이번 화보를 없던 일로 할 것이니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설득하고 절충안을 제시해도 막무가내였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납득할 수 없던 이유들도, 해당 회사 측과 오고 간 뒷골 핑기는 실랑이도... 폴 스토리는 또 다시 미국 속에 묻고 가야한다. 새해를 명예훼손이니 소송이니 하며 시작할 순 없으니까. (촬영 전에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 그제 누군지 아는 독자님들 계시는데,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또 싸우기 피곤하네요.) 예정했던 촬영이 캔슬되는 일은 비밀비재하지만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후에, 그것도 인쇄 직전에 밀도골도 없이 없던 일로 하라는 요구는 난생 처음... 은 아니고 이게 두 번째다. 머리가 멍해지며 1년 9개월 전의 악몽이 리플레이되는 듯한 데자뷰를 느꼈다. 인쇄 예정일까지 불과 4일을 남겨 두고, 8페이지나 되는 세컨 화보가 펍크나버렸으니 이걸 대체 뭘로 메꾼단 말인가?

2013년 12월호를 정상 발행하고, 망년회를 하면서 '올해도 이리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싶었다. 남보다 한

달을 빠르게 사는 월간 잡지사의 특성상 새해 1월호 제작 작업을 하다 보니 정말 해가 바뀔 줄 안 걸까. 보신과 종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아, 운명은 MAXIM의 2013년을 굵게 보내 줄 생각이 없었나 보다.

담당 에디터는 알갛게도 1년 9개월 전 똑같은 일을 당했던 김희성 에디터. 그게 벌써 21개월이나 지난 일이군. 그녀는 낯을 붉혔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초점 없이 모니터 바탕화면을 보고 앉아 있다.

MAXIM 편집부에서 가장 피곤한 업무인 표지 모델 섭외, 촬영을 몇 년 간 전담해오다 드디어 이번 1월호에 처음으로 손안나 에디터와 배터 터치를 시켰다. 연말에 좀 쉬게 해주려고 표지가 아닌 세컨드 화보를 맡겨서 짐을 좀 덜어주려 했는데, 의외의 복병이 문턱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멍 때리던 희성 에디터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섭외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다. 굉장한 멘탈이다. 하지만 섭외가 될 턱이 없다. 피팅 모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브 화보군 연예인을 인쇄 직전 무슨 재주로 섭외하고, 화보 촬영까지 하겠다... 어떤 셀레브리티든 사실 이렇게 촉박한 일정으로 섭외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연락 자체를 불쾌해하기 십상이다. 누가 봐도 '뭔가' 펍크 나서 땀땀용으로 연락한 티가 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까이고 거절당하며 다음 날까지도 하루 종일 우울하게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김희성 에디터에게 다가가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 "됐다. 그만 해" 수화기를 든 손을 풀썩 내려놓는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그냥, 그걸... 하자."

## 절망의 화보. 레퀴엠을 울려라

독자들에게 이제 꽤 알려진 얘길 거다. '맥스에서 화보든 기사든 담당 에디터는 자기가 맡은 지면이 펍크 나면 직접 나와 땀땀 화보를 찍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책임지고 그걸 다시 메꾼다.' 원래는 "후퇴 하느니 수류탄 들고 탱크랑 자폭이라도 해" 같은 구호였는데 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룰이 2012년 5월호 때 처음 현실이 되었다. 사상 초유의 표지 증발 사태는 세간의 화제가 되며, 이전 빼도박도 못하게 다 아는 얘기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김희성 에디터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그 후로 급한 촬영이 있으면 자질하게 모델 대신 카메라 앞에 서 본 경험이 적지 않고, 당시 그 '절망의 표지'를 좋아해주는 마니악한 팬들도 꽤 생겨서 이 벌칙 자체가 곤혹스럽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다. 자기가 찍은 수백 장의 촬영 데이터를 'Shift+Delete' 하고 다시 이 사진을 찍은 포토그래퍼도, 카메라 앞에 선 담당 에디터도, 현장에서 똘 다른 모든 스태프도 그리고 나도 표정이 즐거울 리 없다. 마감 작업하느라 며칠 째 집에 못가고 추레한 물골로 원고 쓰다가, 뜬금없이 스튜디오에 내려가 찍은 저 사진... 뒷모습이니 망정이지, 사실 앞에서 보면 생얼에 다크 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다. 다행하(?) 이번엔 표지도 아니고, 마음 먹으면 미국 본사에 요청해서 우월한 백아 처자 화보로 아무도 모르게 땀땀할 수도 있지만, 눈 펍펍 오는 날 빅 엿을 선사하신 그 님, 이거 보시고 눈곱만큼이라도 미안한 마음 가지시라고 '절망의 화보' 2탄을 뿌린다. 1탄 때처럼 대걸레를 즐겨 하다 빠져서 이번엔 오펜타를 잡으라 했다. 이것이 부디 무탈한 2014년을 위한 액션이 되길... ☹

# MAXIM

KOREA

## UNBELIEVABLE PANIC AGAIN!

1년 9개월 만에 빅엿  
또 먹은 맥심 편집부.  
본지에도 못 털어놓는  
폐기처분 폴 스토리

## GEAR

### 탄소강 오함마

그라스하이바 손잡이

## ICON 노라조

극강뽕끼, 맥심이  
한 수 배우다

## FACEBOOK

페북 맥심 페이지 '좋아요'  
최고급 보드웨어를 쓴다  
[facebook.com/maximkorea](https://facebook.com/maximkorea)

## MISS MAXIM

2013 WINNER 김소희  
2014 미스 맥심 콘테스트

2014년 1월호  
정가 5,900원



브라, 팬티 섹시쿠키  
구두 슈즈원

# 2013 MISS MAXIM The Winner

2013년을 뜨겁게 달궜던 MISS MAXIM 콘테스트가 막을 내렸다.  
2010 최혜연, 2011 이명희, 2012 단영의 왕관을 물려받을 2013년의 최종  
우승자는 김소희. 그녀가 독자들의 성원에 고혹적인 피날레 화보로 보답한다.

BY 김희성 PHOTOGRAPH Zho

촬영 현장  
흔치보기



슬립 섹시쿠기  
구두 슈즈원



“

MISS MAXIM 콘테스트  
우승 비결은  
자신감 덕분이 아닐까?

”



2013 MISS MAXIM이 된 걸  
축하한다! 기분이 어떨까?  
OH~ YES!!! > <

콘테스트 우승 후 누가 가장  
기뻐하던가?  
엄마요... ㅋㅋㅋ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자신감과 큐티와 섹시.. 등.

우승 상금으로 뭐할 건가?  
등회 여행! 이 기쁘잖아  
차탈북금이.. ㅠ3ㅠ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  
난 처음부터 너가 될 줄 알았다  
수 거짓말 하지마 이자식들!!!

지금까지 MAXIM과의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음.. 좋았던 촬영이라면 역시  
코스프레 10월호죠~?

잘 만들거나 잘 먹는 거울칠 별미가  
있나?  
4계절 LHL 치킨! 만드는 건 정말!  
전 당피니카랑~!

스스로 가장 섹시하다고 느낄 때는?  
사우지에서 거울을 봤을 때  
보는 목선!?

내 남자라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은?  
이름새! 저가 짱짱거리는걸  
받아줄수있어야돼요~♡

첫 데이트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나?  
무.. 마음만 맞으면  
입술까지 드려줬어요! 우~ ㄴㅇㅇ

파티에서 끝내주게 잘 놀더라!  
파티에서 주목받는 비법은?  
우연 놀랐! 불이나 스테이지!  
두눈의상은 필수! 섹시한 몸짓은 필수

들어왔던 작업 멘트 중 가장  
짜릿했던 것은?  
멘트 보단 스킨십이 짜릿은하늘.. ㅎ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지는 순간은?  
뒷모습이 등장할때!> .  
고민던 적은 아적.. ㄱ..ㄱ

살면서 해본 가장 미친 짓은?  
브라질에서 클럽가본것..  
우서웁음.. ㄱㄱ

MAXIM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마디!  
다들 새해 복으로 저같은  
여친구 생기세용>>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해여구용!  
2이4년 행복한일만  
가득하기를 ♡





“

작업 멘트보다는  
스킨십이 아무래도 더 짜릿하다

”

HAIR&MAKEUP 장혜민 VIDEO 김상수 ASSISTANT 박정옥 김소윤  
COOPERATION 세시류키(02-320-6666) 슈즈원(02-3443-1703)

# 2014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태프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  
온라인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촬영

◆  
MAXIM PARTY 포스터 모델 및 MAXIM의  
PARTY GIRL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014년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  
4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

◆  
우승 시, 2015년 MAXIM 매거진 정규 월호  
(1월~12월호 중 하나) 표지 모델로 선정

2013 MISS MAXIM  
최종 우승자 김소희

구두 슈즈원

## 참가 신청 방법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을  
10장 이상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벌써 투표  
시작했다고?

MISS  
MAXIM  
신청하기



## 콘테스트 진행 방식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MAXIM을 통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 1 인기 투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2주 간의 인기 투표 배틀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한다.  
예선 통과자에겐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화보  
촬영에 들어간다. '이달의 MISS MAXIM' 화보는  
MAXIM 한국판 정규 월호 매거진에 실린다.

이후, 2014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한다.  
16강부터는 상금액수도 더욱 높아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란다!

## 문의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missmaxim@maximkorea.net

금주, 금연, 금욕

# 修能神功

수능신공

## Chapter.3

### 찍기 신공

정답의 법칙을 알면 찍어도 맞출 수 있는 게 수능이다.  
죽어도 모르는 문제, 찍어서 반 이상은 맞힌다는  
맥심의 수능 고수 2인의 사파 무공! BY 유승민 이영비



편집장 이영비  
수능 점수: 393.5점(400점 만점)  
주특기: 4교시 외국어 영역  
광주과학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수석에디터 유승민  
수능 점수: 396점(400점 만점)  
주특기: 1교시 언어 영역  
서울강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MODEL 미스맥심 김수아, 김지예, 에디터 박정욱, 김상수, 손안나, 조웅재, 김소윤, 김진욱, 김희성, 임원비서 정석영  
PHOTOGRAPH YuD, Zho



야, 안나 진짜  
1년 풀었어?

### 지난 호 이야기...

〈수능신공〉 전수를 시작한 후 11월호, 12월호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달이다. 지난 두 달 간 〈수능신공〉의 기본 원리 및 모르는 문제를 빨리 포기하고 넘어가는 원칙, 2회독에 걸친 문제풀이와 제한 시간에 대한 이해, 끝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카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사용할 스킵까지 알려줬다. 지난 호를 보지 못했다고? 모든 기술은 기초가 중요한 법. 어서 MAXIM 홈페이지에서 과월호를 주문하여 읽고 쫓아오도록. 자, 간단히 지난 달 복습을 해 볼까? 지난 12월호에선 아래의 것들을 알려줬다.

**첫째,** 시험 문제 1번부터 끝까지 꼭 한 번 정주행할 때 지켜야 할 이상적인 소요 시간

**둘째,**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가 앞에서 패스한 문제만 재탕 풀이 할 때 지켜야 할 이상적인 소요 시간

**셋째,** OMR 답안지 작성시 지켜야 할 과목별 소요 시간

**넷째,** OMR 답안지 작성할 때 떨지 않는 법, 실수 줄이는 법, 빨리 하는 법, 최고의 컴퓨터용 사인펜 고르는 법

### 찍 타임, 화룡점정의 시간

자, 지난 달 MAXIM까지 정독했다면 1. 포기신공 ▶ 2. 재탕신공 ▶ 3. OMR신공까지, 〈수능신공〉 3단공보의 원리를 이해했을 거다. OMR 답안지 작성까지 했으면 시험 끝 아니냐고? 고민하다가 답을 내지 못한 문제는 선볼리 찍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거다.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차례다. OMR 답안지 작성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를 잡아야 하는지는 지난 호에 설명했다. 자, 이제 OMR 답안지 작성을 마치고 나면 예정대로 아래와 같이 시간이 남아야 한다.

과목	답안지 작성 시작	답안지 작성	남은 시간
국어 영역	종료 7분 전	3분	4분
수학 영역	종료 7분 전	2분	5분
영어 영역	종료 7분 전	3분	4분
사/과/직탐	종료 3분 전	1분	2분

안 풀리는 문제는 마지막에 해결하기 위해 답안지도 공간으로 남겨놓긴 했는데, 앞서 두 번이나 풀이를 시도해도 답을 낼 수 없었다면 필시 어렵거나, 내가 모르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겨우 4~5분을

남겨놓고 대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푼다는 말인가? 풀지 않는다. 여기까지 왔으면 당신은 어차피 그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지 못한다. 지금부터는 정답을 '찍어' 맞추는 기술을 시전할 차례다. 원래 당신은 이 문제들을 틀려야 정상이다. 분명 모르는 문제니까 사실 틀려도 괜찮다. 이미 당신은 〈수능신공〉 1장~4장까지의 시간 안내대로 쉬운 문제들을 다 챙겼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다. 하지만 여기에다 모르는 문제를 몇 개 더 뽀록으로 맞힐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쓸쓸하다.

### 유독 찍기에 강한 녀석들

"몰라서 그냥 찍었는데 맞았네? 해해." 주변에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유독 자주하는 녀석이 있을 거다. '대체 저 지식은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거야? 풀어놓고 찍었다고 구라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잘 찍는 사람이 있다. 비밀은 간단하다. 선택지를 최대한 줄여놓고 찍어서 확률을 높이는 거다. 찍기 상황에 갔다면 이젠 철저히 확률 게임이다. 5개 중에 하나 찍었을 때 정답일 확률은 20%, 4개 중에 찍었을 때 25%, 3개 중엔 33%, 2개 중엔 무려 성공률 50%다. 오답을 하나라도 더 제갈수록 이 도박의 승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당연한 말이지만 답을 정하지 못해서 소위 '찍기'를 하더라도 보기 ①②③④⑤번을 다 놓고 20% 확률로

찍는 상황을 절대 만들어선 안 된다. '찍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박이다. 수능시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니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인 셈이다. 돈분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박에서야 승률이 높은 배팅일수록 배당률이 낮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다. 20% 도박에서 이기든, 33% 도박에서 이기든 배당은 똑같다. 그렇다면 당연히 승률이 높은 도박을 해야 하지 않겠나? 문제를 척척 풀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기를 쓰고 오답을 소거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한 번도 맞기, 절대 피해야 할 20%의 도박

수능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20% 확률로 찍는다는 건 최저 승률의 도박을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문제를 아예 읽어 보지도 못하고 찍는 경우가 그러하다. 더군다나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 압박을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문제는 안 봐도 뻔하다. 그 시험은 볼 것도 없이 망한 거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찍어서 틀릴테니 말이다. 지난 두 달 간 '모르는 문제를 빨리 패스하는 기술,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한 번씩은 건드려 보는 기술' 등을 전수한 이유는 모두 이 20%의 도박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 신공> 시간 압박을 잘 따라다녔다면 찍기를 할 때에도 최소 25% 이상의 확률로 임하게 될 거다. 비록 최종 정답을 추리지는 못했더라도 괜찮다. 명백한 오답을 한두 개 제가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찍었을 때 맞힐 확률이 높아지니 자연히 총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 배팅하기 전에 승률을 더 높여라

찍어볼기의 확률을 25% 이상으로 올렸는데도 아직 정답을 맞히기엔 낮은 확률이다. 배팅을 하기 전에 선택지를 좀 더 줄여 보자. 최종 선택지에 남은 보기가 3개든, 4개든 이 시간대에 문제를 다시 읽고 정상적인 풀이를 시도할 시간 따윈 이미 없다. 이제 공수를 싸야 한다. 문제는 아예 읽지 마라. 수능의 객관식 지문 중에는 지문만 읽어 봐도 무조건 오답인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해, 보기의 말투만 봐도 오답을 가려낼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수능시험 보기에서 정답의 향기를 풍기는 말투는 없다. 하지만 오답의 향기를 풍풍 풍기는 보기는 많다. 그러니 잘 새겨두었다가 요런 놈들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선택지에서 제외해라. 막판 배팅을 하기 전에 단 하나라도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면 당침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가니까 말이다.

### 말투(문체)만 봐도 오답인 보기가 있다

수능시험이라는 건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의 집합체다.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라'든, '틀린 것을 고르라'든, '옳은 설명을 있는대로 모조리 골라라'든, 수능시험의 본질은 O/X 퀴즈다. 그렇기에 출제자는 보기를 만들 때 먼저 참인 명제를 만들고, 이 문장에 거짓의 요소나 오류를 삽입하여 오답을 만들어낸다. 시험 후에 정답 시비가 생기는

것은 출제자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보기를 만들 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정답은 더욱 확실하게, 오답은 더욱 틀리고 과장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보기들을 살펴보자.

- ① 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호의 말을 믿고 있다.
- ① **Every** Professor in the conference is from US.
- ① 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Alice **always** works from 9 am to 6 pm.
- ① A와 같은 현상은 **반드시** B를 원인으로 한다.
- ① (가)이론은 무규범 상태**만이** 일탈의 원인이라 본다.
- ① 사상이 깊은 **누구도** 악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중허진 선택지 중 위와 같은 지문이 보이면 99%는 오답이니 망설이지 말고 제껴버려라.

### 오답에만 쓰이는 단어들

마지막 찍어 풀기 단계에서 문제를 읽을 시간 따윈 없다. 보기만 읽어오 되는데다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 지문의 말투를 슬쩍 느껴보라. 저 보기들의 공통점을 느낄 수 있겠나? 위의 문장에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 말이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표현이 포함되면서 원래의 문장은 서술 대상을 획일화, 극단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명제가 된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한정어들은 그 외에도 많다.

#### <오류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넣는 한정어들>

모든, 항상, 누구나, 아무 것도, 단 한번도, 반드시, 언제나, 일관되게, 하루 종일, 절대로, ~뿐, ~만, always, no~, all, every, not...any, never

감이 오지? 객관식 문제에서 이러한 어휘가 포함된 보기는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오류의 향기를 풍풍 풍기는 보기가 참인





경우는 거의 없다.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문구를 포함하고도 참인 명제를 쓰려면 그 명제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다. 수능시험 출제위원이라고 심라만상을 모두 껴고 있는 건 아니니 나중에 누군가가 한 가지라도 예외 상황을 입증한다면 그 명제는 즉시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출제 오류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위 예시와 같은 명제는 웬만해선 정답으로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은 대개 오류가 있는 명제다. 그리고 그런 보기는 보통 답이 아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해놓고 '틀린' 보기의 뉘앙스를 풀풀 풍긴다면 응시자들이 너무 쉽게 답을 찾아낼테니 말이다.)

**자, 이제 몇 번에 걸겠나?**

시간 압박을 잘 했음에도 풀지 못한 문제는 '어차피 틀릴' 문제이니 틀리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뽀록으로라도 맞춘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대로 오답을 제쳤다면, 선택지는 못해도 3개 이하로 줄었을 걸? 눈 감고 찍어도 정답일 확률이 33% 아니면 50%다. 이제 꽤나 할 만한 도박이 됐다.

이제 드디어 결정의 시간. 몇 번에 걸 것인가. 행운의 숫자라도 있나? 아니면, ①②③④⑤ 중에 출제자가 정답으로 즐겨쓰는 번호라도 있는 건 아닐까?

**마지막 힌트는 OMR 답안지 안에 있다**

지금까지 말한 찌기 요령은 시험지를 보면서 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험지는 필요없다. 오로지 OMR 답안지만 보고 정답을 찾는 기술이다. 그렇게 진짜 있냐고? 있는 것 같다.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나는 이렇게 찍어서 대략 60% 이상의 확률로 답을 맞췄다.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에서 4 문제가 안 풀리길래 평소대로 찍었는데 4문제 다 맞췄다. 나 참, 착하하하!

**①②③④⑤번의 정답 비율은 같다?**

예나 지금이나 수험편에서 떠도는 속설이 있다. 출제할 때, ①~⑤ 보기의 정답 비율이 똑같도록 (각 20%) 낸다는 소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좀 더 정답에 가까운 보기를 택할 수 있다. 에디터처럼 잔대거리를 많이 굴리는 학생은 아마 정답지를 펼쳐놓고 ①②③④⑤가 각각 몇 개씩 있나 세어 본 적이 있을 거다. 어떤가? 정말 5분의 1 비율로 떨어져던가? 모의고사를 분석해보면 ①~⑤번의 정답 구성율까지 신경쓰진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이 소문은 사실이다. 적어도 실제 수능에선 말이다. 매년 수능시험이 끝난 후 과목마다 정답지에 ①~⑤ 보기가 각각 몇 개씩 있나 세어봤다. 정확히 20%로 떨어져진 않았지만 오차 범위는 겨우 1~2% 이내로, 대체로 20%씩 배분하려 애쓴 티가 났다.

**수능이 왜 중요하게?**

“수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한다. '업무 능력의 우열을 가장 잘 변별해주는 테스트는 바로 수능시험'이라는 게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됐고, 이는 기업 채용 담당자 사이에선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에서 직접 개발해 낸 각종 직무 적성평가보다 수능점수를 더 신뢰한다는 것도 적잖이 사실인 듯 하다. 10대 그룹 채용 담당자로 재직 중인 에디터의 친구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졸업 학교나 과를 보는 건 구태에 젖은 학벌 주의라기 보단, 수능 점수만큼 업무 능력 &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드러내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야. 학력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수능 점수를 대략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지." 덜덜덜. 무섭지? 이게 취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라고!

**꼴통 고득점 방지용 변별력 장치**

예를 들어, 어찌어찌 출제하다 보니 정답이 ④번에  
 쓸렸다고 치자. 만약 응시자 중에 ④번으로 밀어버린  
 꼴통이 있다면 개가 상당한 고득점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수능시험의 생명인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다. 시험을 포기하고 한 번호로 밀어버리는 녀석은  
 어느 번호를 택하든 5분의 1밖에 맞힐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변별력이다. <수능신공>을 여기까지  
 읽고 있는 당신이 그런 꼴통일 리는 없으니, 우리는  
 그 꼴통 방지 장치를 역이용해보자.

작성 중이던 당신의 답안지를 내려다 보아라.  
 ①②③④⑤ 중 뭘 찍을지 눈길을 가로로만 굴러지  
 말고, 세로 방향으로 눈을 굴려보라. 이미 OMR  
 카드에 마킹한 다른 문제들은 ①②③④⑤ 중  
 어느 번호를 가장 많이 정답으로 택했나? 그리고  
 어느 번호가 가장 적게 표기되어 있나? 답안지에  
 ①②③④⑤가 동수로 등장하게끔 출제되어 있다면,  
 당신이 택해야 할 번호는?

**가장 적게 표기된 번호를 택하라**

이 정도 되면 감 잡았을 거다. 당신이 찍을 번호는  
 이미 푼 다른 문항을 꼭 훑어봤을 때 ①②③④⑤ 중  
 유독 적게 나온 놈이다. 훑어봤더니 ②가 제일 적은

것 같다' 싶으면 ②를 더 채워넣으라는 말이다.  
 이 압실한 수법이 잘 들어먹히려면 한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당신이 푼 다른 문제의  
 정답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 이미 고득점일수록  
 찍는 것도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니, 참으로 부익부  
 빈익빈스러운 스킬이다.  
 그럼 이 기술은 이미 성적이 꽤나 우수한 수험생만  
 쓰라는 건가?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하지만 나는 이  
 방법을 권한다. 자신이 이미 푼 문제를 밀어라. 자신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나?

**꼼수는 꼼수일 뿐 의존하지 마라**

전에 가르친 한 여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 기술이 매우 그럴싸하게 들렸는지 한 번은 자기가  
 ①②③④⑤ 보기를 각각 몇 번씩 답으로 골랐는지  
 세면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  
 이런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는 꼼수  
 중에 개꿈수다. 이런 꼼수는 잘 쓰는 것보다 쓸 일이  
 없는 게 훨씬 좋은 거다. 그런데 가까운 시험 시간에  
 ①②③④⑤ 보기별 실시간 통계를 내면서 문제를  
 풀다니, 쳐 맞아야 한다.  
 이미 OMR 카드에 마킹한 답안을 바탕으로 ①~⑤  
 중 뭐가 제일 적은지 파악하는 건 눈으로 그냥 쓱

훑어보고 한 눈에 '대충' 파악하면 충분하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건, 시간 상으로 가장 나중에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기술이란 뜻이기도 하다. 이걸 한답시고 그 앞의  
 방법으로 추려낸 보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처음 실력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명백한  
 오답 ①③을 지우고, '언제나, 절대로'와 같은  
 한정어가 들어간 ④를 지웠다면 정답은 ②⑤중에  
 있는 거다. 그런데 이 꼼수를 쓴답시고 '답안지를 꼭  
 훑어보니 ③의 개수가 희박하군 ③으로 찍어야겠다'  
 하지 말라는 거다. 이미 제1 ①③④는 고려하지 말고  
 ②⑤ 중에 상대적으로 OMR 카드에 덜 표기된 쪽을  
 택하면 가장 정답률 높은 선택이 될 거다.  
 '찍는 것도 실력이어야 하는 말, 아젠 이해가 되나?'



**<수능신공> 다음 달 예고 : 국어영역 편**

수험생 독자 여러분, 정독하고 있나? 세 달째가 되니  
 <수능신공> 관련 문의 전화가 종종 온단다. 에디터와  
 미스맥심이 입을 교복을 자기한테 팔란다(응?).  
 이봐, 수험생 독자 여러분! 읽... 읽고 있는 거지?



A full-page photograph of Taylor Momsen lying on her back on a dark plaid rug. She is wearing a white lace-trimmed top and white shorts, with fishnet stockings and black lace-up boots. She is holding a dark electric guitar across her body. Her blonde hair is spread out around her head. S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slight smile. She has several pieces of jewelry, including a chain necklace with a heart pendant, a bracelet, and rings. The background shows a white bedsheet and a dark grey blanket.

# Sexy & Reckless TAYLOR MOMSEN

드라마 <가십걸>의 심대 소녀  
테일러 맘슨이 거친 헤비메탈 록 밴드  
'더 프리티 레클리스' 보컬로 돌아왔다.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 DIANA SCHEUNEMANN



속옷 Deborah Marquit  
셔츠 Christian Benner Custom  
스타킹 American Apparel  
신발 KaufmanFranco

(좌측)  
코르셋 What Katie Did  
하의 American Apparel  
신발 Dr. Martens  
팔찌 Eddie Borgo



“

섹시함을 표현하는 일은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



테일러 맘슨은 이제 겨우 스무 살이다. 그러나 헤비메탈 록 밴드 '더 프리티 레클리스'의 보컬로 노래할 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른다. 그 뿐 아니라 테일러는 배우로서 짐 캐리와 함께 영화 <그린치>에 출연하고, 드라마 <가십걸>을 4시즌이나 소화하는 동시에 마릴린 맨슨과 함께 세계 콘서트 투어까지 병행했다. 게다가 마돈나의 패션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해오고 있다. 이처럼 숨 실 틈 없는 일정에도 자신의 밴드 '더 프리티 레클리스'의 두 번째 앨범 <Going to Hell> 발매와 공연 투어까지 해내는 테일러 맘슨. 드라마, 가수, 모델 일을 모두 소화하며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빠르게 접수하고 있는 아찔한 매력녀를 만났다.

**오늘 MAXIM과의 촬영은 어땠나? 당신을 위해 촬영 장소로 에이스들만 간다는 뉴욕의 에이스 호텔을 특별 섭외했다.**

진짜 멋졌다! 사진도, 장소도 완전 에이스다. 로큰롤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 기타를 직접 가져왔는데 그것도 잘 나왔다. 기존 MAXIM 화보와는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

**자신의 화보와 뮤직비디오 촬영에 직접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인가?**

난 창의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전에 뮤직비디오 'My Medicine'을 공동 연출하기도 했다. 음악을 이미지에 녹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특히 색시한 쪽으로 말이다. 그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드라마 <가십걸>을 촬영하는 동안에 록밴드 '더 프리티 레클리스' 활동을 시작했다. 연기자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가수로 받아들이기 힘들 거란 걱정은 안 했나?**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뜬금없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만들어왔다. 내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음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해 전, 드디어 밴드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작업실을 마련했다. <가십걸> 출연이 확정된 게 열두 살 때였고... 그 뒤로 2장의 앨범을 냈다. 건스앤로지스와 함께 투어도 했고...

**<가십걸>에서의 당신 모습에 열광하는 10대 소녀 팬도 있고, 밴드에서 노래하는 헤비메탈 여성 로커의 강렬함에 반한 남자 팬도 있을 텐데... 팬층의 조합이 정말 독특하다.**

맞다. 두 팬층이 공존한다. 한쪽은 <가십걸>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나이가 좀 있는 록 음악 팬들이다. 또 다른 쪽은 부모님 손을 잡고 내 콘서트 장에 왔다가 노래를 들은 부모님들이 아주 기겁을 하고 서둘러 빠져나가는... 믿기지 않겠지만 한번은 우리 노래가 아이들이 듣기에 부적절하다고 경찰을 부른 부모도 있었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떨까



**투어를 다니면서 황당한 일도 많았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뭔가?**

가장 황당한 사건은... 말해도 잡지에 실을 수 없을 정도지! 그래도 그중에 하나를 뽑자면, 공연 중에 어떤 여자 관객이 무대 위로 뛰어들어 우리 노래에 맞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진 사건이다. 그 시작이 미국이었고, 아르헨티나 공연에선 다들 흉량 벗고 아주 개 난리가 났었지.

**당신은 예쁘고 도발적인 매력을 지녔다. 당신을 가장 색시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나?**

내가 무대에 어떤 옷을 입고 오르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공연 중에 감정을 파뽀풀하게

폭발시키는 게 내 색시함의 핵심이다.

**부모님을 콘서트에 초대할 적이 있나?**

그렇다. 하지만 가능한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를 드린다.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공연이 없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음악을 늘 지지해주시다.

**록 말고 다른 장르에 도전해볼 생각은 없나?**

노래만 좋다면야.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레코드를 수집한 덕에 항상 비틀스, 레드 제플린, 더 후 같은 최고의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컸지. 그래서 난 X같은 음악은 정말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고!

셔츠 Christian Benner Custom  
하의 Tripp NYC  
신발 Tania Spinelli



→  
**Taylor  
Momsen**

테일러 맘슨

키: 173cm

고향: 미국 미주리 주

생일: 1993년 7월 26일

특이 사항: 러시아계 혈통,  
여동생 슬로안 역시 배우로  
활동 중

대표작: 드라마 <가십걸>

영화 <그린치>, <헨젤과  
그레텔>, <스파이 키드2>

밴드 포지션: 보컬, 기타

트위터: @taylormom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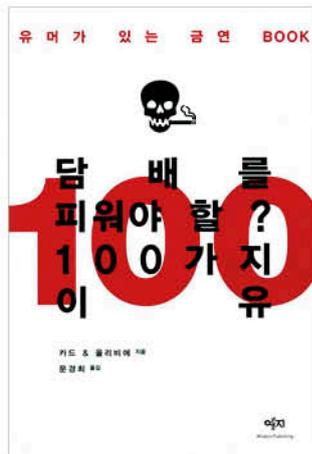
HAIR: ANTONIO DIAZ; MAKEUP: SARNANTHA TRINH; STYLING: JARNES ROSENTHAL

# 삶을 더욱 질편하게 만드는 책

 새해를 맞아 어김없이 다양한 결심들을 하지만 어차피 또 못 지킬 거다. 그럴 바에야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나 배우자. 뽀센 자기계발서 대신 에디터가 추천하는 신년 맞이 필독 도서를 읽어라! BY 김희성

→ 올해도 별 일 없이 지나가고 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푸르른 말의 기운을 받아서 그러지 뭔가 새로운 결심들이 선다. 아, 아니다. 원래 새해에는 늘 그랬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하고 말리라'는 비장한 계획부터 다이어트, 저축 등 매년 제사 지내듯 하는 결심들도 있다. 당신도 뭔가 결심을 했을 거다. 올해는 담배도 끊고 술도 좀 덜 마시고 몸도 좀 키워야겠... 됐고, 신년 계획 같은 거 세워 봐야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다. 매년 이것을 반복하느라 쓸데 없는 스트레스만 더 받는다. 우리는 2014년에도 치킨이 먹고 싶은 땀 치킨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땀 담배를 피우며 그렇게 잘 살아갈 것이다. 술을 즐기고, 담배를 끊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저염식을 해봤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다. 피워도 죽고 끊어도 죽는다면 그냥 질편하게 놀고 먹고 자며 그렇게 이 풍진 세상을 마음껏 즐기자. 이만큼 값진 새해 목표가 또 있을까?

## 금연 따위 개나 줘!



### 담배를 피워야 할 100가지 이유

카드&올리비에 지음 | 문경희 옮김 | 예지 | 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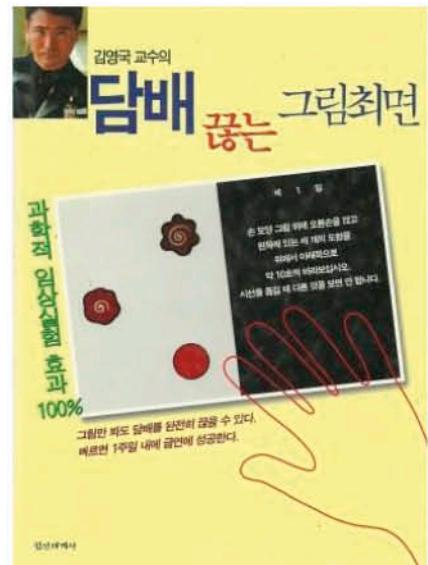
금연을 선언한 한 남자가 참을 수 없는 흡연의 유혹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담배를 피워야 하는 이유 100가지를 필사적으로 찾는다. 예를 들어 '가래기침을 하게 된다고? 아침마다 내가 아직 살아 있음을 온 집안에 알릴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이다. 담배를 피워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의 기획이던데 이 책을 보면서 '아, 맞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다 책장을 덮게 된다는 게 함정.



### 마지막 담배

브루노 프라이젠도르퍼 지음 | 안성찬 옮김 | 들녘 | 10,000원

사랑 얘기지만 흔한 사랑 얘기가 아니다. 담배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를 하나의 러브 스토리로 묶어냈다. 여자와 담배 얘기가 함께 있다니, 고것 참 재밌겠다. 소설은 '나'라는 익명의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여섯 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들의 성격은 각각의 독특한 흡연 습관으로 묘사되고 있다. 만남부터 이별까지, 연애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담배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니 절로 담배가 땡긴다.



### 담배 끊는 그림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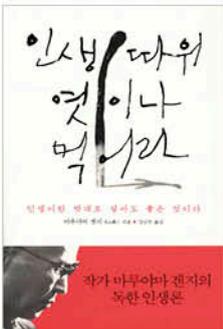
김영국 지음 | 정신세계사 | 10,000원

사막, 시계, 폐, 촛불, 재떨이 등 그림만 봐도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마법의 책. 총 20일 과정으로 그림을 보면서 특정한 상상을 하게 해 금연에 성공하도록 유도해 준다. 한때 TV만 틀면 나오던 그 '레드 션' 교수님이 지은 책이라 믿어볼까도 싶지만 재떨이, 촛불 같은 그림을 보고 있자니 더 담배가 땡기네.

나 말고 책을 보라고



## 멋대로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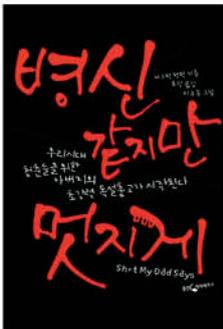


### 인생 따위 엇이나 먹어라

마루아마 겐지 지음 | 김난주 옮김  
| 바다출판사 | 12,000원

한평생을 독고다리로 살아온 저자의 인생론이 담겨 있다. '나 세상 좀 아네'하는 투의 끈대 같은 인생론이 아니라 '애절한 사랑 따위 같잖다', '연애는 성욕을 포장한

것일 뿐이다', '태어나 보니 지옥 아닌가', '아직도 모르겠나, 직장인은 노예다' 같은 독설을 날리며 가족지 말고 깡다구 있게 살라고 말한다. 그래봤자 어차피 어른들의 충고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보다는 훨씬 위트가 된다.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 존재 파이팅! 인생 따위 엇이나 먹어라



### 병신같지만 멋지게

저스틴 헬펀 지음 | 이크종 그림  
| 호란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13,000원

'네놈은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니까, 돈 쓰지 마!', '스티븐 스피버그도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냥 병신이었을 뿐이야. 심지어 너보다 못생긴 병신',

'넌 네 살이야. 이제 변기에 똥을 싸야 돼. 밀고 당기다가 중간지점에서 타협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무조건 네가 변기에 똥을 싸는 걸말로 가야 돼'...는 이 책을 쓴 미국판 MAXIM 에디터의 아버지가 날린 인생 충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 5분 편의점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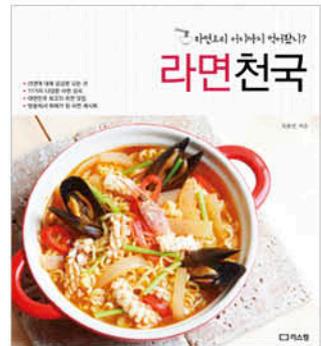
미상유 지음 | 길벗 | 15,500원

새해에는 건강 좀 챙겨보겠다며 몸에 좋다는 해독주스 같은 걸 먹어보지만 이런 된장, 세상의 온갖 죄를 삼키는 듯한 맛이다. 비싸고 맛있는 거 먹느라 받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것만 같다. 최소한의 재료와 과정으로 만드는 맛있는 초간단 편의점 요리 레시피를 총망라한 책이 있다. 김밥피자, 스팸초밥, 오지치즈프라이, 보양라면 등 즉석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5분 조리법을 배울 수 있다. 퍼킹, 해독주스! 지옥에나 떨어제!

### 라면 천국

최용민 지음 | 리스컴 | 11,200원

김치우유라면, 명란볶음라면, 차돌박이라면, 김치버터볶음라면, 간짜장라면, 중국식 볶음라면, 우유라면, 굴탕라면, 오징어라면전, 라면탕, 라꼬치, 라면달걀말이, 냉라면... 아아, 이름만 들어도 배가 고파지는 이 라면들이 책에 나온다. 그러나 새해에 이 책을 보는 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라면을 먹게 될 것을 의미한다. 아, 지금 새해 2신데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싶어.



### 모든 것을 먹어본 남자

제프리 스타인가튼 지음 | 이용재 옮김 | 북캐슬 | 13,000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먹어봤다는 (음식만?) 남자 제프리 스타인가튼이 1989년부터 패스지 (보그)에 썼던 음식평론을 모은 책. 뽀빠스에서 바비큐 먹은 이야기, 처음 와규 먹어본 썰 그리고 베네치아와 아드리아해의 해산물 이야기 등을 보고 있자니 식도락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어진다. 새해에 새로운 목표도 하나 더 생겼다. 이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말테야!



## 다이어트가 뭐예요?

인여로운 삶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상소 지음 | 양역관 옮김 | 통문선 | 7,000원

연말은 연말이라 바쁘고 새해는 새해라서 바쁘고, 휴가 전날이라 바쁘고 월요일이라서 바쁘고 금요일은 또 금요일대로... 1년 365일이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빨리해'라는 말을 지겹게 달고 산다. 피에르 상소는 이런 우리에게 그림의 지혜 9가지를 하나하나 들려준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권태로움에서 사소한 일들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걸어보라고 한다. 아, 책을 펼쳐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즐리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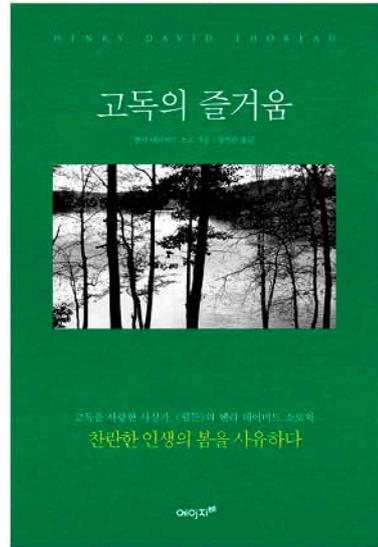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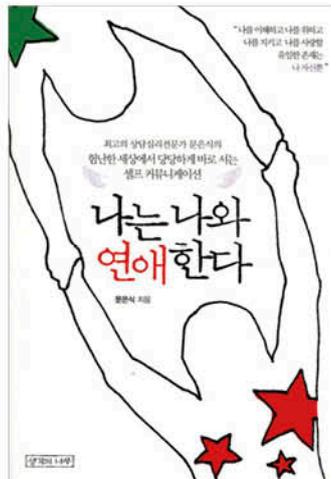
정희재 지음 | 갤러온 | 13,800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책이 대신 해준다. 이제껏 열심히 뭔가를 해왔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든 진정 하고 싶어질 때까지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란다. 우리에게만 그냥 폭 쉴 권리, 나잇값 하지 않을 권리, 모두가 뜯어말리는 일일지라도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을 해 볼 권리, 실수할 권리, 생각하지 않을 권리들도 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산 게 문제였다니! 그냥 이 책만 보고 있어도 마음의 위안이 되네.

나는 나와 연애한다

문은식 지음 | 생각의나무 | 각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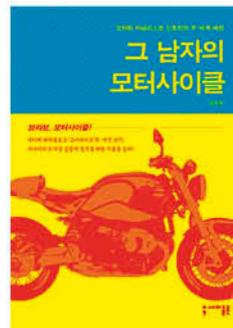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셀프 커뮤니케이션 북. 표지에 써 있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도 가슴을 후벼파는지... 크흑, 잠시만 눈물 좀 닦고, 약속 잡기 귀찮아서 아니, 나가 놀고 싶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 쓸쓸한 당신에게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줄 거다.



고독의 즐거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 양역관 옮김 | 에이지21 | 13,000원

하버드 대학 졸업 후, 1845년 7월부터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동안 자급자족 생활을 한 적 있는 소로가 남긴 155개의 문장 중에서 인여와 고독의 가치를 찾아 보자.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빈둥거리는 걸 합리화하기 좋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우리를 위안해준다. '우주는 이 지구에도 많다. 나는 그런 우주의 한 구석에서 산다. 세상에 드물게 즐거운 장소란 세상의 집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주 저편 신비로운 한 구석에 있다고 상상할 법하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집이아말로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남자의 모터사이클

신동헌 지음 | 세미출판 | 17,000원

자고로 진짜 남자는 올라타는데 환장하는 법이다. 라이딩 경력 20년, 모터링 저널리스트 경력 15년 차인 저자 신동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읽고 싶노라면

신년 목표는 저축이 아니라 새 바이크를 하나 지르는 게 될지도 모른다. 생애 첫 모터사이클을 고르는 법, 모터사이클 뒷좌석에 여자 태우는 법, 빗길에서도 무섭지 않은 모터사이클 등의 이야기를 뿌이악한 비주얼과 함께 보여주거든.



### 파리여자 예쁘냐?

장폴 니시 지음 | 신지혜 옮김 | 페이퍼북 | 15,000원

혹시 파리에 갈 계획이 있다면, 다른 여행 책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한 권만 정독하면 된다. 낭만, 예술, 쇼핑 등 하나같이 오글거리는 파리 여행 서적이 아니라 남자의 시선으로 본 허세 없는 파리 여행기니까. 제목부터가 일단 젓절하잖아? 파리 여자는 왜 쉽게 흥분하는가, 파리에서는 훔쳐봐도 무죄인가, 파리에서 싸고 배부르게 먹는 법 등을 알려준다. 그래서, 파리 여자 예쁘냐?

### 남자를 미치게 하는 남미

김다니엘 지음 | 맛있는책 | 14,000원

축구와 여자(그것도 미녀)의 땅! 게다가 세상에서 동양인 남자가 유일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인 남미를 82년생 저자가 5개월간 다녀온 이야기. '왜 세상의 모든 여행서적들은 에로스적 로맨스를 다루지 않는가'라는 불만으로 책을 냈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궁금했던 남미 여행을 볼 수 있다. 미녀 천국 우르과이, 상파울루 클럽에서의 키스, 라틴 미녀 감상법 등을 보고 있다면 아랫도리가 빠근해지면서 2014년엔 무조건 남미땅을 밟아보고 싶을 거다.



## 해외에서 질편하게



### 나는 아이디어 물건에 탐닉한다

고진우 지음 | 캘리온 | 8,800원

볼일 보다가 떠오른 아이디어 포착해 주는 메모판, 낮잠 잘 자게 해 주는 의자, 재가 날리지 않는 재떨이, 날씨를 알려 주는 유리병,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곳을 알려 주는 이어 타이머, 음료를 데워 주는 머그컵 USB 등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물건들이 나온다. 자신에게

얼리어답터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신박한 기어에 환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책을 읽지 않는 게 좋을지도. 잡지 (STUFF)의 초대 편집장인 저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던 글 중 일부를 책으로 엮었는데 특히 자체력이 없어지는 새벽엔 절대 읽지 말 것!

## 지르는 게 남는 거!



### 시계이야기

정희경 지음 | 그책 | 18,000원

오랫동안 시계를 취재해 온 기자가 대표적인 시계 브랜드, 우주물 품은 시계, 희귀한 시계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계가 얼마나 매혹적인 물건인지에 대해 깨닫게 해준다. 시계 이야기에 더해진 간지나는 시계 클로즈업 샷이 가히 압권! 평소에 시계에 관심이 없는 데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다. 이렇게 저축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하나가 추가되는 건가?



삼삼하면 이것도 읽어봐!

From Switzerland MAXIM 



# THE HOTTEST ANGELA MARTINI

알바니아 최초 미스 유니버스 6위. 카니에 웨스트의 스캔들녀... 안젤라 마르티니를 가리키는 많은 수식이 있지만, MAXIM이 그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수식은 오직 '섹시'뿐이었다. 그녀의 감당 안 되는 섹시함에 반한 MAXIM KOREA 편집부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헤이, 이쁜이! 헬로?"

BY BORIS ETTER PHOTOGRAPH FADIL BERISHA WORDS 박정욱



**초면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당신 정말 몸살나게 섹시하다. 어떻게 하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섹시한**

**포즈를 취할 수 있나?**

먼저 자신의 몸매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몸매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다. 카메라 앞에서 표현하고 싶은 걸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도 매우 중요하다.

**열여덟 살 때부터 뉴욕에서 모델을 시작했다고?**

어릴 적 알바니아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패션과 모델 일에 관심이 무척 많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불러 모아 미인대회 놀이를 하곤 했다. 모델 일이 내 천직인 것 같다. 너무 좋다!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6위를 차지했다. 당신이 6위라니! 우리가 보기엔 당신이 당연히 1위인데 말이다.**

말만이라도 고맙대!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나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다. 처녀 출전한 미인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깐. 내가 대표로 나선 알바니아에서는 미스 유니버스 6위가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순위다. 그래서 내 자신과 조국에 항상 자랑스럽다.

**알바니아에서 태어났고, 열 살이 되던 해에 스위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다. 어디가 제일 좋나?**

세 나라 다 너무 사랑한다. 미국은 모델이라는 내 직업상 가장 중요한 곳이지. 하지만 내가 태어난 알바니아와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스위스도 사랑한다. 시간이 되는대로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는 것 같다. 자주 행사와 파티에 참석하던데, 뭐가 가장 재미있었나?**

모델일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지구 곳곳에서 열리는 굉장한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다. 가장 재미있었던 행사는 칸느 영화제와 뉴욕의 패션 위크. 지루할 틈이 없던데? 다음엔 한국 MAXIM 에디터들도 같이 가져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 자,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정직해야 하고 난 진실하고 건실한 사람이 좋더라.

사진보다  
후끈한  
촬영 현장



지금껏 들었던 작업 멘트 중 가장 좋았던 건 뭐였나?

뒀. 고를 수도 없을 정도로 멋진 말이 많았다. 그리고 보면 남자들은 참 머리가 좋아... 여자 꼬실 때는 머리 회전이 빨라지는 건가?

카니에 웨스트와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신의 이상형이 궁금하다. 카니에 웨스트 같은 남자가 좋은가?

투지가 넘치는 남자가 좋다. 항상 내일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에서 섹시함이 느껴져거든. 만약 당신이 아망을 가진 남자라면 아마도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술도 좋아하나? 살면서 최악의 주사를 부린 적이 있다면?

뭔가 에피소드를 들려주면 좋겠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 주정뱅이가 아니라서 미안해본 적은 처음이네(웃음).

첫 데이트에서 당신의 키스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하, 여자는 첫 데이트에 입술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걸.

침대에서는 남자를 리드하는 편인가?

그런 건 궁금해 하는 거 아니다.

미안하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나?

일맞은 장소와 딱 맞는 타이밍. 그리고 나에게 맞는 남자와 함께라면 가능하겠지? 



“

남자들은 여자를 꼬실 때 머리  
회전이 빨라지는 것 같아

”

From Switzerland MAXIM 

“

여자는 결코 첫 데이트에 입술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



안젤라 마르티니

고향 알바니아 쇼코더  
생일 1986년 5월 23일



전설이 된  
헛트 vs.  
심바전  
리플레이



## 지구상에서 가장 용맹한 사모아인, 마크 헛트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4년이 넘게 마크 헛트는 6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다. 2010년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 그를 아끼던 모두가 은퇴를 권고했다. 가장 열정적인 헛트 팬들조차 헛트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 단언했다. 하지만 헛트의 생각은 달랐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계 최강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은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마크 헛트의 부모는 사모아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뉴질랜드에서 폴리네시아계 출신들은 '아일랜드'라 불리며 약간은 천대받는다. 뉴질랜드가 비교적 인종차별도 덜한 편이고 자유로운 나라긴 하지만 성실한 유럽계의 눈에는 남태평양 섬나라 출신 사람들의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탐탁지 않았던 모양이다. 뉴질랜드에서 아일랜드들은 일반적으로 블루칼라 계층이고,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계층에는 파괴된 가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헛트는 그런 폴리네시아계 이주자들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몰려든 난민(뉴질랜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대단히 호의적이다)들이 모여

사는 사우스 오클랜드에서 자랐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속 가장 어두운 귀퉁이다.

헛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UFC 160 카운트다운>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어릴 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렸죠. 무척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먹을 것조차 부족했어요. 그렇게 화내면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제 인생은... 마치 감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 18세 헛트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난투를 벌였다. 상대를 손쉽게 때려잡는 헛트의

숨쉴까 감상한 클럽의 바운서(기도) 샘 마스터스는 헛트를 자신의 무에타이 도장으로 초대했다. 헛트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고 무에타이 시합을 뛰었습니다. 상대는 저보다 30kg 정도 더 나가는 선수였지만 제가 2라운드에 그를 KO시켰어요."

선수 생활 초기에 헛트는 대회에서 결원이 생기면 대타를 뛰던 보결 전문이었다가 2000년과 2001년, 호주에서 열린 K-1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토너먼트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해 K-1 그랑프리 in 후쿠오카

준결승에서 힌트는 레이 세포와 만났다. 단신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힌트는 상대의 정면에서 접근해 강타 위주로 몰아치는 타입이다. 방식은 단순하다. 힌트는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방어'로 흘리거나, 막고 '넉넉한 카운터 타이밍'을 잡는 방식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카운터 타이밍을 양보하더라도 일단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하는 레이 본야스키와 달리, 힌트는 한 대 맞더라도 카운터 찬스를 찾는 경기를 한다.

선수의 방어 성향은 언더 디펜스, 미디엄 디펜스, 오버 디펜스로 구분할 수 있다. 오버 디펜스 플레이어란 에르네스토 호스트, 레이 본야스키, 세미 솔츠 같은 타입이고, 언더 디펜스는 피터 아츠, 마크 힌트, 바다 하리 같은 스타일이다. 극단적인 오버 디펜스 선수들은 정확하고 기계적인 방어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좌절시키고 체력 소모를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극단적인 언더 디펜스 선수들은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보다는 카운터를 날릴 기회 정도로 여기고 즉각 공격으로 연결한다.

힌트의 언더 디펜스 성향은 상대하기 무척 까다롭다. 내구력이 워낙 우수하기도 하고, 상대의 공격이 실패하면 카운터를 바로 날리는데 그것이 빠르고 강력하며 또 대단히 정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힌트는 스텝은 느릿하지만, 순간 움직임은 굉장히 민첩하고 반응속도도 무섭게 빠르다. 한마디로 그는 맞추기도 쉽지 않지만 맞춰도 잘 버티고, 훅시 공격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카운터가

날아오거나 접근을 허용하고 마는 페널티가 따르는 그런 까다로운 상대인 것이다.

1971년생 뉴질랜드 출신으로 같은 사모아계인 레이 세포는 1989년에 데뷔했고 라이트 헤비-크루저 급에서 싸우던 베테랑 킥복서다. 신장은 약 183cm로 한계체중 약 88kg 이하의 체급에 잘 어울리는 선수다. 스피드와 수준 높은 테크닉, 파워의 조화로 명성이 자자해 '슈거풋'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1996년 그는 무제한급 킥복싱의 최고 무대인 K-1에 진출했다. 1997년 세포는 강력한 라이트 오버헤드로 제롬 르 바네르를 잠재웠다. 세포의 특징이었던 이 라이트 결정기에는 '부메랑 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두 선수 모두 슬러거-카운터파이터 하이브리드였다. 세포는 미디엄 디펜스 카운터 파이터 성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고, 힌트는 파워와 맷집, 적극성, 즉 슬러거 성향이 조금 더 높았다. 힌트는 세포를 향해 다가서면서 공세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세포는 힌트의 빈틈으로 날카로운 카운터를 적용시켰다. 기세는 힌트가 우세였지만 실리는 세포가 가져간 셈이다. 2라운드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세포가 스피드와 테크닉 면에서 한 수 위임을 보여주며 적응력을 높여갔다. 힌트는 많이 맞으면서 좀처럼 때리지는 못했다. 보통 자신보다 크고 느린 선수들을 상대로 싸워온 힌트에게 자기보다 더 작고 재빠른 세포는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

2라운드 중반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포의 공격을 몇 차례 허용하던 힌트가 세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발을 멈추고 가드까지 내린 채 "Hit me"라고 말한 것이다. 세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클린치를 잡았는데 힌트는 세포의 귀에다 대고 계속 때려보라며 도발했다. 잠시 정상적인 전개가 이어지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세포가 공격을 끝낸 후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힌트에게 한번 쳐보라는 제스처를 했다. 힌트가 힘껏 좌우 연타를 휘둘렀지만 세포는 여유 있게 힌트의 공격을 다 막아냈다. 그리고 세포가 공세로 전환했을 때 힌트가 다시 한 번 가드를 내리고 얼굴을 내밀었다. 세포는 냉정하게 펀치 연타를 퍼부었다. 상당히 무거운 펀치가 몇 차례 적용했지만, 힌트는 멀쩡했다. 그리고 나서 두 선수는 경기라는 틀을 벗어나 길거리 싸움에서나 볼 수 있는 '노가드 타격전'을 연출했다.

해비급 킥복서들이 서로 손이 닿는 거리에서 가드를 내리고 차례를 바꾸어가며 치고받는다는 것은 우주적인 일이다. 이것은 세포의 움직임이 잡아내기가 힘들었던 힌트가 친 일종의 배수진이자 몹이었다.

## 마크 힌트의 말말말

호주 MAXIM과의 인터뷰에서 의외의 귀염성을 보여준 마크 힌트. 입만 열면 뺑뺑 터진다.

### “KFC는 다 옳다”

한 팬이 힌트에게 KFC의 세트 메뉴 중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그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힌트는 KFC를 매우 좋아한다. 실바 전을 준비하던 힌트는 어느 날, 한 KFC 매장에서 200조각의 치킨을 시켰다. 힌트의 주문 탓에 수많은 고객이 한동안 불편을 겪었다고.

###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나는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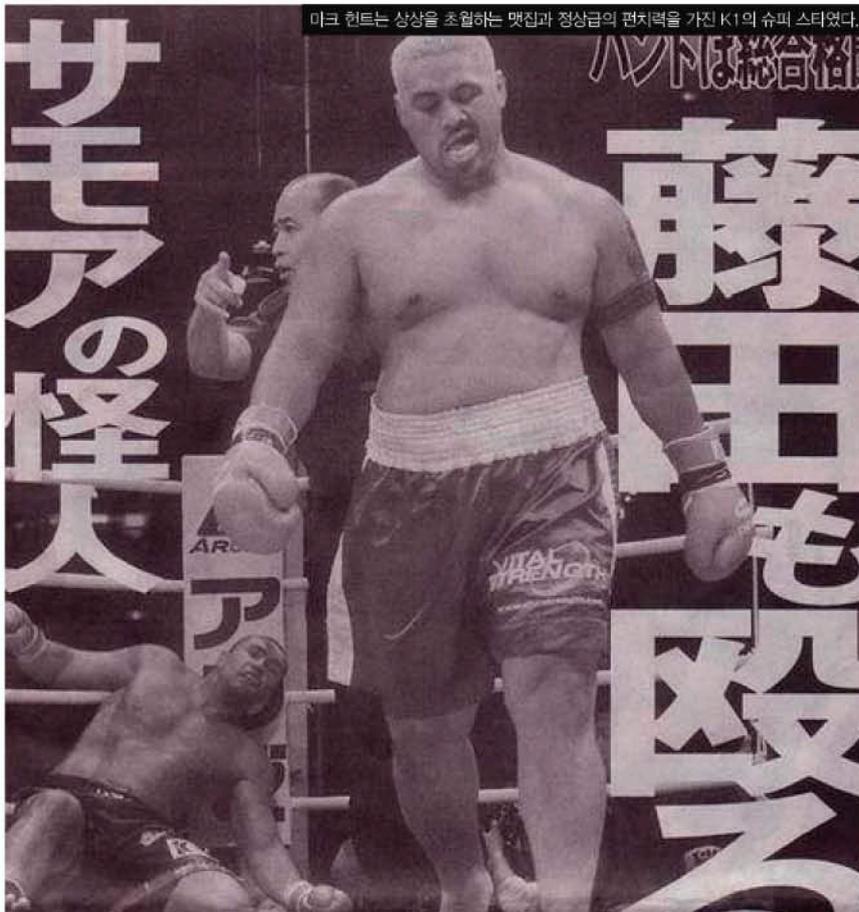
그에게 격투기가 없었다면 뺨박질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을 거다. 격투기는 그의 삶을 구원해주었다.

### “상어가 정말 무섭다”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상어를 죽기 전에 꼭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힌트. 한때 와이프랑 진지하게 계획했는데, 연달아 임신시키는 바람에 실현하지 못했다고. 그는 카운터펀치로 상어의 코를 세계 후려치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좀 똥똥하지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힌트는 지난 23년간 격투기 선수로 살아왔지만, 체중 감량만큼은 여전히 존X 싫어한다고.



마크 힌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맷집과 정상급의 펀치력을 가진 K1의 슈퍼 스타였다.

# Fight / MMA

그리고 세포가 기꺼이 거기에 뛰어들면서 이런 명장면이 만들어진 것이다. 경기 결과는 세포의 여유 있는 판정승. 그렇지만 세포는 힌트와 벌인 경기에서 눈을 다쳤고 세포가 물러나면서 결승에는 힌트가 올라갔다. 힌트는 경기에선 졌지만 싸움에선 이긴 셈이다. 두 선수의 이 대결은 K-1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히고 있다.

여세를 몰아 연말의 K-1 월드 그랑프리까지 진출해 도쿄돔에서 6만 5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롬 르 바네르, 스테판 레코, 프란시스코 필류 등의 쟁쟁한 강자들을 차례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K-1 WGP 우승은 지금의 UFC 해비급 챔피언이 되는 것에 거의 맞먹는 레벨의 업적이었다. 힌트는 신데렐라 맨이 되었다. 이후 힌트는 당대 최강의 킥복서들과 돌려 붙으며 K-1의 마지막 황금기를 장식했다. 크로캅과의 일전(판정패), 제롬 르 바네르와의 명승부 열전, 레코 및 베르나르도와의 대결 등이 그것이다. 그러던 2000년대 중반, MMA라는 새로운 물결이 전 세계 격투계를 휩쓸게 된다. 일본에서 프라이드가 급성장하면서 K-1의 간판선수들을 영입해갔다. 불세출의 슈퍼스타 크로캅이 프라이드를 향했고 그에게 갈을 빛이 있던 마크 힌트도 뒤를 따랐다.

힌트는 프라이드 데뷔전에서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요시다 히데히코와 대전했다. 경기 시작 5분 25초 만에 요시다의 암바가 완성되면서 힌트는 서브미션패했다. 그러나 이후 2004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힌트는 반넬레이 실바, 미르코 크로캅 등 MMA 대표 타격가를 포함한 5명의 상대에게 연승을 거두며 상승장구했다. 크로캅과 치른 경기는 거의 킥복싱 매치로 전개되었고 힌트가 우세를 점했지만, 반넬레이 실바와 벌인 경기에서는 실바의 테이크다운-그라운드에서 힌트가 상당히 고전했다. 5연승 중에도 힌트는 여러 차례 그라운드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조시 바넷은 힌트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최강의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다. 크고 힘이 세며 타격에 대한 저항력도 어느 정도 있고 상대를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간 후 서브미션으로 피니시하는 막강한 루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힌트는 바넷과 벌인 경기에서 첫 라운드 2분여 만에 암록에 의한 서브미션패를 당했다. 그리고 힌트는 2010년 9월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6연패의 늪에 빠졌다.



## 마크 힌트 6연패 일지

- 2006. 7. 1. 조시 바넷 / 1라운드 2분 2초 서브미션패
- 2006. 12. 31. 에밀리아네펠 호드로 / 1라운드 8분 16초 서브미션패
- 2008. 7. 21. 알리스타 오브레임 / 1라운드 1분 11초 서브미션패
- 2008. 12. 31. 멜빈 만호프 / 1라운드 18초 KO패
- 2009. 5. 26. 게가드 무사시 / 1라운드 1분 20초 서브미션패
- 2010. 9. 25. 손 매코를 / 1라운드 1분 3초 서브미션패



힌트는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입막스러운 셀카 사진을 페이스북에 자주 업로드하는 힌트.



입원해 있는 중에도 힌트의 사진 찍기 사랑은 식지 않았다.

전부 치욕적인 1라운드 피니시 패배였다. 멜빈 만호프전의 KO패를 제외하면 나머지 5경기의 패인에는 공통점이 보인다. 당시 힌트가 지닌 고질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테이크다운의 취약성,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와 경쟁력 부족 및 그라운드 공격력의 부재 그리고 더블리스트룩에 대한 약점. 더블리스트룩이란 기무라(암록, 팔 들어 비틀기) 계열의 기술을 걸기 위해 사용하는 그림이다. 힌트는 이 계열의 서브미션기에 굉장히 취약하다. 6연패 중 서브미션패를 당한 5경기 모두 더블리스트룩으로 잡혔다. 이 점이 바로 힌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조시 바넷, 알리스타 오브레임 같이 팔이 길고 서브미션이 좋은 선수들은 힌트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3경기 도합 불과 4분 16초 사이에 힌트는 탭을 세 번 쳤다. 힌트의 카운터 펀칭 능력이 배워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더블리스트룩에 대한 취약점 역시 그의 타고난 조건이었다. 물론 경험과 연습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2007년 3월, 세계 MMA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야쿠자 연루설로 TV 파트너를 잃고 휘청대던 프라이드를 UFC가 전격적으로 합병한 것이다. UFC는 프라이드와 선수들 사이의 계약까지 모두 인수했다. 프라이드와 계약한 상대인 힌트 역시 UFC 소속이 되었다. UFC는 크로캅과 힌트에 대해 일종의 임대 형태로 일본의 드림, K-1 다이내마이트에서 활약하도록 배려했다. 두 선수는 미국 시장에서보다 일본에서 싸우는 편이 더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힌트는 두 무대에서도 연패를 거듭했다. 거기에 일본의 격투기 단체들이 동시에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지도 매우 좁아지고 말았다. UFC CEO 데이나 화이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시기의 힌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프라이드 일이 성사되었을 때 그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남은 계약 조건만큼의 액수를 지불하고 그를 정리하려 했어요, 돈을 드릴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했죠, 그는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죠, 공돈을 챙길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깐요, 그가 얼마나 진심인지는 바보라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나이로 37세의, 6연패에 빠진 선수는 퇴출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힌트는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필자 역시 헌트의 격투 여정이 이제 중지부를 찍어야 할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아니 확신했다. 그라운드와 서브미션이 저렇게 취약해서는 절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헌트가 MMA에서 이렇게 당하면서 더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헌트 팬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2011년 2월 27일, 호주에서 열린 UFC 127에 출장한 헌트는 크리스 텍서러와 대전했다. 1975년생, 신장 185cm의 텍서러는 21승 3패 9KO 7SUB를 거두고 있던 중견급 파이터였다. 도박계는 당시 헌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텍서러에게 1.38을, 헌트에게는 3.15의 배당을 책정했다. 이 대회에서 헌트의 처지가 더욱 안쓰러웠던 것은 그의 경기가 다크 매치 중에서도 앞에서 두 번째로 배치됨으로써 본격적인 이벤트에 앞선 여흥 정도의 취급을 받은 점이다. 그러나 텍서러전에서 헌트는 평소와 달리 신중했다. 상대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으며 선제타를 쉽게 내지도 않았다. 평소 같으면 2연타, 3연타로 몰아쳤을 상황에서도 단발로 끊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대의 타격을 끌어내고 카운터를 적중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였다.

1라운드 중반에 헌트의 펀치가 텍서러의 안면에 적중했고 텍서러의 오른쪽 눈 윗부분에 컷이 발생했다. 의사가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하자 텍서러는 심판에게 “눈가에 뭔가가 덜렁거리는데?”라고 물었다. 심판은 텍서러에게 “그거, 네 눈꺼풀이야?”라고 답했다.

2라운드 1분 14초경 케이지 사이드에 몰린 텍서러의 안면에 헌트의 특기인 라이트 어퍼가 적중하면서 경기는 종료되었다. 어퍼의 적중 이후 상대가 앞으로 무너졌을 때 보통의 MMA 선수들이라면 올라타서 파운딩을 시도하지만, 헌트는 그냥 돌아서며 승리 세리머니를 했다. 자신의 펀치에 대한 확신이었을지 혹은 입식 때의 습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MMA에서 보기 힘든 멋진 피니시였다.

약 7개월 후인 2011년 9월 27일, UFC 135에서 헌트는 ‘빅’ 벤 로스웰을 상대했다. 로스웰은 신장이 193cm고 헌트와 대전할 당시 전적은 31승 7패 17KO 11SUB였다. 경기전 도박판의 배당은 무려 헌트 4, 로스웰 1.280이었다. 로스웰전에서 헌트는 날렵한 아웃파이터로 변신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치고 빠졌다. 백스텝과 사이드스텝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먼 거리에서 사용하기 좋은 스트레이트 펀치와 킥을 자주 구사했다. 그라운드에서 헌트는 지난 경기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을 과시했다. 헌트의 그라운드 빈틈은 빠른 속도로 메워지고 있었다. 해설진은 이를 두고 당시 헌트가 훈련받기 시작한 아메리칸 탐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헌트와 안토니오 ‘빅풋’ 실바의 친분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2월 26일, UFC 144가 일본에서 열렸다.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2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으며 37만 5천 개의 PPV를 판매하던 이 대회의 메인이벤트는 우리로서는 잊을 수 없는 벤 헨더슨-프랭키 에드가 1차전이었다. 일본 무대에서는 상당한 상품 가치를 지닌 헌트는 ‘수문장’ 칙 콩고를 상대로 옥타곤에 올랐다. 콩고는 당시 17승 6패 2무 10KO 3SUB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레슬링, 그라운드 방어에 어느 정도 되는 타격 전문 선수다. 당시 콩고와의 경기는 타이틀 경쟁권으로 뛰어들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시험과 같았다. 헌트는 콩고를 1라운드 2분 11초 만에 손쉽게 TKO로 분쇄했다. 콩고전에서 배당은 헌트가 3.25, 콩고가 1.36이었다. 헌트의 3연속 대입셋이었다.

2013년 3월, <UFC on Fuel TV>는 반데레이 실바를 헤드라이너로 내세우고 일본에서 벌어졌다. 헌트-스트루브전은 코메인 이벤트였다. 한때 다크 매치에서도 초반에 배치되는 수모를 겪은 헌트였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의 지위를 상당히 회복한 셈이었다.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이 대회는 1만 4,682 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스테판 스트루브는 1988년생의 네덜란드 출신 파이터다. 신장이 무려 212cm로 UFC 최장신이며 2008년 11월까지 16승 2패를 기록한 후 2009년 2월 20세의 어린 나이에 UFC에 진출했다. 그의 UFC 전적은 9승 3패 4KO 4SUB(총 전적은 25승 5패 8KO 16SUB)였다. 두 선수의 연령 차는 14세였다. 신장 차이가 34cm에 달했고, 리치 범위는 27cm나 벌어졌다. 헌트가

타격 기술을 펼치기에는 체격 차이가 매우 심해 보였고, 스트루브는 서브미션을 상당히 능숙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나이 차에 따른 체력 문제까지 고려하면 헌트에게는 쉽지 않은 대전, 아니 UFC에서 맞이한 대전 중 가장 어려운 상대였다. 세간의 예상 그대로 스트루브는 그라운드에서, 헌트는 스탠딩에서 점수를 따는 전개였다. 하지만 단지 점수만 따는 것이 아니라 양 선수가 서로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헌트는 스트루브에게 마운트와 강력한 파운딩을 연속으로 허용해 안면의 여러 군데가 부어올랐으며 스트루브는 헌트의 강한 펀치를 계속해서 얻어맞았다. 그러던 3라운드, 스트루브의 턱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면서 헌트가 KO승을 거두었다. 스테판 스트루브의 턱은 문자 그대로 ‘견디지’ 못했다. 헌트의 UFC 4연승, 그리고 4연속 업셋이었다.

2013년 5월 25일, 헌트는 UFC 헤비급 전 챔피언이자 랭킹 1위, 만인지상 일인지하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대전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매치업이었다. 그라운드 기술의 도움 없이 헌트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산토스는 최강 타격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스타일이었다. 그가 상대의 타격에 위협을 느끼고 그라운드 기술을 쓸 선수였다면 크로킵과 경기를 치를 때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산토스는 크로킵전에서 순수한 스탠딩 타격전을 벌였고 크로킵을 돌려세웠을 정도로 훌륭한 스트라이커다. 그런 산토스에게 헌트라는 상대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자신의 타격기가 헌트에게는 잘 먹히지 않으며 반면 헌트의 카운터는 매섭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25일, 주니어 도스 산토스오 대전한 마크 헌트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난 헌트와 실바의 경기. UFC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명승부였다.

산토스의 운동 경력은 7년, 헌트는 20년이였다. 경기의 초반엔 헌트가 산토스의 의도를 능숙하게 차단하며 앞서나갔다. 하지만 1라운드 중반, 산토스는 셋업이나 예비 동작 없이 불시에 라이트 오버핸드를 돌렸다. 어마어마한 궤적의 강펀치였는데, 너무나 의외의 일격이었던지라 헌트가 그것에 클린히트를 당하고 바닥을 굴렀다.

속임수나 카운터가 아닌 대놓고 단발로 때리는 오버핸드는 거의 적중률이 없다고 봐도 좋을 기법이다. 동작도 크고 목표에 적중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그것이 적중되었다. 헌트의 멧집이 어마어마한 수준이기에 버텨서 웬만한 선수였다면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 이후 찾아왔다. 1라운드 후반 로키를 시도하던 중 헌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 부분이 부러진 것이다. 이 부상으로 뒷발로 차고 나가는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헌트의 전반적인 기동 능력이 하락했다.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주도권이 서서히 산토스 쪽으로 넘어갔고 4라운드에 결정타를 허용한 헌트는 생애 두 번째 KO패를 경험했다. 헌트가 입은 데미지는 엄청났다. 머리와 안면뿐 아니라 발가락도 문제였다. 다리에 염증이 생겨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1974년생 운동선수로 이미 환갑 잔갑 다 지난 그의 복귀는 불투명했다. 복귀한들 과연 그 정도로 심하게 당한 후 다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도 컸다. 그러나 헌트의 복귀전은 의외로 금방 성사되었다. 산토스전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안토니오 '빅풋' 실바와 싸우기로 결정된 것이다. 실바는 헌트가 아메리칸 팀에 있을 때 함께 훈련하던 선수다. 헌트는 한 인터뷰에서 "다른 선수는 다 좋아도 안토니오 실바와는 절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타 화이트는 목적 지향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한다. 그의 목표 중 하나는 선수들이 '친구라서 못 싸우겠다'는 소리 못 하게 만들기다. 케인 벨라스케즈와 대니얼 코미어, GSP와 로리 맥도널드가 그랬다. 또한 브라질 챔피언과 도전자들은 친구, 동료,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로 싸우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화이트는 틈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선수들을 비난해왔다. 프로 경기에 왜 개인 감정을 개입시키느냐는 것이다. 그의 말도 옳고, 또 선수들 입장에 이해가 된다. 쉽지 않은 문제다. 화이트는 이 문제에 대해 채찍만 휘두르다가 최근 들어 회유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소넨과 예반스의 경우는 서로 친구와 방송도 같이 하는 사이인데도 결국 대전을 성사시켰다. 화이트는 상황의 막전막후를 미디어를 통해 소상히 공개했고 대전의 홍보에 광장히 공을 들였다. 그리고 그 경기는 GSP-헨드릭스전이 메인이벤트이던 UFC 167의 코메인

이벤트로 배치되었다. 화이트는 이것을 하나의 좋은 예로 삼아 다른 선수들을 설득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 같았다.

헌트-빅풋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헌트는 할 수 없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헌트에게는 주어진 상대를 피하지 않는 전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빅풋과의 싸움 이면에는 UFC 호주 대회의 메인이벤트라는 골도 발려 있었다.

헤비급 UFC 랭킹 4위의 안토니오 실바는 흥미로운 선수다. 키 193cm의 거대한 체격과 다소 독특한 인상과 달리 상당히 빠르고 지능적이다. 그리고 스탠딩 타격과 레슬링, 그라운드에서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안정적이었다. 당황스럽게도 외모에 비해 펀치력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며 상대의 큰 것을 한 번씩 허용하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파워 플레이어의 특성과 테크니션적인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다.

'빅풋' 실바의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 기술은 헌트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다. 특히 헌트처럼 신장이 작은 선수의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면 상체의 크기가 크고 팔이 긴 실바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가 표도르를 상대로 마운트 포지션을 장악한 후 파운딩을 내려치던 장면을 떠올려보면 키가 작은 선수일수록 실바의 그라운드에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 실바는 주짓수 블랙 벨트기 때문에 서브미션기의 위험성도 상당했다. 사람들은 실바를 일반적으로 산토스보다 한 수 아래로 보지만 헌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어찌 보면 타격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산토스보다 그라운드를 극히 경계해야 하는 빅풋이 헌트에게는 더 어려운 상대였을 거다.

경기 전 승부 예측에서는 헌트에 대한 회의론이 우세였다. 도박판의 편세도 그랬고 여러 매체의 분석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빅풋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심지어 헌트의 홈그라운드인 호주 팬들조차 대부분 빅풋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2013년 12월 7일 UFC FIGHT NIGHT 33, 스타트는 실바가 끊었다. 스탠딩에서는 헌트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지만 실바가 자신의 신장과 리치를 잘 살린 타격을 선보였다. 서로 정면에서 펀치 연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바의 라이트가 헌트의 안면에 적중하며 헌트가 먼저 다운되기도 했다. 2라운드 역시 실바가 가져갔다. 그렇지만 3라운드에 헌트의 강력한 라이트가 터지면서 실바가 다운을 당했고 상위 포지션을 차지한 헌트가 파운딩으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4라운드, 실바가 타격으로 헌트를 궁지에 몰았다. 충격을 받고 케이지 사이드에 몰린 헌트는 한동안 실바의 펀치 연타에 당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살인적인 레프트훅 카운터를 두 번 꽂아 넣어 실바를 주춤거리게 했다. 그렇지만 이 직후 헌트의 테이크다운 시도가 실패하면서 오히려 실바가

그라운드에서 상위 포지션을 잡은 후 특기인 고릴라 파운딩을 내리쳤다. 4라운드 안에서만 역전에 재역전이 일어났다.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자, 두 선수는 터치 글러브와 포옹으로 서로에 대한 절대적 존중심을 표현했다. 관중들은 모두 기립했다. 4라운드 마지막 장면을 보면 헛트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는데 5라운드가 되자 초반부터 큰 펀치를 연이어 적중시키며 경기 양상을 다시 한 번 뒤집어놓았다. 또다시 역전이 이루어졌고 관객들이 내지르는 환호성이 장내를 가득 채웠다. 마지막 힘을 짜내 끝까지 공격을 퍼붓는 헛트와 피땀이 된 얼굴에 준비처럼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실바. 라운드 중반에 실바의 의식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다. 심판이 닥터 체크를 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켰고 속개된 경기에서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린 실바가 헛트의 마지막 공세를 겨우겨우 버텨내던 중 파이널 라운드의 종료로 일리는 버지가 울었다. 판정은 무승부였다. 현지 해설진은 이 경기를 두고 헤비급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라고 극찬했다. 국내 해설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국의 격투 매체에서도 양 선수의 퍼포먼스에 갈채를 쏟아냈다. 경기 흐름은 실바의 우세로 시작해-헛트의 역전-실바의 재역전-헛트의 재재역전으로 이어졌다. 헤비급 경기에서, 특히 120kg을 맞추기 위해 감량을 해야 하는 특대 사이즈의 두 선수가 맞붙어 이런 식의 시소게임을 연출하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안토니오 실바전을 통해 드러난 헛트의 전력은 6연패를 달리던 그때의 선수와는 차원이 달랐다. 2004년, 31세에 MMA에 데뷔해 2010년 37세가 될 때까지 6년간 헛트의 경기력에는 큰 발전이 없었다. 성급한 타격과 그라운드 능력의 부재라는 약점이 헛트에게 6연속 1회 피니시 패배라는 굴욕을 안겼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 그의 타격이 조심스러워졌고 그라운드의

약점이 극복되기 시작했다. 강하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의 그는 그라운드로 데려가기가 그리 쉽지 않고 여차하면 되치기, 혹은 기습적인 테이크다운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37세의 운동선수에게 3년이란 세월은 보통 사형선고를 받고 난 뒤 시한부 같은 시간이다. 그러나 헛트는 그 기간에 20대 초반의 선수들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정작 헛트 본인은 무덤덤하다. 그는 MMA 대표 저널리스트 아리엘 할와니의 프로그램 <MMA 아워>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대담을 나누었다.

**할와니:** 경기를 다시 봤나요? 정말 최고였어요. 헤비급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헛트:**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괜찮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할와니:** 경기 장면을 다시 보면서 채점을 해봤나요? 당신이 승자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헛트:** 우리 둘 다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했고 꽤 관찮게 싸웠어요. 뭐 어느 쪽이든 문제없어요. 빅풋도 저를, 저도 빅풋을 그로기 상태로 들었으니까요.

**할와니:** 이걸 정말 독특한 경기였습니다. 모두가 무승부라는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무승부가 선언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25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두 선수 모두 상처투성이에 영망이 됐는데 승자는 없다는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헛트:** 무승부라는 결과에 화가 나진 않았습니니다. 무승부는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 헛트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자리에 도저히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는 \*글러브를 벽에 걸어들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의 은퇴를 뜻하는 표현

## 실바전 이후, 마크 헛트의 근황



**1** 헛트는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다. 그는 안토니오 실바와의 혈전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큰 아들 노아를 팬들에게 소개했다. 그의 아내는 현재 또 임신 중이다.

**2** 데이나 화이트는 헛트 vs. 실바의 경기를 본 후 트위터에 "두 선수에게 섬을 하나씩 사주고 싶다"고 썼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은 없다고..



**3** 경기 후 헛트의 왼쪽 주먹은 문자 그대로 두 동강이 났다. 심한 골절이 두 군데 발생했기 때문에 헛트가 그 손으로 뭔가를 칠 수 있기까지는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헛트는 경기를 하던 당시 자신의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부러졌다고 생각했다.

**4** UFC 데뷔 직후부터 첫 5경기에서 헛트의 대전료는 8천 달러(약 850만 원) 정도였다. 이름값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였고 그즈음 헛트의 성적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액수기도 했다. 하지만 산토스전을 앞두고 헛트는 UFC와 재계약을 체결했고 그의 대전료는 무려 16만 달러(약 1억 7천만 원)로 수직 상승했다. 산토스전에서 그가 벌어들인 돈은 총 2억 1,800만 원(약 1억 7천만 원)이었고, 이번 안토니오 실바전에서도 헛트는 같은 액수의 돈을 챙겼다.

헛트 vs. 실바 전 경기 기념 티셔츠를 입고 즐거워하는 UFC CEO 데이나 화이트.



경기가 끝난 후 다정히 사진을 찍으며 여전한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실바와 헛트.



## 가격도, 성능도, 사고도 대책 없는 모친부재(母親不在) 냉전무기!

냉전시대의 미국-소련 양국은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 야심차게 신무기들을 준비했으나, 그 중에서는 정말 성공하여 대량으로 생산된 무기들도 있지만, 그저 설계도면 상에서 구상이 끝난 안습 무기들도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당시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실제로 만들어졌지만 문제를 일으켜 제작자의 안부를 불편케 한, 이름하여 성능도 실용성도 '애미 없는' 냉전시대의 무기들을 다뤄 본다. BY 김민석(군사 전문가)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나 이런 사람임 -

- <디펜스 타임즈> 객원기자
- <월간항공> 객원기자
- <밀리터리 리뷰> 객원기자
- <디펜스 21> 객원기자
- 미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리포터
- KBS 다큐 <사사기획 창: 차세대 전투기> 기술자문
- 현 NCSOFT AMP 게임디자인팀 대리



안녕하신가, 본인은 2014년부터 MAXIM의 밀리터리 섹션을 책임지게 된 양반이다. 예반게리온이 제3 신동경시에 배치되고 사도와 한 판 붙는 2014년은 아닐 테지만, 4월에도 폭설이 내리는 이상 기온과 북한의 계속되는 전쟁 위협, 대규모 해킹 전쟁 등 2013년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미루어 볼 때 2014년은 세컨드 임팩트보다 더 막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MAXIM의 밀리터리 섹션을 책임지게 된 본인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다. 분명 업삼나나 최혜연만큼 독자들을 화끈하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 하지만 독자들의 현자타임 하나는 확실히 챙겨줄 수 있다. 세계의 각종 최신 무기 동향, 전쟁사, 특수 부대 이야기 등의 팩트가 가득한 밀리터리 섹션을 읽으며 심신을 맑게 하고 지성을 쌓자. 물론 이 지성을 여친, 애인, 설피, 혹은 너의 부모님에게 즐기 시작하면 듣게 될 쌍욕과 원망은 책임지지 않는다.



### 향후 30년을 결정할 전차 KPz 70

1960년대 미국은 소련이 곧 "너무나도 뛰어나고 놀랄 만한" 신형 전차를 배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자신들이 배치할 신형 전차 M60은 등장하자마자 구형 전차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미국을 엄습했다. 이 때문에 1963년 당시 전차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는 전차를 미국과 서독이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고, 1968년부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이 전차를 MBT-70, 서독은 KPz 70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에 주력 전차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KPz 70은 당시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어, 21세기의 주력 전차에도 적용되는 많은 신기술이 탑재된 혁신적인 전차였다. 1965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무 살 나이로 데모를 하고, 남진 선생님이 파릇파릇한 신인 아이들로 각광받던 시절이다. 상상이 가나? 이런 시대에 태어난 KPz 70은 주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장전수 없이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며, 레이저로 적 전차와의 사거리를 측정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1,500마력 엔진을 장착해 54t 짜리 몸뚱아리를 70km/h까지 달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갖했으며, 무선 조종만으로 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20mm 기관총도 갖추고 있었다. 전차의 무게를 바퀴에 전달하는 현가장치도 현대적인 유기압 방식을 써서 전차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

### 단가 조절 실패, 그리고 멸망

하지만 어려운 기술을 도입해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성급한 제조 공정 탓에 여러 부분에서 고장과 오류 및 설계 실패가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대당 1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은 당시 전차 가격치고는 너무 비쌌고, 개발 비용도 8천만 달러가 들었으니 총 3억 달러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결국 독일은 1969년 개발을 중단했고, 미국은 XM803이라는 저가형 MBT-70을 만들려고 했지만 곧 포기했다.



### 감히 아무도 따라잡지 못했던 괴조 XB-70

1960년대의 '애미리스'한 무기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XB-70 폭격기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F-15K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마하 2.5 (3,060km/h),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경 공격기 FA-50은 최고 속도가 마하 1.4 (1,713.6km/h)이다. 하지만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 사는 이미 50년 전에 길이 57.6m, 무게 246t의 초대형 핵 폭격기를 마하 3 (3,200km/h)의 속도로 날려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게 바로 XB-70였다.



저새끼 허리  
존나 길어 ㅋㅋㅋ

사진 놀린 거  
아니다.

# Military



어디서  
탄 내 안 나나?

제트 엔진 회사의 달력을 찍으려다 공중에서 산화 중인 XB-70

XB-70가 처음 공개된 날, 50년 전 비행기라는 게 믿기는가?



한치 생각나네.

사실 XB-70이 개발되던 시대엔 폭탄을 싣고 멀리 날아가 적을 공격하는 '폭격기'가 무기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1957년 발사된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도 심지어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 8K71이 쏘아올렸으니까. 이 때문에 당시엔 '미사일이 폭격기와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것이며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과거의 유산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XB-70은 이런 미사일 만능론에 대항하여, 미사일만큼 먼 거리를, 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미사일보다 더 많은 폭탄을 싣고 간다는 어처구니 없는 목표 하에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1955년에 노스 아메리칸 사는 XB-70의 초기 디자인으로 4개의 엔진을 달고, 이륙 및 느린 속도의 비행에만 쓰이는 날개를 붙인 폭격기를 생각해 냈다. 뾰족하게 만들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느린 속도에서는 비행기가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날개를 붙였다가 하늘에서 떼어버린다는 엉기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제작에 들어간 실제 XB-70은 다행히 좀 더 멀쩡한 비행기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마치 오징어 같은 날카로운 삼각형 날개를 속도에 따라 접고 펴는, 제트 엔진 6개를 장착한 거대한 익룡 같은 모습으로 탄생했다. 덕분에 1964년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XB-70은 그 이름도 멋지구리한 발키리(Valkyrie)라는 이름을 갖고 마하 3의 속도로 33분, 마하 2.5의 속도로 한 시간씩이나 비행할 수 있는 극 초음속 괴물 폭격기로 태어났다.

##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리고 멸망

하지만 그 사이 미사일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미 공군은 구형 B-52 폭격기에 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XB-70 발키리는 NASA에 옮겨지고 초음속 여객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제트 엔진 회사의 달력에 찍을

사진을 위해 비행하던 중 공중 폭파되고 만다. 그 뒤 50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도 구식 취급을 받던 B-52 폭격기는 아직도 엄연한 현역으로 미 공군에서 운용 중이다. 시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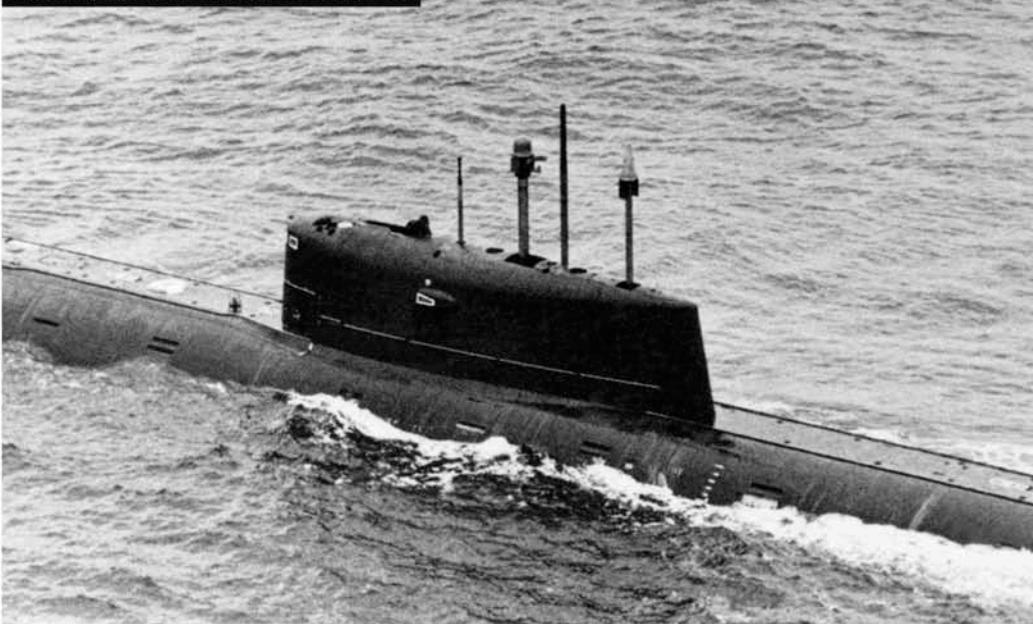
## → 엄청난 민폐와 함께 광탈한 엄청난 성능의 잠수함 K-278

앞의 두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지도 못하고 사라진 것과는 달리, 지금부터 설명할 K-278 콤소몰레츠(Komsomolets)급 핵 잠수함은 그래도 몇 년간 실제 임무에서 활동했고 세계 기록도 달성하는 등 나름대로 활약을 펼쳤다.

바다에 잠겨 방사능 티백이 된 K-278.



깊게 (바다에)박히기로는 아직도 이 잠수함을 이길 자가 없다.



러시아의 K-278 잠수함은 무게 8,000t, 길이 117m의 공격용 핵 잠수함으로, 핵전쟁이 났을 때 절대로 적에게 탐지되지 않을 바다 속 핵전쟁 지휘 기지의 역할을 맡았다. 이 때문에 K-278 잠수함은 티타늄 소재를 이중 구조로 만들어 최대 수심 1,250m까지 잠항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K-278은 핵 어뢰, 초고속 어뢰, 그리고 뛰어난 음파 탐지기를 장착해서, 설사 미 해군 잠수함에 발견되어도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러시아 군은 이 외에도 심혈을 기울여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K-278 예겐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퐁급 핵 잠수함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알파급 핵 잠수함과 같은 불일 친구도 있었지만, 종합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K-278이 가히 최강이었다. 이런 강력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부터 제작까지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거기에 너무나도 비싼 가격 때문에 단 한 척만 건조되었다. 또 다른 한 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다 말아먹었다.

침몰후 균열 부분을 밀봉한 모습. 제양은 면했다.



### 대형 사고와 방사능 티백

하지만 취역 4년만에 K-278은 엄청난 사고를 치며 광탈했다. 1989년 4월, 최대 잠항심도 시험 중이던 K-278이 노르웨이 위쪽 북해에서 침몰했기 때문이다. 원자로는 물론 핵 어뢰까지 탑재한 K-278은 침몰 후 부러지는 바람에 일부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그리하여 K-278는 바다 밑에 잠긴 초대형 방사능 티백이 되어 노르웨이 고등어를 죄다 초능력 뮤턴트로 만들었다. 다행히 균열 부분은 전부 밀봉처리해, 현재 노르웨이 고등어는 '청정 고등어' 대접을 받으며 일본 고등어를 제치고 당당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중이다. 🍷

K-278 잠수함은 무려 8,000t의 무게와 117m의 길이를 자랑하는 거물 중의 거물이다.



처음 나올 땐 빈만 담그려더라고.

안 그러면 아프대.

크기도 크기지만, 길이가 압도적으로 긴 탓에 천하장사 소시지처럼 보일 정도다.



모자 쓴 쫄 같다고?

## 무슨 약을 하셨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 1 원자력 비행기

NB-36은 양사장님의 클럽 36호 분점이 아니라 원자로를 탑재한 B-36 폭격기의 개조형이다. 기체 꼬리에 원자로를 달고 콘크리트를 바른 조종석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원자로로 제트엔진을 만들면 말 그대로 하늘에 방사선 구름을 뿌린다는 얘기가 다름없었으니 그야말로 정신줄 놓은 새끼들이 만든 비행기.

존나 크니까 '탱크'라 불러라.



### 2 육상전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100t 급 전차 '마우스(이름이 뭐 이래)'에 이어 제작하려 했던 1,000t 급 육상전함 라테(Landkreuzer P-1000 Ratte)는, 280mm 주포를 순양함에서 떼어내 었을 계획이었다. 크고 아름다운 걸 좋아했던 히틀러는 결국 골방에서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3P하는 기본이네.

### 3 쌍열 자동소총

이스라엘 길보어 사이에서는 M4의 성능을 어떻게 높일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M4의 화력을 2배로 키울 방법을 찾아냈다. M4 두 개를 이어 붙여서 하나의 총처럼 만들면 된다는 정신 나간 생각이었다. 길보어 스네이크(Gilboa Snake)라는 이름의 이 라이플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고 광고해 댔지만, 실제 효용성을 믿는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

# Party



## Winter Ocean Night @m2

한겨울에도 화끈한 여름 바다를 만끽하는 클럽비틀! BY 김소윤

이 추위에 이렇게 할بت다니...



2013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지금, 문득 지난 한 해를 후회없이 살았나 돌아봤다. 올해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축축이 젖은 채 MISS MAXIM들과 뒹어져 마구 혼들어대기도 했고, 고복 코스프레를 하고 불타는 할로윈 파티를 즐겼지. 이 정도면 할머니가 됐을 때 후회없는 젊은 시절을 추억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던 찰나. 머릿속에 한줄기 후회가 전광석화처럼 스친다. "바다 바다를 못 갔어!!!"



하지만 때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 엄동설한에 바다에 가보자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안 그려진다. 먹잇감을 찾는 암수들의 눈이 뿜는 뜨거운 스파크! 그 열기!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병신같이 우울한 얼굴로 앉아있자 선배 에디터가 다가와 묻는다. "너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올해 바다에 못 간 게 천추의 한이 된다고 하자, 그녀가 내게 한겨울에도 불타는 여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알려준 소식은 마린룩을 콘셉트로 하는 클럽 m2의 간판 파티 '오션 나잇'이 11월의 마지막 날 열린다는 것이었다. 설레는 세러데이 나잇, 흥대에 위치한 클럽 m2로 발걸음을 옮겼다. 입구에 들어서자 몸에 딱 끼는 섹시한 마린룩을 입은 여자들이 눈에 띈다. 파도처럼 꿀렁이는 그녀들의 몸매로 쏟아지는 남성들의 이글대는 시선. 그래, 내가 원하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번 파티는 섹시한 속옷 브랜드의 대명사 '게스 언더웨어'와 함께 진행됐다. 그래서인지 이 파티는 더욱 섹시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진짜 '여름 바다'처럼 후끈 열기가 달아올랐다. 클럽 온도계의 수은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파티에 놀러온 섹시한 마린걸들도 그 열기를 느꼈는지, 봉을 잡고 춤을 추거나 스테이지로 올라가 이질한 춤사위를 선보였다. 황홀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노라니, 한 사내가 다가와 내 귀에 속삭인다. "오는 1월 18일에 또 파티 하는데, 그때 또 봐요." 암요, 그래야죠. 2014년 다이어리를 사자마자 '한 겨울의 여름 파티' 라는 스케줄부터 적어야겠다. 이리다 화상입겠어! ☹

# Party DJ of the Month #7

## PRODUCER JINBO

이제는 가수, 프로듀서를 넘어 디제이로  
영역을 넓힌 진보의 진화. BY 김소윤



늘 준비  
됐어?



## DJ 릴레이 인터뷰

START!



2013년 5월호  
DJ KOO



6월호  
SHUT DA MOUTH



7월호  
MAZESTIK&SIONZ



8월호  
ARIKAMA



9월호  
KINGMCK

NOW!



2014년 1월호  
JINBO



11월호  
CONAN



힙합 언더 씬에서 보컬 피쳐링으로 자주 이름을 비추던 뮤지션 진보가 이번엔 사이니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Everybody〉에 참여했다. 진보가 작사, 작곡한 노래 '달아줘'의 로맨틱한 멜로디와 가사는 사이니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어우러져 앨범의 퀄리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진보가 한국 대중음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SM 아이돌 그룹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009년, 자신의 음악 색을 잃지 않기 위해 소속사를 나와 독립 레이블을 차린 그는 '아티스트 개인의 개성을 죽이지 않고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슈퍼프릭 레코드'의 모토라고 말했다. 사이니 앨범에서 발견한 진보의 이름은 어느새 그가 자신만의 개성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진보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번 호에서는 음악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텐테이블을 잡은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힙합 음악에 'feat. JINBO'로 많이 등장한 진보 아닌가! 디제이로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다.

아직 정식 디제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다. 음악을 만들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걸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디제잉을 시작했는데, 확실히 프로듀싱과는 다른 매력이 있더라. 프로듀서가 단편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디제이는 그 소설들을 엮어 장편소설을 쓰는 사람이랄까?

하는 일이 많은데, 요즘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뭔가?

디제잉도 하고 피쳐링도 하고 내 음반 작업도 한다. 하지만 요즘엔 프로듀싱과 내가 대표로 있는 슈퍼프릭 레코드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슈퍼프릭 레코드'라니, 말 그대로 '존나 괴물'들이 모인 레이블인가?

'초괴짜'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2009년 당시 내 마음대로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직접 만들어버렸다.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티스트의 개성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더 멋진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외친다. "마음대로 하자!"

'진보'라는 이름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다. 무슨 뜻인가?

가끔 "진보신당인가?"며 썰렁한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정치적 의미는 아니다. 나아갈 진(進), 걸음 보(步).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어도 매일 거북이처럼 성장하자는 뜻이다. 근데 확실히 검색엔진에서 진보신당한테 밀리긴 한다.



### 진보(Jinbo)

본명: 한주현  
출생: 1982년 7월 7일  
소속: 슈퍼프릭 레코드(대표)  
수상: 2011년 제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R&B 소울 음반 부문  
주력 장르: 일렉트로 소울



네, 진보 씨, 우리도 그런 거 좀 좋아해요.

**이름대로 살고 있나?**

'이름 따라 필자가 간다'는 말이 있지 않나? 어릴 땐 내가 작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정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

**2013년 11월호의 이 코너에서 당신을 추천한 디제이 코난과는 어떤 사이인가?**

작업실 이웃이다. 내 작업실과 코난의 작업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지. 새벽 4시에 그 친구가 말도 없이 들어와 집중하고 있는 나를 툭 쳐서 깜짝 놀라곤 한다. 귀신보다 코난이 더 무서워...

**그나저나 지난달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뭐 하다 왔나?**

형이 다니는 미국 휴스턴 한인 성당 축제에 초대 가수로 다녀왔다. 간 김에 조카도 보고 친구들도 만났지. 실은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에 나간다. 계속 이 일을 하려면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거든. 이번에는 박물관이랑 미술관을 구경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지칠 때마다 미국에 갈 수는 없지 않나? 한국에서는 주로 뭐 하고 노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 동네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에서 서점도 가고 옷 구경도

하다가 영화관에서 영화 팸플릿을 주워 보는 게 내 취미다.

**소박한 취미군, 디제잉을 할 때 주력 장르는 뭔가?**

일렉트로 소울, 일렉트로와 소울을 합치면 방대하니까 거의 모든 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제잉을 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있다면?**

내 디제잉에 관객이 미친 듯이 춤을 추거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순간을 기대하며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이 된다.

**당신이 프로듀싱한 음악은 언제 들으면 좋을까?**

낮보다는 밤. 이성과 단 둘이 있을 때 들으면 분위기 잡기에 좋을 거다. 특히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얘기 끝난 거지.

**언제부터 음악을 시작했나?**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음악을 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때는 프라이머리랑 '도시락'이라는 밴드에서 활동했고, 고등학교 때는 상문고 흑인음악 동아리 '흑락회'를 만들어 공연도 종종 했다. '흑락회'가 일진회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갖은 핍박을 이겨내고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

**어려서부터 끼가 많았군? 그나저나 프라이머리는 어떤 친구였나?**

프라이머리는 밴드에서 기타를, 난 드럼을 맡았다. 기타도 잘 치고 음악 이론에도 빠삭한 끼가 넘치는 친구였다. 근데 공연 때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재킷 하나 걸치고 무대에 오르더라. 표정을 보니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다. 노출증이 있나?

**유명인과 작업을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군가?**

양동근. 작업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 사실 내가 초등학교일 때 방송국에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양동근을 처음 봤다. 당시 양동근이 어디 중학교 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포스가 남다르더라. 그러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아직 만나면 인사만 나누는 사이인데, 더 친해지고 싶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때려치웠다며? 범생이였나?**

음악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여서 일단 CJ 그룹 계열사의 입사했다. 근데 오래는 못 다니겠더라. 음악을 할 때 경쟁자라고 생각하던 아티스트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초조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오늘 촬영장인 이태원 케이크샵(Cakeshop)에서 주로 플레이한다고 들었다. 끝나고 놀기도 하나? 그럼 당연하지. 내가 호스트를 하는 파티도 많아서 끝나고도 많이 본다. 원래는 아는 사람들하고만 놀았는데,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더라. 이제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그러면 여자들은 파티에서 어떤 술을 주로 많이 마시던가? 작업주 좀 추천해 달라. 여자는 기본적으로 단맛을 좋아해서 달달한 술을 권하면 괜찮다. 여기서 파는 '허니 위스키 토닉'도 좋고, '디사론노'라는 이탈리아 술에 토닉을 섞어도 맛있더라.

클럽에서 잘 노는 남자처럼 보이게 입는 법은? 너무 꾸미는 것보다 티셔츠 같이 맘을 흘려도 괜찮은 옷을 입으면 파티를 제대로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여자들에게도 먹히지.

그럼 여자들은 어떤 복장이 파티에서 가장 적절할까? 나는 살이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 라인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자가 섹시해 보인다.

당신들과 함께라면 끝내주게 재밌는 파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슈퍼리크 레코드는 우리의 자신감을 독려하려고 만든 거다. 사회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각자 개성을 발휘해 완성도를 높이는 거지. 모두 자기 개성에 자신감을 갖고 쿨대가 높아지길 바란다. 우린 그런 사람들 엄청 좋아한다. 같이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

앞으로 백화점 지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영화관에서 팸플릿 줍는 남자를 보면 당신이라고 생각할게요.



PHOTOGRAPH 김도훈 VIDEO 김상수 LOCATION Cakeshop@이태원

## 앨범 <KRNB\*> 중 진보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 세 가지

\*2012년 인기 케이팝을 진보의 색깔로 리메이크해 무료로 배포한 앨범.



### ① 아름다운 그녀

김건오의 '빨간우산'에 진보만의 풀기찬 그루브를 더해 만든 리메이크 곡이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가사가 진곡이다.



### ② 러브 게임

보아의 원곡 '게임'을 펑크 스타일로 재현했다. 1980년대 펑크 음악의 교과서적인 진행에 절로 어깨가 들썩거린다.



### ③ 너와 함께하면 행복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를 재해석한 곡. 원곡 못지않게 개성 넘치는 곡이다.



## Who's Next?



썸데프와 썸원의 디제이 유닛  
Som serious

Coming Soon! (어, 얼굴 좀 보여주게)



스피카 / 메타 월드 피스 126th 2013. 11



크리스티나 아귀레라 / 전격의 기인 125th 2013. 10



Life Guard Special / 김진표 124th 2013. 09

서유리 123th 2013. 08



정기하 123th 2013. 08



공서영 / 유현진 122th 2013. 07



비키 / 김부성 121th 2013. 06



엘리스 커스버트 / 장민혁 120th 2013. 05



사유리 119th 2013. 04



유지 119th 2013. 04



나인뮤지스 송성미 116th 2013. 03



최후의 117th 2013. 02



아라야니 셀레스티 116th 2013. 01



박지민 115th 2012. 12



바 레미엘리 114th 2012. 11



113th 특별 한정판 MISS MAXIM 4강 B컷 모음집



강예민 112th 2012. 10



아라야니 셀레스티 111th 2012. 09



말린 에커민 110th 2012. 08



아이샹린 109th 2012. 07



에이드린 헬러 108th 2012. 06



MAXIM EDITOR 107th 2012. 05



2012 MISS MAXIM 4강 B컷 모음집



나인뮤지스 세라 105th 2012. 03



에비 엘리엇 104th 2012. 02



라니아 티에 103th 2012. 01



캐론 디아즈 102th 2011. 12



제사카 고크즈 101th 2011. 11



100호 특집 100th 2011. 10



메이바 99th 2011. 09



루시 헌팅턴 화이트리 98th 2011. 08



나르샤 97th 2011. 07



미셸 프라첸버그 96th 2011. 06



걸스데이 유라 / 걸스데이 민아 95th 2011. 05



차유림 94th 2011. 04



에이브릴 라빈 93th 2011. 03



김민아 / 송지선 92th 2011. 02



BASE G.O.D. 91th 2011. 01



BASE G.O.D. 90th 2010. 12



이슬아 89th 2011. 01



VNT 유미 90th 2010. 12



언니 루리코 88th 2010. 11



린제이 로빈 88th 2010. 10



Kelly Brook 87th 2010. 09



나탈샤 일라 86th 2010. 08



셀러브리티스 85th 2010. 07



Big Bang Theyy's 83th 2010. 05

\*흑백처리된 커버의 유효는 품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독송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강예민 / 이현도 127th 2013. 12

# SONYU ALBA



This winter  
What's your fantasy?

[www.sonyualba.com](http://www.sonyualba.com)

# MAXIM BUYER'S EDGE

내 볼에 키스를 불러줄 라네즈옴 액티브워터 크림  
 청량한 파란색 케이스에 세시한 키스마크가 돋보이는 한정판  
 라네즈옴 액티브워터 크림이 출시된다. 특히 받은 성분  
 액티브워터와 효모 발효 추출 성분이 끈적임 없이 빠르게  
 보습막을 형성해 오랫동안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한다.  
 크림을 바를수록 더 깊은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질감이  
 특징이다. 한정판 액티브워터 크림에는 Kiss on His Cheek  
 이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다.  
 물론 자신에게 주는 선물용으로도 좋다. ㅎㅎ...



Kiss on his ch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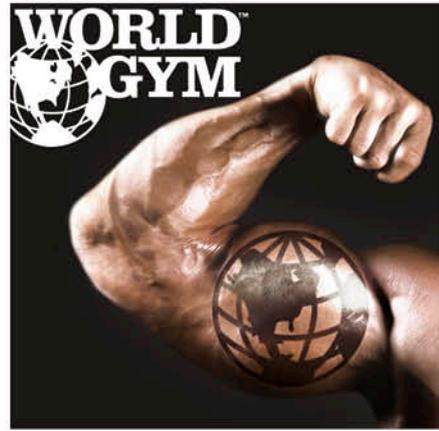
35,000원대(50ml), 라네즈(080-033-5454, www.laneige.co.kr)



## 배꼽 잡는 연극, New 코미디 넘버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웃음이 정신없이 뿜뿜 터지는 연극 <New 코미디 넘버원>을 만나보자. 인질극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믹 창작극으로 쉴 새 없이 터지는 배우들의 애드리브가 배꼽을 부여잡게 한다. 또 무대 곳곳에 숨어있는 기발한 무대장치와 공연에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위대한 탄생3>에 출연했던 배우 양동선이 형사 재훈 역을 맡아 더욱 기대되는 <New 코미디 넘버원>. 공연 보면서 팔짱끼고 짜짜려 보면서 어디 한번 웃겨봐라! 그러진 말자. 쫌! 오픈 마인드를 가져!

30,000원(일반석), 르메이에르(010-2101-2533)



## 받아 봐, 월드짐 무료 체험

언제까지 방에만 누워 가독이나 없는 근육을 지방으로 타락시킬 텐가? 전 세계 600여 개의 클럽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피트니스 브랜드 월드짐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드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FREE PASS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만 작성하면 신청 완료. 바로 월드짐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핫! 핫! 핫! 두터운 스웨터 안에 딱 찬 일통을 만들것어, 일행이가 딱 차야 진짜 남자! 월드짐(www.asiaworldgym.com)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은  
 커플이아**  
 www.couple2ya.com

검색창에 **커플이아** 를 검색해 보세요.

## 그녀의 마음을 초콜릿처럼 달콤하게! 커플이아

신년 이벤트가 끝나면? 밸런타인데이의 압박이 시작된다! 초콜릿만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조선 시대 이야기. 이제 대한민국 대표 커플링 브랜드 커플이아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초콜릿보다 더 달달하게 녹여보자. 커플이아는 자체 공장에서 직접 만든 반지를 전광석화같이 빠른 배송과 거품을 쏙 뺀 유통으로 대한민국 커플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 선물 상자 속에서

여자들이 뒤적이며 찾는 건 초콜릿과 사랑이 아니야. 이제 순진한 척 그만 하지?! 커플이아(070-8972-1250, www.couple2ya.com)

## 2013년의 마지막 밤은 2014 밀러 카운트다운 파티

12월 31일, 2013년의 마지막과 2014년의 시작을 밀러와 함께하자. 프리미엄 수입맥주 밀러가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2014 밀러 카운트다운 파티를 개최한다. DJ로 고공 행진중인 고유명수 그레이트 박과 DJ KOO, SORO 등 국내 최정상 DJ들과 함께 6시간 30분 동안 뜨거운 파티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매는 인터파크와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무료 음료 쿠폰 2장이 함께 제공된다. 2013년의 피날레는 밀러와 함께! It's miller time! 30,000원, 사브밀러 브랜드 코리아(www.miller.co.kr)





**UFC SINGAPORE의 메인 이벤트 주인공은?!**

2014년의 첫 UFC 경기가 열리는 1월 4일 UFC SINGAPORE에 임현규 선수가 메인 이벤트로 깜짝 발탁됐다. 화려한 니킥 기술로 두 경기 연속 KO승을 이끈 임현규 선수는 '교통사고 니킥'이라는 별명을 얻은 다코흐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에 이어 두 번째 메인 이벤트로 등극했다. 절대 질 수 없는 한일전에 참가하는 미스터 퍼펙트 강경호 선수와 방태현 선수의 UFC 데뷔전도 준비되어 있다. UFC SINGAPORE는 2014년 1월 4일 토요일 저녁 9시, 액션 전문 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생중계된다.  
수퍼액션(080-080-0780)



**내려갈수록 올라갑니다!  
다양한 혜택은 곤지암리조트 미타임V 멤버십**

겨울 스포츠의 꽃은 당연히 스키와 스노보드! 그러나 이제 아무 혜택 없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여리석은 시대는 끝났다. 곤지암 리조트 미타임V 멤버십은 스키를 타는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적립된 포인트로 경품까지 제공한다. 또한, 누적 시간에 따라 전문 스키 강사의 레슨까지 받으며 실력 향상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30, 50, 100시간 누적 때마다 SMS 알림을 보내줘 까먹지 않게 배려까지 한 똑똑한 멤버십이다. 스마트한 시대에 이제 스포츠도 스마트하게 즐겨보자!  
20,000원(카드 발급비), 곤지암리조트(1661-8787)

**돌리고 돌리고~ 스마트 마사지기,  
ZINI dib BANG**

이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스마트한 시대가 왔다. 대한민국의 대표 성인 명량완구 브랜드 ZINI가 남성만을 위한 스마트 마사지기 dib BANG BANG을 출시했다. 저소음의 고성능 모터가 탑재되어 총 50가지의 다양하고 강력한 마사지 모드를 구현하여 남성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선사한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할 필요가 없네! 알아서 다 해준다. 멋진 신세계는 이럴 때 쓰는 말이지! 가격 미정.  
부르르닷컴(1661-7725, www.bururu.com)



**앱솔루트 블루 런칭 파티로 뜨거운 세빛동동섬**

지난 11월 21일, 반포 한강공원의 세빛동동섬이 앱솔루트 블루 런칭 파티로 뜨겁게 불타올랐다. 2013 앱솔루트 리미티드 에디션인 앱솔루트 블루의 이미지를 잘 표현될 수 있게 특별 제작한 칵테일잔에 블루 칵테일을 담아 선보였다. 또 블루 포인트의 오브제와 바다페인팅을 한 모델들과의 포토타임이 준비됐다. 힙합 그룹 부가킹즈의 공연과 뽕뽕한 사운드의 Djing은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의 흥을 돋우며 파티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섬에서의 파티, 배도 끊기나요?  
앱솔루트(www.absolut.com)



**데일리호텔로 특가호텔 70% 할인반자**

이제 호텔 찾느라 고생하지 말고 고급 호텔로 가자. 데일리호텔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손가락 하나로 아주 간편하게 저렴한 가격의 특가 호텔을 찾을 수 있다. 간소화된 결제와 예약 프로세스를 통해 당일 예약은 물론 30초면 결제 완료! 또 당일엔 남은 객실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밤을 보낼 수 있다. 모바일의 GPS 기능을 통해 사용자 근처에 있는 호텔을 검색할 수 있는 편리성까지 갖췄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빈방 있어요!  
무료, 데일리호텔(dailyhotel.co.kr)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짹짹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홈페이지  
전역 인증  
게시판



←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겠네.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가지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조부께서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MAXIM에 전역 신고만 하면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쓴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1명에게  
멋진 세이코알바 손목 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4년 1월 20일까지)

# 전역자랑깁



**박민수**  
안녕, 8293  
친구들이 전역한 지  
이틀 만에 MAXIM

에 인증 글을 올린다. 난 사실 휴가를 길게  
나와서 그런지 전역해도 그다지 짜지는 기분이  
없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가휴가는 말년에  
터뜨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8293 친구들,  
조금만 고생해라. 전역하면 인천에 와라. 형이  
맛난 거 사줄게

평생 30%



**고준호**  
내 부사수 기대야,  
잘 지내고 있느냐?  
형 MAXIM에 나온다!

빠들이 아들 훈! 만수야! 사...사... 열심히 잘 살아라!

평생 30%



**이요한**  
내가 안에서  
MAXIM 보면서  
나가면 진짜로 전역

인증한다고 했는데, 안 믿었지? ㅋㅋ  
MAXIM이 부대에 도착하는 순간 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전역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다들 힘든 시간인데  
고생이 많다. 먼저 나온 내가 미안해지네.  
그래도 다들 할 수 있어! 파이팅!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면회도 갈게.

평생 30%



**김진웅**  
애들이. 별로 할 말은  
없다. MAXIM을  
보면서 '나도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니 신기하구나. 모두 그때가 생각나서  
올려본다. 힘내라!^^

평생 30%



**박영산**  
이제 한참 눈  
쓰느라 허리가  
빠근하고 다리가

부시겠다. 그 덕에 나는 편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리는 눈을 구경한다.

평생 30%



**이상훈**  
군대에서 MAXIM  
을 알게 되고,  
결국 전역해서

이렇게 정기 구독을 신청한다. 상환실에 박혀서  
MAXIM을 펼쳐놓고 놀던 때가 잊그제 같다.  
형은 벌써 차를 타고 다니시는 한 살 많은 차차와  
예쁜 사랑 중이다. ㅋ 회사 복직해서 다시 만나네.  
온종일 뛰다니고 아침이면 신문 배달에 청소,  
쓰레기통 비우느라 바쁘다. 다시 이병으로  
돌아가어. ㅋ 아무튼 곧 겨울인데 소방차 관리  
잘하고 추운데 조금만 더 고생해라. 무척 소망반  
파이팅!

평생 30%



**이명철**  
안녕 동생들아.  
내가 이제 전역한  
지 일주일 정도

됐지만, 군대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근무하며  
시민을 지키는 일을 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너희도 곧 있으면 전역하고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니, 남은 군 생활 파이팅!

평생 30%



**남도훈**  
군대에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후임들아.  
나와 보니까 부대

안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세상이 바뀌진 않았다. ㅋ  
이제 술술 눈도 오고 너희는 잠도 편안히 못  
자겠지만 뭐, 그 고생도 전역하면 싹 녹아내린다.  
밖에서도 MAXIM은 꾸준히 사서 보고 있다. ㅋ ㅋ  
이제 정기구독도 신청하려고. 여하튼 부대 생활  
열심히 하고 남은 군 생활 건강히 마쳐서 나와서는  
웃으면서 보자.

평생 30%



**김은중**  
입대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전역이구나. 군 생활 중에는 시간이  
안 갔는데 전역하고 나니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걸 새삼 느낀다. 후임들아,  
하늘에서 내리는 눈 치우면서 혹한의 겨울!  
더욱더 고생해라!

평생 30%



**조관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종이  
많이 닮았습니다.

아직 내 이름 석 자를 못내 그리워하고  
있을 몇몇 전우들을 위하여 손수 전역 인증  
게시판에 글을 적고 있노라니, 이 글을 보고  
배알이 뒤를릴 몇몇 일그러진 영웅들이  
눈앞에 선히 아른거립니다. 마침 그쪽은  
본격적으로 헬게이트가 열리어 천주께옵서  
천히 눈의 정령을 진두지휘함에 그  
은혜로움이 한 줄기의 슬픔으로 흘러내리는  
시즌이로군요. 내 삼삼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과월호를 보내드리오니, 입대  
일은 몹시 일렀으나 전역일이 천 년의  
제국처럼 영원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나의 친애하는 동기, 하사 탁창호가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30%



**최장규**  
애들이, 전역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집에서 한가롭게 잉여처럼 있는데  
웬지 휴가 나온 기분이네. 다시 너희 곁으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과를 받아야 할  
것만 같다. 예전에 부대에서 MAXIM을 보며,  
전역하면 전역 인증 꼭 해야겠다고 한 것도  
엇그제 같은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 말할  
때 수술하고 와서 너희랑 더 부딪히며 인사  
못 해서 미안하고, 끝까지 힘내서 전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끝까지 파이팅!

평생 30%



**송선호**  
잡들 지내고 있지?  
MAXIM 도둑들.  
ㅋㅋ 매달 부대로

MAXIM 책 주문해서 관물대에 넣어 놓으면  
어느새 MAXIM만 쓱 없어져 있었지. 말년이  
돼갈수록 점점 녀석의 행동은 대담해지더군.  
4월 후임들아, 너희가 가장 유력하지만 난 다  
아해한다. 항상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까칠한  
간부님들로 인해 정신이 없는 본부대지만 그냥  
"나 죽었소" 하고 실연 나처럼 전역의 날이  
빨리... 다가오진 않더라. ㅋ ㅋ 레알! 그런데 정호  
안 받고 잡일 안 해도 돼서 매우 좋긴 한데,  
나오면 별거 없다...는 개불! 좋아 죽음. ㅋ ㅋ  
ㅋ 너희 덕에 밤에 발 뺏고 잘 잔다. 그럼 이만  
독고다이는 GTA5 하러 간다.

평생 30%

위 12명을 비롯한 총 30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 구독 평생 30% VVIP가 되었다!

# Fortune Telling

## 타로로 점치는 2014 금전운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에 가장 궁금한 운세는 MONEY MONEY 해도 금전 운이겠지? 돈 많이 벌고 평평 쓰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카드를 한 장 골라보자.

BY 타로마스터 정희도(www.tacaso.net)

다음 중 당신의 상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한 장을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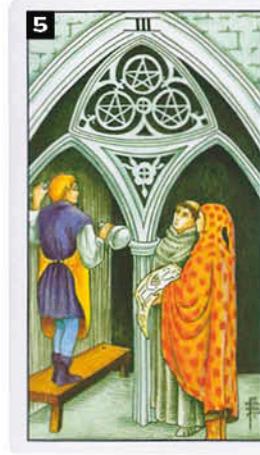


카드 뒷면의 또 다른 진실



### 타로마스터 정희도

- 전 마이더스 학원 운영
- SBS 공채 10기 개그맨 활동
- YBM, 파고다 타로 취업 특강 강사
- 타카스(타로 카드 소울 메이트) 운영



### ◆ 타로 풀이 보기 ◆

**CARD 1** 진격의 오른손 하나가 구름에서 뿜어 나와 거대한 황금 동전 하나를 건넌다. 카드에 적힌 'Ace'라는 단어는 '새로운 시작'을, 손을 내미는 모습은 '기회'를 뜻한다. 그런데 하늘을 다 가릴 듯 커다란 손. 선택 잡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풀이:** 과연 당신의 작은 지갑이 저 어마어마한 동전을 담을 수 있을까? 2014년, 당신에게는 돈 벌 기회가 줄줄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려 크게 한몫 잡느냐, 아쉽게 흘려보내느냐는 당신의 역량에 달렸다.

**CARD 4** 돈이 그렇게나 좋은지, 사진 속 남자는 황금 동전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꼭 끌어안은 것도 모자라 양팔로 하나씩 뺄고 있다. 단 하나의 동전이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풀이:** 이 카드를 고른 당신은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새해에는 돈을 약탈같이 모을 작정이다. 카드 속 남자가 동전을 딱 네 개만 움켜쥐고 있듯이, 당신도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해놓았을 거다. 새해에는 그 돈을 만질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CARD 2** 한 상인이 돈을 나눠주고 있다. 언뜻 보면 마음씨 좋은 상인 같지만, 그의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다. 그는 사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자신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투자하고 있는 것. 투자 가치가 없는 노숙자에게는 눈길도 안 준다.  
**풀이:** 올해 공돈이 생긴다면 반드시 경계하라. 당신에게 오는 돈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웬 떡?"하고 바로 써버렸다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는 보장되니 너무 졸지는 말고.

**CARD 5** 세 명이 교회 건물을 짓고 있다. 옛날 유럽에서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게 돈도 되고 명예도 따르는 일이었다. 한편 교회는 큰 단체나 정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풀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면 아주 반가운 카드다. 불안정한 계약직의 설움을 벗고 드디어 안정적인 정규직이 될 운이 따른다. 거기다 당신이 다닐 직장도 꽤 탄탄하고 규모 있는 큰 회사나 단체일 것이다. 단, 큰돈을 만지기를 원했다면 올해는 팽. 다음 기회에.

**CARD 3** 한자리에 앉아 동전을 만들어 나무에 매달고 있는 장인.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지루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저 동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풀이:** 몇 년 전부터 주머니 사정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올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한동안 그냥저냥 먹고사는 데 지장은 없겠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다. 크게 일어서고 싶은가? 이미 무거워진 엉덩이를 떼고 싶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

**CARD 6** 광대가 뱀비우스의 띠 안에서 황금 동전을 굴리고 있다. 뱀비우스의 띠는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도 결국에는 같은 지점에 돌아온다. 아무런 변화 없는 상태가 무한정 반복된다는 얘기다.  
**풀이:** 돈이 들어온다고 마냥 기뻐하지 마라. 들어오는 대로 돈이 나갈 운이다. 혹시 술, 여자, 도박을 좋아하는가? 이 카드를 고른 당신의 2014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거다. 궁핍하지는 않지만, 돈이 쌓이지 않고 계속 새어나간다. 돈을 모을 생각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흥부터 끊어라.

# Unpicked

## 이달의 몸쓸 사진

겜은 중이에, 휴지는 쓰레기통에, 몸쓸 사진은 이곳에 투척!



이달의 꾸구리1

### ICON 노라조(p.102)



**못 쓴 이유** 거친 야생마가 아닌 일진에게 뺨서를 하는 꾸구리 조랑말 같이 나와서, 복상으로 죽은 종마 귀신이라도 보셨나들? 왜 이리 겁먹은 표정이야?



이달의 몸쓸 손

### Style 보디삼푸(p.84)



**못 쓴 이유** 화성 에디터 팬 여러분 진정들 하거나, 난 후배 팬티 벗기고 그런 놈 아닐세. 그저 옷매무새를 고쳐 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달의 몸쓸 시선

### 표지 모델 정인영 화보(p.107)



**못 쓴 이유** 싸우는 척 하라니까 카메라를 의식하는 축구부 모델들, 너희가 몸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준 거야. 누나 전화번호는...



이달의 꾸구리2

### MISS MAXIM 우승자 화보(p.122)



**못 쓴 이유** 김소희가 꾸구리 포즈를 하고선 너무 쓸데없이 해맑아서, 소희씨 MISS MAXIM 우승 축하해요^^



이달의 맞짱

### 분노의 MAXIM(p.120)



**못 쓴 이유** 김도훈 포토그래퍼와 김희성 에디터가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아 보여서, 난 김희성이 이긴다에 한 표!

강경호 | UFC 첫 승 도전

방태현 | UFC 데뷔

임현규 | UFC 메인 경기 출전

코리안 파이터 3인 동시 출전!

**UFC** SINGAPORE

1월 4일 (토) 밤 9시 **ACTION** SUPER 독점 생중계

# MAXIM



KOREA

## ICON

### 노라조

야심차게 컴백한 연기 2인조를 진정한 '야생마'로 만들기 위한 초특급 야외 촬영 프로젝트!

- 혹한기 상의 탈의 8시간
- 4족 보행 10시간
- 당근 20개 강제 시식
- 마구간 노동 2시간
- 통나무 허들 30회
- 조련사와 스포린트 3시간

**FIGHT OF THE YEAR**  
 역사에 길이 남을 UFC 명승부  
**마크 헌트 VS. 안토니오 실바**

## ISSUE

효린이 한국의 비온세?  
임창정의 신들린 양아 연기 세계

## GROOMING

여자 찜 찜 먹을 남자의 보디클렌저

## BOOK

남자가 더 질편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할 책 17권

## MILITARY

만들다 망한 무기

## GEAR

휘었는데 명기가 못 된 G 플렉스 극강의 귀차니스트 아이디어 상품

JANUARY 2014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01  
 ISSN 2233-4270



본 자료는 MAXIM Korea의 저작물이므로 개인 소장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곳에 재업로드, 제3자에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MAXIM**  
KOREA